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연구 과제명 :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연구 수행자

| | | | |
|-------|-----|----------|------|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고용조사분석센터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자 | 조동진 | 고용조사분석센터 | 과 장 |

| 이용자 안내 |

- 본 보고서는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2011년 미진학 고졸자를 대상으로 2011년 5월~7월 조사한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 사용된 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표준화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입니다.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공개시점(2011년 12월)의 자료로 추가적인 자료정제(data cleaning) 과정을 통해 통계수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통계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며, 분석에서 무응답값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자료 출처와 발간 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의 전문은 <http://survey.kei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조사분석센터(63toky@keis.or.kr)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 |
|--------------------------------|-----|
| 제1장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개요 | 1 |
| 1. 조사배경 및 추진경과 | 1 |
| 2. 조사설계 및 설문내용 | 4 |
| 3. 표본설계 | 7 |
| 4. 가중치 산출 | 16 |
| 제2장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주요결과 | 25 |
| 1. 2011년 고졸자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 25 |
| 제3장 고졸자의 일자리 경험 | 38 |
| 1. 현재 일자리 | 38 |
| 2. 졸업 후 경험 일자리 | 64 |
| 제4장 고졸자의 학교생활 및 일자리 준비 | 77 |
| 1. 학교생활 | 77 |
| 2. 취업목표 | 82 |
| 제5장 고졸자의 직업훈련 및 자격 | 87 |
| 1.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 87 |
| 2. 취득 자격증 | 99 |
| 제6장 고졸자의 구직활동 | 106 |
| 제7장 고졸자의 가계배경 | 116 |
| 부록1. 설문지 | 120 |

< 표 목차 >

| | |
|---|----|
| <표 I-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주요설문내용 | 7 |
| <표 I-2> 마스터표본의 표본조사 현황 | 14 |
| <표 I-3> 최종표본의 표본조사 현황 | 15 |
| <표 I-4> 최종 가중치로부터 추정된 조사모집단 규모 | 23 |
| <표 II-1> 2011년 권역별 전문계고 졸업 후 진로현황 | 25 |
| <표 II-2> 고졸자의 경제활동상태 | 26 |
| <표 II-3>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 27 |
| <표 II-4>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28 |
| <표 II-5> 월평균 임금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 30 |
| <표 II-6>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 31 |
| <표 II-7>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 32 |
| <표 II-8> 졸업 후 일자리 경험횟수 | 33 |
| <표 II-9> 졸업 후 구직활동 경험 | 34 |
| <표 II-10> 전문계열 고등학교 선택 이유 | 35 |
| <표 II-11> 향후 1년 이내의 계획 | 37 |
| <표 III-1> 특성별 경제활동상태 | 39 |
| <표 III-2> 현재일자리 진출분야(산업대분류) | 40 |
| <표 III-3> 현재일자리 진출분야(직업중분류) | 42 |
| <표 III-4> 현재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43 |
| <표 III-5> 현재일자리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분포 | 44 |
| <표 III-6> 16개 시도별 정규직 비율 | 46 |
| <표 III-7>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월평균 소득 | 50 |
| <표 III-8> 현재 일자리 만족도 | 51 |
| <표 III-9> 현재 일자리의 업무내용과 교육수준 | 53 |
| <표 III-10> 현재 일자리 업무내용과 자신의 전공 비교 | 54 |

| | |
|---|----|
| <표Ⅲ-11> 전공 지식의 현재 일자리 업무 수행 도움정도 | 55 |
| <표Ⅲ-12> 현재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률 | 57 |
| <표Ⅲ-13> 현재 일자리에서 부가혜택 수혜율 | 58 |
| <표Ⅲ-14>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가입률 | 59 |
| <표Ⅲ-15> 현재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점 | 60 |
| <표Ⅲ-16> 대학진학 필요성 느낀 유무 | 62 |
| <표Ⅲ-17> 유형별 대학진학 필요성을 느낀 이유 | 63 |
| <표Ⅲ-18>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유무 | 64 |
| <표Ⅲ-19> 경험 일자리 진출분야(산업대분류) | 65 |
| <표Ⅲ-20> 경험 일자리 진출분야(직업중분류) | 66 |
| <표Ⅲ-21> 경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68 |
| <표Ⅲ-22> 경험 일자리의 종사자 수 | 70 |
| <표Ⅲ-23> 경험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 73 |
| <표Ⅲ-24> 경험 일자리 업무내용과 자신의 전공 비교 | 74 |
| <표Ⅲ-25> 경험 일자리 그만둔 이유 | 76 |
| <표Ⅳ-1> 전문계열 고등학교 선택 이유 | 78 |
| <표Ⅳ-2>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 | 79 |
| <표Ⅳ-3> 동일전공 선택 여부 | 80 |
| <표Ⅳ-4>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81 |
| <표Ⅳ-5> 출신 고등학교 교육 만족도 | 82 |
| <표Ⅳ-6> 취업목표 경험 유무 | 83 |
| <표Ⅳ-7> 취업목표 직장(일자리) 형태 | 84 |
| <표Ⅳ-8> 취업목표 달성여부 | 85 |
| <표Ⅳ-9> 취업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 | 86 |
| <표Ⅴ-1>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 88 |
| <표Ⅴ-2> 취업여부에 따른 고졸자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여부 | 89 |
| <표Ⅴ-3>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90 |
| <표Ⅴ-4>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 | 91 |
| <표Ⅴ-5> 성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분야 | 92 |
| <표Ⅴ-6> 전공계열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분야 | 93 |
| <표Ⅴ-7>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 또는 훈련 시기 | 94 |

| | |
|---|-----|
| <표 V-8>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주체 | 95 |
| <표 V-9>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방법 | 96 |
| <표 V-10>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 | 97 |
| <표 V-11>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대비 도움정도 | 98 |
| <표 V-12> 자격증 소지 유무 | 99 |
| <표 V-13> 취업 여부에 따른 고졸자의 자격증 소지 유무 | 100 |
| <표 V-14> 자격증 소지 개수 | 101 |
| <표 V-15> 자격증 취득 시기 | 103 |
| <표 V-16> 자격증 취득 목적 | 104 |
| <표 V-17> 자격증 취득 목적대비 도움정도 | 105 |
| <표 VI-1> 졸업 후 구직활동 여부 | 106 |
| <표 VI-2>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 108 |
| <표 VI-3> 성별, 전공유형별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 109 |
| <표 VI-4> 구직자들의 노력 | 110 |
| <표 VI-5> 성별, 전공유형별 구직자들의 노력 | 111 |
| <표 VI-6> 구직활동에서 고려 항목의 중요도 | 112 |
| <표 VI-7>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 113 |
| <표 VI-8> 경제활동 상태별 1년 이내 계획 | 114 |
| <표 VI-9> 성별 1년 이내 계획 | 115 |
| <표 VII-1> 부모님 최종학력 | 116 |
| <표 VII-2> 부모님 직업 | 117 |
| <표 VII-3>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 119 |
| <표 VII-4> 가구원수 | 119 |

<그림 목차>

| | |
|------------------------------------|-----|
| [그림 I -1] 조사 설계안 | 5 |
| [그림 I -2] 본조사 설문 흐름도 | 6 |
| [그림Ⅲ-1] 특성별 정규직 비율 | 46 |
| [그림Ⅲ-2] 현재 일자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48 |
| [그림Ⅲ-3]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 49 |
| [그림Ⅲ-4] 특성별 경험일자리 정규직 비율 | 69 |
| [그림Ⅲ-5] 경험 일자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71 |
| [그림Ⅲ-6] 경험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 72 |
| [그림 V-1] 고졸자의 자격증 소지 개수 | 102 |
| [그림 VI-1] 구직활동을 위한 주당 평균소요시간 | 107 |
| [그림Ⅶ-1]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 118 |

제1장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추진경과

1) 조사배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IMF 경제위기 이후 10여년 넘게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 부었지만 최근까지 청년실업률이 7~8%대를 유지하며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 대학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80%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소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job mismatch)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정책들은 대졸자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고졸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보의 수집과 이들을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졸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년층 중 고졸 실업률이 높고 고졸 이하 학력 실업자가 청년 실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졸자를 위한 직업지도·직업훈련·취업알선·국가인력수급전망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6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과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인적 자본 투자 수익률, 과잉교육 등과 같은 교육-노동시장간 이행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미진학 고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진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기존 청년패널(YP)과 교육고용패널(KEEP)은 표본수가 너무 작아¹⁾ 세부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 인력수급전망시 세부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차 전망을 위해 고졸 청년층에 대한 세부적인 고용통계 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3.9%('08년)→81.9%('09년)→79.0%('10년)→72.5%('11년)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고 사회적으로도 점차적으로 고학력 인플레 현상이 완화되고,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구조조정, 고졸채용 확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으로 대학진학률 하락은 더욱 빠르게 낮아져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면 고졸자에 대한 특화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기초 통계정보를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대학진학률 하락 등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 고졸자가 증가할 경우 기초통계의 부족으로 정책 수립에 곤란할 수 있다. 현재도 청년층 경찰인구 중 고졸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졸자에 대한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고졸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1) 청년패널(YP) 신규 졸업자중 취업자 표본수는 약 200명, 교육고용패널(KEEP) 신규 고졸자중 취업자 표본수는 약 300~500명 정도에 불과함.

중장기 국가인력수급전망 결과 보고시 언급되면서 세부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차 전망과 청년층 고용정책지원을 위해 미진학 고졸 청년층에 대한 특화된 세부적인 통계조사를 신설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미진학 고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도입하고 그 첫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09년 3,000여명→'10년 4,000여명→'11년 5,000여명, 전문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도 '09년 25,000여명→'10년 30,000여명→'11년 35,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고졸자 중 진학자를 제외하면 약 178,000여명이 되는데, 이 중 대학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및 군입대(예정)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약 103,000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이미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 및 취업을 경험했던 이직자 등의 실업자를 포함하고, 대학 중퇴자(진학자 중 약 10%가량 추정)까지 포함하면 미진학 고졸 정책대상은 약 15만 여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추진경과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다음과 같은 추진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 '10. 5. 12. : VIP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조사의 필요성 언급
- '10. 7~11월 : 조사도입 타당성 검토, 표본추출 등 예비조사 준비
 - 사전연구 및 예비 코호트조사를 위한 연구진 구성
 - 조사도입 타당성 검토 및 '11년도 예산 확보
 - 조사모집단 및 표본추출틀로 수능응시현황 자료 활용(전문가 회의)
- '10.12.15~'11.2.28 : 예비 코호트조사 현장실사 진행
 - 본조사시 5천명의 패널구축 목표로 1만 명의 예비코호트조사 실시
 - 전국 교육청 및 각 학교에 협조요청 문서시행(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협조)
 - 2단계로 실사 진행
 - (1단계) 학교컨택 조사대상자(미진학자) 명단 확보
 - 수집된 전체 리스트는 총 26,150명(전문계고 23,274명, 일반계고 2,876명)
 - (2단계) 개별조사 실시

- 예비 코호트조사 실사결과 10,723명 구축(일반고 1,008명, 전문계고 9,715명)
 - '11.5.23~'11.7.31 : 5,700명(전문계고 5,000명, 일반계고 700명)을 표본 추출하여 본조사 실시
 - 통계청 조건부 승인('11.5.17)
 - 최종 조사결과 전문계고 5,281명, 일반계고 714명 조사 완료('11.8월)
 - 전문계고는 권역(지역)별, 특성별 분석하고 일반계고는 전국기준으로만 분석가능(전문가 회의)
 - 가중치 산출 연구 및 데이터 클리닝 진행('11. 11. 30)
- 이와 같이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는 2011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횡단면 조사로 고졸 청년층을 위한 직업지도·직업훈련·취업알선·국가인력수급전망 정책 등 교육·노동시장 이행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32706) 조사이다. 특히, 산업소분류(228개)·직업세분류(426개) 수준에서 고졸자의 세부 고용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인력수급전망시 고졸 학력자에 대한 세부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차 전망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 조사설계 및 설문내용

새로운 조사도입 과정에서 조사설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사목적, 조사대상(표본규모), 예산확보 그리고 조사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조사 설계(안)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동 조사를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소요예산), 조사주기, 정책적 활용도 및 현실적인 조사부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다(박상현 외(2011)의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사전연구 및 예비 코호트조사 보고서』 참조).

여러 가지 조사 설계(안)을 검토한 결과 2년 주기로 2~3년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였으나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과정에 조건부 승인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조사설계(안)을 재검토한 결과 고

졸 청년층의 특성상 군입대 변수와 패널 유지 관리가 어렵고 2015년부터 많은 예산의 소요와 현장실사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패널조사보다는 횡단면조사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림 1-1]과 같이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코호트조사를 거쳐 약 3개월이 지난 익년 5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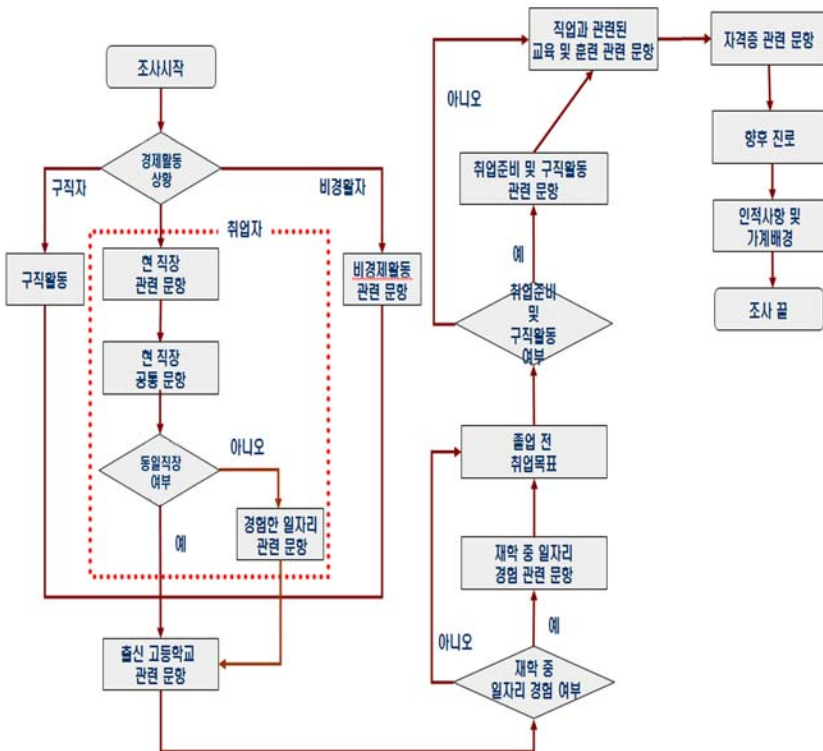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첫 조사는 201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부터 예비 코호트조사를 거쳐 약 10,000명의 마스터표본을 구축하고 이듬해인 2011년 5월에 약 5,7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예산확보 과정에 예산집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홀수년도 12월~익년도 2월에 조사하는 예비 코호트조사를 본 조사와 함께 같은 해에 실시하는 조사 설계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HSGOMS)는 홀수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자들 가운데 약 10,000여명을 마스터표본을 구축하고 본 조사에서 이들 중 5,700여 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는 2단계 조사이다.

| 졸업년도 | 조사년도 | | | | | | | |
|----------|------|------|------|------|------|------|------|------|
|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11년 졸업생 | ▲ | ● | | | | | | |
| '12년 졸업생 | | | | | | | | |
| '13년 졸업생 | | | | ▲+● | | | | |
| '14년 졸업생 | | | | | | | | |
| '15년 졸업생 | | | | | | ▲+● | | |
| '16년 졸업생 | | | | | | | | |
| '17년 졸업생 | | | | | | | | ▲+● |

주) ● : 본조사, ▲ : 예비코호트조사로 고3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스터 표본 구축

[그림 1-1] 조사 설계안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설문내용 구성은 조사기준시점 현재의 노동 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고졸 청년층 중 진학자 및 입대자를 제외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출신고교 성격 재학 중 경력개발과 취업경험, 졸업 후 구직기간 등 구직경험, 산업(소분류 수준) 및 직업(세분류 수준)과 임금, 노동시장 이동, 직업관 및 진로, 직업 훈련 및 자격증, 개인 신상 및 가계배경 등을 조사한다.



[그림 1-2] 본조사 설문 흐름도

〈표 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주요 설문내용

| 조사항목 | 주요 조사내용 |
|-------------|---|
| 경제활동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현재 구직여부 취업 희망여부 비구직 이유 |
| 현직장 관련 문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변화 산업/직업 변화 직급 변화 중사상 지위 변화 고용형태 변화 |
| 현직장 공통문항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형태 계약기간 직장형태/종업원수 근로시간/근무일수 임금 현 직장 만족도 사회보험 및 혜택 노동조합 가입여부 |
| 현직장 공통문항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계고 전공이 업무에 도움되는 정도 일자리 정보 얻는 방법 취업한 경로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 직학의 필요성/이유 현직장 외 다른 일자리 여부 |
| 비경제 활동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
| 졸업 후 경험 일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기간 산업/직업 중사상 지위 고용형태 직장형태/종업원수 근로시간/근무일수 임금 그만둔 이유 실업급여 |
| 졸업한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신학교의 계열 계열 선택한 이유 전공 선택 이유 전공선택 만족도 교육 시설 진로지도 만족도 |
| 졸업 전 취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 전 취업목표 취업목표 설정 시기 계획했던 직업 원했던 직장형태 |
|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시작 시점 구직 소요 시간 구직활동 이유 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의 어려움 |
| 직업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여부 받은 훈련 수 훈련명/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 목적 훈련 방법 |
| 취득자격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취득 여부 소지 자격증 수 자격증 유형 취득시기 취득이유 도움정도 |
| 향후 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내 향후 진로 취업 및 이직 이유 개인사업 휴식 |
|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지역 거주지역 부모님 동거여부 가구원수/관계 주거형태 부모님 최종학력 부모님 직업 부모님 소득 |

3. 표본설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고교 졸업자 중 고교졸업 후 취업여부, 취업 관련 교육과 내용, 직장의 일자리 상황, 구직활동, 학교생활 등 학교 교육과 취업, 노동 및 고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므로 대학 진학자 및 재수로 인한 일시적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범위

에 포함되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는 고교졸업 시점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였거나 졸업시점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였으나 차년도에 진학의사가 있는 일시적 미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이 되는 미진학 고졸자를 대상으로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표본설계과정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 의사가 없는 취업진로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 규모는 사후에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표본설계 시점에서는 대안적인 모집단 자료로 수능미응자 자료를 이용해 표본설계하였으며, 실사과정에서 미진학자 명부를 표본학교별로 확보하여 학교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마스터표본을 구성하기 위한 예비조사 와 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가중치는 2011년 4월 졸업 후 진로 현황 자료로 조사모집단 규모를 추정한 후, 추정 모집단 규모를 근거로 계산된 설계가중치, 단위 무응답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1차 표본인 마스터표본을 기준으로 무응답 표본과 대체표본과의 성별 분포를 조정하기 위한 대체표본의 성별 구조를 조정하는 무응답 보정 가중치 지역별, 학교급별, 계열별 및 성별 분포에 대한 벤치마킹 가중치 등의 사후가중치를 검토해 반영하기로 하였다.

1) 모집단 규모의 추정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표본설계 시점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 시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대학 진학, 취업, 군입대 등의 계획은 알 수 있으나 무직이나 미상인 학생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졸업하는 시점에서 미진학 여부가 결정되므로 설계 시점에서는 정확한 조사모집단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사 설계 시점에서는 수능 미지원자수를 조사모집단 규모 추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고등학교별로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조사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고교별로 졸업 후 상황에 대해 매년 4월에 보고하여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졸업 상황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미진학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모집단 규모는 설계 시점에서 사용한 규모와 차이가 있으므로 추정 시에는 2011년 4월에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모집단 규모를 추정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모집단은 미진학자이므로 일반계고는 취업, 미상, 무직, 군입대자들이 목표 모집단이 되며 조사모집단으로는 취업, 미상 및 무직의 20%정도만을 반영하여 조사모집단 규모를 추산하였다. 여기서 일반계고의 무직은 재수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계고 진학률인 80%정도가 재수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특성화(전문계)고도 취업, 미상, 무직, 군입대자들이 목표 모집단이 되며 조사모집단으로는 취업, 미상 및 무직인 졸업자로 조사모집단 규모를 추산하였다. 그 결과, 일반계고는 조사모집단이 58,495명, 특성화(전문계)고는 54,050명으로 추산하여 전체 조사모집단 규모를 112,545명으로 추정하였다.

2) 표본설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2단계로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는 마스터 표본을 구축하는 예비조사이며, 2단계는 최종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본조사이다. 1단계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추정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설계를 하게 되고, 2단계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마스터표본을 모집단으로 표본설계하게 된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표본설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표본추출법은 층화이중추출법(Stratified Double sampling)이 된다. 이중추출법을 사용한 이유는 표본설계 시점에서 조사대상자의 명부를 확보할 수 없었고, 또한 고교 졸업 후 진학, 취업 등의 학생 졸업 후 진로현황을 파악한 후, 재수, 군입대를 제외한 취업 및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취업진로조사의 조사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설계하게 된 것이다. 1차 추출은 마스터표본을 구성하기 위한 예비조사이고, 2차 추출은 최종표본을 구성하는 본조사의 추출 과정이다.

둘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의 층화 지표는 학교급(2), 지역(16),

고교계열(6)이며, 학생들의 성별은 층화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표본추출 과정에서 성별로 정렬해 내재적 층화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 학교급(2) : 일반계고, 전문계(특성화)고
- 지역(16) : 서울, 부산, 대구 등 16개 광역시도
- 고교계열(6) :
 - 일반계고 : 일반
 - 전문계(특성화)고 : 공업, 상업, 실업, 종합, 기타(가사, 농업, 수산, 해양)

- 내재적 층화(2) : 성별(남자, 여자)

셋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의 표본추출단위는 학교, 학생들을 표본추출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추출단계별로 추출단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본추출단위
 - 1차(마스터표본) 조사
 - 1차 추출단위 : 학교
 - 2차 추출단위 : 학생
 - 2차(최종표본) 조사
 - 추출단위 : 학생

넷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의 목표 표본크기는 추출단계별로 상이하게 결정하였다. 목표 표본크기는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 예산과 조사 기간, 층별 목표 상대표준오차 등을 고려해 목표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 1차 마스터표본의 목표 표본크기 결정: 마스터표본을 구성하는 1차 추출설계에서는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10,000명을 목표 표본크기로 선정하였다

- 2차 최종표본의 목표 표본크기 결정 : 마스터표본의 층별 표본 크기 및 조사결과(취업률)의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해 학교급별로 목표표본크기를 선정하였는데, 일반계고 700명, 전문계고 5,000명으로 결정하였다.

○ 일반계고 : 전국 기준 취업률의 목표 상대표준오차가 6.0%p 이내 및 마스터 표본크기의 70% 수준이 유지되도록 목표 표본크

기를 결정하였고,

- 전문계고 : 취업률의 목표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1.5%p, 지역 5.0%p 및 계열 4.0%p가 유지되도록 목표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다섯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의 층별 표본배분은 추출단계별로 모집단 정보 및 부모집단 크기를 고려해 배분하였다

- 1차 마스터표본 :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층(학교급, 지역 및 계열의 조합)별 부모집단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설계 시점에서 모집단으로 사용한 수능미지원자의 규모를 이용해 층별 비례배분 및 제공근 배분으로 배분한 후 절충하는 절충배분으로 표본을 배분하였고,

- 2차 최종표본 : 최종 표본은 층별로 확보된 마스터표본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 일반계고 : 지역별로 비례배분으로 배분하였고,

- 전문계고 : 층(지역 및 고교계열)별로 제공근 배분으로 배분하고, 층별 모집단 규모와 마스터표본으로 확보된 1차 표본크기를 고려해 일부 층에서는 표본크기를 조정하여 층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 ① 계열별로 제공근 배분 후, 지역별로 다시 제공근 배분하여 층별로 표본을 배분하였고,

- ② 층별 배분된 표본크기와 마스터표본의 크기를 비교해 목표 표본크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계열내 다른 지역으로 표본크기를 1차 조정하였으며,

- ③ 1차 조정 후에도 동일 계열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목표 표본크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일 지역의 다른 계열로 표본크기를 2차 조정하여 층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여섯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의 표본추출틀은 학교명부는 교육개발원에 보고된 졸업 후 상황보고의 학교 명부를 이용하였고 학생들의 명부는 표본학교마다 미진학 예상 고졸자 명부를 학교의 협조를 통해 확보해 표본학교마다 조사대상 명부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표본학교에서의 조사대상 명부는 학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일곱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의 층별 표본은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계통추출을 위해서 표본은 학교는 부모집단 크기순으로 정렬하였고, 표본학교 및 층내에서 표본

학생은 성별 및 이름순으로 정렬하도록 하였다.

- 1차 마스터표본 : 마스터표본은 1차 추출단위가 학교, 2차 추출단위가 학생인 2단계 추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차 추출을 위해 학교는 층내에서 추정된 조사모집단의 크기순으로 정렬하였고, 2차 추출을 위해서는 표본학교내에서 성별 및 이름순으로 정렬하였다.

○ 1차 추출단위(학교) : 계통 추출

○ 2차 추출단위(학생) : 계통 추출

① 표본학교별로 졸업 후 미진학자 명단을 파악하여

② 표본학교별 졸업 후 미진학자 명단을 남녀별 및 이름순으로 정렬하여 계통

추출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일반계고의 경우 학교에서의 미협조로 인해 실제 미진학자 명단 파악이 어려웠고, 조사 참여 거부자가 많아 예비표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전체 명부를 이용하게 되어 계통추출이 무의미하였다.

- 2차 최종표본

○ 추출단위(학생) : 계통추출(일부 층은 단순확률추출)

① 일반계고 : 지역별로 성별 및 이름순으로 정렬하여 계통 추출하였고,

② 전문계고 : 층마다 성별 및 이름순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하였다.

여덟째,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최종 표본 크기 규모는 1차 마스터표본은 일반계고 1,035명, 전문계고 9,715명으로 모두 10,750명이고, 2차 최종표본은 일반계고 714명, 전문계고 5,281명으로 5,995명이다. 일반계고의 표본이 작은 이유는 학생들의 졸업 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마스터표본의 규모가 작았으며, 또한 1차 조사에서 확보된 일반계고 학생의 조사 참여 거부 등으로 일반계고 학생의 목표 표본크기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 확보를 위해 전문계고 표본으로 전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전문계고 표본 크기가 목표 표본크기보다 크게 조사되었다. 그 결과, 일반계고는 모집단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집계하여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계고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 및 벤치마킹 가중치 등을 부여해 모수를 추정

하기로 하였다.

3) 본조사의 표본설계

본 조사는 졸업 후 2-3개월이 지난 5월 - 7월 사이에 마스터표본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재상으로 진행되는 조사이다 즉, 1차 조사로 수행한 마스터표본의 조사대상 명부를 모집단으로 사용해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고교 졸업 후 미진학자의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졸업 전 조사대상 명부를 미리 확보하면서 동시에 본 조사를 소개하고 본 조사의 참여 협조를 미리 요청하기 위해 마스터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조사이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마스터표본(1차표본)을 추출틀로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므로 마스터표본의 크기 및 층별 현황이 본조사의 표본 크기 결정 및 추출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본조사의 표본설계는 조사모집단의 관점에서 목표표본크기를 결정한 후 마스터표본의 확보된 표본크기를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으로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의 본 조사는 모집단으로부터 목표 표본크기를 결정하지만 추출틀로는 1차 조사를 통해 확보한 마스터표본을 사용한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5,000명이다. 하지만 1차 조사 과정에서 일반계고의 표본 확보가 어려워 마스터 표본의 규모가 적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미진학 고졸자 중 취업 진로 대상이 되는 전문계고를 주된 대상으로 표본 설계를 하며, 일반계고는 마스터 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설정하였다.

4) 표본조사 현황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2단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는 1차 조사로 마스터표본을 구축하는 예비조사이며, 2단계는 본 조사로 최종 표본을 추출해 자료를 수집하는 본 조사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마스터표본을 구축하고, 2단계 조사에서는 본 조사를 수행한다.

〈표 1-2〉 마스터표본의 표본조사 현황

| 지역 | 일반계고 | | 전문계고 | | | | | |
|----|------|-------|------|-------|-----|-------|-----|-----|
| | 일반 | | 공업 | | 상업 | | 실업 | |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서울 | 73 | 286 | 13 | 370 | 12 | 477 | 3 | 78 |
| 부산 | 5 | 6 | 11 | 437 | 10 | 285 | | |
| 대구 | 17 | 28 | 9 | 408 | 5 | 269 | | |
| 인천 | 21 | 52 | 12 | 438 | 5 | 291 | 2 | 49 |
| 광주 | 6 | 33 | 5 | 234 | 3 | 98 | 3 | 41 |
| 대전 | 8 | 20 | 7 | 185 | 4 | 212 | | |
| 울산 | 3 | 6 | 2 | 74 | 4 | 131 | 1 | 18 |
| 경기 | 65 | 319 | 16 | 598 | 11 | 476 | | |
| 강원 | 7 | 11 | 5 | 166 | 3 | 48 | 6 | 134 |
| 충북 | 13 | 49 | 8 | 241 | 5 | 135 | 1 | 9 |
| 충남 | 17 | 80 | 5 | 89 | 8 | 361 | 4 | 76 |
| 전북 | 1 | 1 | 6 | 117 | 3 | 106 | 3 | 41 |
| 전남 | 3 | 14 | 8 | 247 | 4 | 98 | 11 | 221 |
| 경북 | 21 | 65 | 11 | 317 | 9 | 251 | 3 | 36 |
| 경남 | 27 | 63 | 9 | 300 | 6 | 141 | 4 | 35 |
| 제주 | 2 | 2 | 1 | 53 | 2 | 13 | | |
| 전국 | 289 | 1,035 | 128 | 4,274 | 94 | 3,392 | 41 | 738 |

| 지역 | 전문계고 | | | | | | 마스터표본 | |
|----|------|-----|-----|-----|-----|-------|-------|--------|
| | 종합 | | 기타 | | 소계 | | 전체 | |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서울 | 1 | 8 | | | 29 | 933 | 102 | 1,219 |
| 부산 | 4 | 48 | 1 | 8 | 26 | 778 | 31 | 784 |
| 대구 | | | 2 | 33 | 16 | 710 | 33 | 738 |
| 인천 | | | 1 | 34 | 20 | 812 | 41 | 864 |
| 광주 | | | 1 | 19 | 12 | 392 | 18 | 425 |
| 대전 | | | 1 | 49 | 12 | 446 | 20 | 466 |
| 울산 | | | 2 | 42 | 9 | 265 | 12 | 271 |
| 경기 | 16 | 276 | 4 | 36 | 47 | 1,386 | 112 | 1,705 |
| 강원 | 7 | 41 | 1 | 15 | 22 | 404 | 29 | 415 |
| 충북 | 1 | 1 | 4 | 93 | 19 | 479 | 32 | 528 |
| 충남 | 1 | 17 | 3 | 75 | 21 | 618 | 38 | 698 |
| 전북 | 7 | 69 | 2 | 27 | 21 | 360 | 22 | 361 |
| 전남 | 10 | 81 | 2 | 15 | 35 | 662 | 38 | 676 |
| 경북 | 10 | 107 | 4 | 54 | 37 | 765 | 58 | 830 |
| 경남 | 9 | 83 | 2 | 17 | 30 | 576 | 57 | 639 |
| 제주 | 4 | 39 | 3 | 24 | 10 | 129 | 12 | 131 |
| 전국 | 70 | 770 | 33 | 541 | 366 | 9,715 | 655 | 10,750 |

〈표 1-3〉 최종표본의 표본조사 현황

| 지역 | 일반계고 | | 전문계고 | | | | | |
|----|------|-----|------|-------|-----|-------|-----|-----|
| | 일반 | | 공업 | | 상업 | | 실업 | |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서울 | 65 | 182 | 13 | 209 | 11 | 254 | 3 | 45 |
| 부산 | 4 | 4 | 11 | 262 | 10 | 163 | | |
| 대구 | 16 | 25 | 9 | 198 | 5 | 133 | | |
| 인천 | 19 | 40 | 12 | 181 | 5 | 92 | 2 | 22 |
| 광주 | 4 | 23 | 5 | 169 | 3 | 67 | 3 | 24 |
| 대전 | 7 | 15 | 7 | 119 | 4 | 91 | | |
| 울산 | 3 | 4 | 2 | 44 | 4 | 95 | 1 | 14 |
| 경기 | 55 | 196 | 16 | 298 | 11 | 212 | | |
| 강원 | 3 | 5 | 5 | 104 | 2 | 14 | 5 | 68 |
| 충북 | 10 | 36 | 8 | 134 | 5 | 91 | 1 | 6 |
| 충남 | 15 | 63 | 5 | 56 | 8 | 162 | 4 | 49 |
| 전북 | 1 | 1 | 6 | 89 | 3 | 64 | 3 | 27 |
| 전남 | 3 | 13 | 8 | 150 | 3 | 57 | 11 | 128 |
| 경북 | 21 | 55 | 11 | 178 | 8 | 95 | 3 | 20 |
| 경남 | 26 | 50 | 9 | 200 | 6 | 69 | 4 | 20 |
| 제주 | 2 | 2 | 1 | 40 | 2 | 11 | | |
| 전국 | 254 | 714 | 128 | 2,431 | 90 | 1,670 | 40 | 423 |

| 지역 | 전문계고 | | | | | | 최종 표본 | |
|----|------|-----|-----|-----|-----|-------|-------|-------|
| | 종합 | | 기타 | | 소계 | | 전체 | |
|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학교수 | 학생수 |
| 서울 | 1 | 6 | | | 28 | 514 | 93 | 696 |
| 부산 | 4 | 23 | 1 | 5 | 26 | 453 | 30 | 457 |
| 대구 | | | 2 | 14 | 16 | 345 | 32 | 370 |
| 인천 | | | 1 | 23 | 20 | 318 | 39 | 358 |
| 광주 | | | 1 | 12 | 12 | 272 | 16 | 295 |
| 대전 | | | 1 | 36 | 12 | 246 | 19 | 261 |
| 울산 | | | 2 | 28 | 9 | 181 | 12 | 185 |
| 경기 | 15 | 104 | 4 | 18 | 46 | 632 | 101 | 828 |
| 강원 | 4 | 21 | 1 | 7 | 17 | 214 | 20 | 219 |
| 충북 | 1 | 1 | 4 | 65 | 19 | 297 | 29 | 333 |
| 충남 | 1 | 10 | 3 | 63 | 21 | 340 | 36 | 403 |
| 전북 | 7 | 47 | 2 | 20 | 21 | 247 | 22 | 248 |
| 전남 | 10 | 53 | 2 | 10 | 34 | 398 | 37 | 411 |
| 경북 | 9 | 47 | 4 | 39 | 35 | 379 | 56 | 434 |
| 경남 | 8 | 40 | 2 | 14 | 29 | 343 | 55 | 393 |
| 제주 | 4 | 33 | 3 | 18 | 10 | 102 | 12 | 104 |
| 전국 | 64 | 385 | 33 | 372 | 355 | 5,281 | 609 | 5,995 |

4. 가중치 산출

표본조사에서 가중치는 표본의 불균등 확률을 보정하고 무응답을 보정하며, 모집단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복합표본설계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2단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는 1차 조사로 마스터표본을 구축하는 1차 조사에서는 2단 층화 계통추출법을, 2단계는 본 조사로 최종표본을 층화 단순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마스터표본 구축을 위한 1차 조사와 본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비 등에 대한 층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성별 및 이름순으로 정렬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목표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위해 단위 무응답은 예비표본으로 교체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표본단위는 1차 조사에서 학교별, 표본학교내에서의 추출확률 등이 상이하며, 본 조사에서도 층별로 상이한 추출확률로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는 이중추출 및 층별 층화계통추출법을 사용하는 복합표본설계이므로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해야만 한다.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조사모집단의 포함범위, 예비표본의 포함률, 예비표본으로부터 최종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추출틀의 가중치등의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가중치가 고려하며, 필요 시 사후층화 가중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 모집단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에 2011년 4월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보고되는 졸업 후 졸업 상황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모집단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해야만 한다. 조사 모집단 규모 추정 시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의 지역별 및 계열별 조사모집단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성별 미진학자의 규모를 파악하여 사후층화조정 가중치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지역별 및 계열별 표본추출을 위해 학교를 모집단 규모 크기를 고려한 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으나 설계 시점에서 정확한 모집단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고, 또한 표본학교의 조사 참여 거절 등의 비

협조로 인해 조사 가능한 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하였기에 단순계통추출법 혹은 단순확률추출법으로 학교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일반계고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수를 추정하지 않기로 논의하였으며 따라서 가중치는 전문계고 표본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산출하기로 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할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W_{hk} , W_{hki} : h 계열, k 지역 (i 번째 학교) 표본의 가중치
- M_{hk} , M_{hki} : h 계열, k 지역 (i 번째 학교)의 모집단 학생수
- N_{hk} : h 계열, k 지역의 모집단 학교수
- m_{hk} , m_{hki} : h 계열, k 지역 (i 번째 학교)의 마스터표본 학생수
- n_{hk} : h 계열, k 지역의 마스터표본 학교수
- m'_{hk} : h 계열, k 지역의 최종표본 학생수

1) 설계 가중치

본 조사의 최종 표본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1차 조사의 마스터표본 가중치와 2차 조사의 본 조사 가중치를 이용해 설계 가중치를 계산한다.

본조사의 설계 가중치는 층별 단순 설계 가중치를 계산해 최종 표본의 설계 가중치는 마스터표본 가중치 및 본 조사 설계 가중치를 곱해 설계 가중치를 산정하게 된다.

- 1차 조사인 마스터표본의 설계 가중치

1차 조사의 마스터표본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2단계 추출로 이루어지므로 1차 추출단위인 학교추출률과 2차 추출단위인 표본학교 내에서의 학생추출률을 이용한 학교가중치 및 표본학교에서의 학생가중치를 곱해 1차 설계 가중치를 계산한다. 1차 조사의 마스터표본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W_{hki}^1 = \frac{N_{hk}}{n_{hk}} \frac{M_{hki}}{m_{hki}}$$

- 2차 조사인 최종 표본의 설계 가중치

2차 조사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마스터표본에서 최종 표본을 추출하므로 마스터 표본에서의 층별 학생 추출률을 이용해 2차 설계 가중치를 계산한다. 2차 조사의 최종표본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W_{hk}^2 = \frac{m_{hk}}{m'_{hk}}$$

- 최종 표본의 설계 가중치에 대한 모집단 규모 조정 계수

최종 표본의 설계 가중치는 1차 설계 가중치와 2차 설계 가중치를 곱해 계산하므로 1차 설계 가중치와 2차 설계 가중치를 이용해 층별로 조사모집단 규모를 추정된 결과와 조사모집단 규모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정계수를 최종 설계 가중치에 반영해야 조사모집단과 일치된 결과를 산출하게 되므로 조사모집단 규모를 조정하는 조정계수를 최종 설계 가중치에 반영하도록 계산한다.

모집단 규모를 조정하는 조정계수는 가중합으로 계산된 모집단 규모와 실제 모집단과의 규모를 조정해 주는 고정계수이지만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는 설계 시점의 모집단 규모와 졸업 후 조사모집단 규모의 커버리지를 보정하는 일종의 사후 가중치로서의 의미를 지닌 가중치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계수이다.

$$W_{hk(adj)}^S = \frac{M_{hk}}{\widehat{M}_{hk}}$$

$$\text{여기서 } \widehat{M}_{hk} = W_{hki}^1 W_{hk}^2 = \left(\frac{N_{hk}}{n_{hk}} \frac{M_{hki}}{m_{hki}} \right) \left(\frac{m_{hk}}{m'_{hk}} \right)$$

- 최종 표본에 대한 최종 설계 가중치

최종 표본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1차 설계 가중치, 2차 설계 가중치 및 조정계수를 곱해 최종 설계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W_{hki}^F = W_{hki}^1 W_{hk}^2 W_{hk(adj)}^S$$

2) 단위무응답 보정을 위한 대체 및 추가 표본의 편향 보정 가중치

본 조사에서는 단위 무응답 표본이 발생하면 마스터표본의 예비표본으로 대체하게 된다. 무응답 표본을 대체하는 교체표본이 무응답 표본과 동일한 속성을 같으면 무응답으로 인한 교체 표본이 편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본 조사에서도 단위 무응답 표본에 대해 동일 계열 동일 지역 및 같은 성별 내에서 표본교체가 이루어지면 단위무응답 표본의 구조와 대체표본의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층별로 마스터표본의 예비표본이 부족한 경우 다른 계열 다른 지역 및 다른 성별로 표본이 교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는 단위 무응답을 보정하고 교체표본의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응답 원표본과 교체 표본과의 성별 분포를 이용해 대체로 인한 무응답 편향을 보정하는 가중치가 필요하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원표본을 대체하고 목표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된 표본(무응답 표본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복수의 표본으로 대체하여 발생)의 영향도 존재하므로 원표본을 제외한 교체표본과 추가 표본이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종표본에서 무응답을 대체한 교체표본 및 추가표본과 원표본과의 모집단 구조 차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 무응답 원표본과 대체 및 추가 표본의 성별 분포를 비교해 성별 분포를 조정해 무응답 편향을 보정하는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무응답 편향을 보정하는 가중치는 지역별 성별 분포만을 고려하였다.

- 단위무응답표본과 대체 및 추가 표본의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응답 보정 가중치

$$W_M = \frac{p_{mkj}}{p_{skj}}$$

여기서 m: 무응답, s:대체 및 추가 표본, k: 지역, j: 성별을 의미

- 무응답 편향을 보정한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표본의 가중치

$$W_{hki}^{MF} = W_{hki}^1 W_{hk}^2 W_{hk(adj)}^S W_M$$

또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최종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에 적절한 사후층화 가중치를 찾기 위해 모집단 성별 분포 조정을 위한 벤치마킹 가중치로 고용보험DB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검토하였지만 두 자료 모두 모집단의 커버리지가 너무 낮아 적절한 사후층화 가중치로 사용할 수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사후층화 가중치나 벤치마킹 가중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벤치마킹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조사는 설계 시점의 가중치와 실제 모집단과 모집단 규모의 차이를 졸업 후 졸업 상황자료를 이용해 반영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사후 가중치는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중치 합으로 계산한 설계 시점의 모집단 규모와 졸업 후 추정된 조사모집단 규모와의 커버리지를 보정하기 위한 조정계수는 일종의 사후 가중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절단 가중치 : 이상 가중치의 조정

일반적으로 최종 가중치를 부여한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갖는 이상 가중치는 가중치의 절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갖는 표본단위는 모수 추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상 가중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중치의 분포를 이용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인 설계 가중치, 무응답표본을 대체한 대체 및 추가표본의 편향을 감소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 가중치, 가중치 합으로 계산된 조사모집단 규모와 실제 모집단 규모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최종 표본에 대한 최종 가중치를 확정하기 이전에 지역별 성별, 계열별 가중치의 분포를 검토한 결과, 일부 표본단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단위의 가중치 분포를 이용해 개별 가중치를 검토하여 평균 가중치 10을 기준으로 4~5배 이상 되는 가중치

를 기준으로 비교적 큰 가중치를 갖는 표본단위를 살펴보면

- 가중치 40 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표본이 106명이었고,
- 가중치 50 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표본이 49명이었고,
- 가중치 45 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표본이 71명이었다.

너무 많은 표본에 대해 가중치를 조정하면 가중치 절단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개별 가중치에 대해 45 이상을 기준으로 절단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큰 가중치는 적절한 상한으로 조정하여 가중치를 절단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최종 가중치가 45이상인 경우는 상한 가중치를 45로 조정하여 절단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적절한 크기의 상한으로 절단하면 절단으로 인해 가중치가 부족해 지므로 부족한 가중치는 모든 표본단위로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절단된 가중치로 인해 부족해진 가중치는 모든 표본단위로 균등하게 배분하므로 여기서는 절단 후 가중치 합과 조사모집단 규모를 비교해 부족한 가중치를 모든 표본으로 배분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부족한 가중치를 배분하기로 하였다. 즉, 45 이상 가중치를 갖는 표본의 가중치를 45로 조정한 후, 절단된 가중치로 인해 부족한 가중치는 지역별 및 계열별로 절단한 가중치 합을 구하여 해당 층별로 조사모집단 규모와 비교해 그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절단된 가중치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가중치를 재배분하여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따라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 가중치가 45보다 큰 가중치는 가중치 상한인 45로 절단하여 상한 가중치 45를 부여한 후, 절단 후 지역 및 계열별 가중치 합과 실제 모집단(졸업 후 추정된 조사모집단) 규모와의 비율을 계산해 조정하는 조정계수를 구해 절단으로 인해 부족해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상 가중치를 조정하여 최종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상 가중치를 절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족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절단 가중치 보정 가중치와 절단 가중치를 보정한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상한 가중치를 45로 절단한 후 절단 가중치에 대한 보정 가중치

$$W_{hk(C)}^S = \frac{M_{hk}}{\widehat{M_{hkC}}}$$

여기서, $\widehat{M_{hkT}}$ 는 상한 가중치를 45로 절단해 조정한 후 절단된 가중치를 이용해 추정된 h 계열, k 지역의 가중치 합(조사모집단 규모)을 의미

- 절단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표본의 가중치

$$\begin{aligned} W_{hki} &= W_{hki}^{FM} W_{hk(T)}^S \\ &= W_{hki}^1 W_{hk}^2 W_{hk(adj)}^S W_M W_{hk(T)}^S \end{aligned}$$

4) 최종 가중치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최종 가중치는 기본적인 설계 가중치, 가중치 합으로 계산된 조사모집단 규모와 실제 모집단 규모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계수, 무응답표본을 대체한 대체 및 추가표본의 편향을 감소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 가중치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절단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최종 가중치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45로 절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절단 가중치를 조정하여 최종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최종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W_{hki} &= W_{hki}^{FM} W_{hk(C)}^S \\ &= W_{hki}^1 W_{hk}^2 W_{hk(adj)}^S W_M W_{hk(C)}^S \end{aligned}$$

(1) 조사모집단 규모의 추정 결과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최종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전문계고에 대해 지역별 계열별 및 성별로 추정된 모집단 규모를 <표 I-4>에 제시하였다. 최종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 계열별 규모는 졸업 후 실제 조사모집단으로 추정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실제 모집단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층별 성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표 1-4〉 최종 가중치로부터 추정된 조사모집단 규모

| 지역 | 공업 | | | 상업 | | | 실업 | | |
|----|--------|-------|--------|-------|--------|--------|-------|-------|-------|
|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 서울 | 3,730 | 465 | 4,195 | 272 | 3,288 | 3,560 | | 526 | 526 |
| 부산 | 1,650 | 195 | 1,845 | 499 | 1,059 | 1,558 | | | |
| 대구 | 1,323 | 82 | 1,405 | | 1,009 | 1,009 | | | |
| 인천 | 1,476 | 436 | 1,912 | 15 | 1,263 | 1,278 | 78 | 253 | 331 |
| 광주 | 646 | 188 | 834 | 104 | 427 | 531 | 168 | 197 | 365 |
| 대전 | 817 | 57 | 874 | | 657 | 657 | | | |
| 울산 | 247 | 145 | 392 | 142 | 172 | 314 | | 57 | 57 |
| 경기 | 2,868 | 776 | 3,644 | 1,342 | 3,546 | 4,888 | | | |
| 강원 | 326 | 22 | 348 | 4 | 119 | 123 | 403 | 217 | 620 |
| 충북 | 810 | 258 | 1,068 | 146 | 678 | 824 | 23 | 5 | 28 |
| 충남 | 694 | 64 | 758 | 265 | 722 | 987 | 159 | 57 | 216 |
| 전북 | 758 | 108 | 866 | 93 | 837 | 930 | 156 | 32 | 188 |
| 전남 | 756 | 141 | 897 | 89 | 358 | 447 | 419 | 546 | 965 |
| 경북 | 1,254 | 392 | 1,646 | 166 | 702 | 868 | 117 | 21 | 138 |
| 경남 | 1,024 | 150 | 1,174 | 117 | 499 | 616 | 53 | 67 | 120 |
| 제주 | 55 | 14 | 69 | 61 | 57 | 118 | | | |
| 전국 | 18,434 | 3,493 | 21,927 | 3,315 | 15,393 | 18,708 | 1,576 | 1,978 | 3,554 |

| 지역 | 종합 | | | 기타 | | | 특성화고 | | |
|----|-------|-------|-------|-------|-------|-------|--------|--------|--------|
|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소계 |
| 서울 | | 179 | 179 | | | | 4,002 | 4,458 | 8,460 |
| 부산 | 55 | 180 | 235 | 92 | 138 | 230 | 2,296 | 1,572 | 3,868 |
| 대구 | | | | 48 | 100 | 148 | 1,371 | 1,191 | 2,562 |
| 인천 | | | | 285 | | 285 | 1,854 | 1,952 | 3,806 |
| 광주 | | | | 16 | 36 | 52 | 934 | 848 | 1,782 |
| 대전 | | | | 74 | 48 | 122 | 891 | 762 | 1,653 |
| 울산 | | | | 51 | 69 | 120 | 440 | 443 | 883 |
| 경기 | 1,785 | 1,655 | 3,440 | 172 | 211 | 383 | 6,167 | 6,188 | 12,355 |
| 강원 | | 679 | 679 | 12 | 29 | 41 | 745 | 1,066 | 1,811 |
| 충북 | | 31 | 31 | 113 | 134 | 247 | 1,092 | 1,106 | 2,198 |
| 충남 | | 129 | 129 | 240 | 143 | 383 | 1,358 | 1,115 | 2,473 |
| 전북 | 220 | 474 | 694 | 106 | 43 | 149 | 1,333 | 1,494 | 2,827 |
| 전남 | 265 | 150 | 415 | 155 | 27 | 182 | 1,684 | 1,222 | 2,906 |
| 경북 | 145 | 422 | 567 | 152 | 50 | 202 | 1,834 | 1,587 | 3,421 |
| 경남 | 365 | 233 | 598 | 65 | 9 | 74 | 1,624 | 958 | 2,582 |
| 제주 | 97 | 59 | 156 | 79 | 37 | 116 | 292 | 167 | 459 |
| 전국 | 2,932 | 4,191 | 7,123 | 1,660 | 1,074 | 2,734 | 27,917 | 26,129 | 54,046 |

전문계고의 경우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모집단에서 남자가 51.7%, 여자는 48.3%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고용보험DB의 2011년 졸업자의 전체 성별 분포(남자 52.6%, 여자 47.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의 2011년 전문계고 고졸자의 성별 분포(남자 53.3%, 여자 46.7%)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최종 가중치의 분포 요약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최종 가중치에 대한 지역별, 계열별, 성별 가중치의 평균, 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을 살펴보면, 일부 층(경기, 강원,의 종합계열)에서 60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나머지 지역, 계열 및 성별의 가중치는 전반적으로 절단 전보다 가중치가 매우 안정되었다.

따라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최종 가중치는 기본적인 설계 가중치, 가중합으로 계산된 조사모집단 규모와 실제 모집단 규모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계수, 무응답표본을 대체한 대체 및 추가표본의 편향을 감소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 가중치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절단한 가중치를 반영한 최종 가중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제2장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주요결과

1. 2011년 고졸자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본 장에서는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2011HSGOMS)의 조사내용 중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조사결과의 일부만을 포함하며 각 절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고졸자의 경제활동상태와 현재일자리 일자리 경험에 관한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표 II-1〉 2011년 권역별 전문계고 졸업 후 진로현황

(단위 : 개수, 명)

| 권역별 | 전문 계고 | | | | | | |
|-----|-------|---------|--------|--------|-------|--------|-------|
| | 학교수 | 졸업생수 | 진학 | 취업 | 입대 | 무직 | 미상 |
| 수도권 | 225 | 64,029 | 38,972 | 14,689 | 435 | 6,597 | 3,336 |
| 중부권 | 123 | 23,693 | 15,261 | 5,643 | 298 | 1,503 | 988 |
| 호남권 | 144 | 23,164 | 14,907 | 5,460 | 278 | 1,414 | 1,105 |
| 대구권 | 90 | 17,454 | 11,377 | 4,465 | 94 | 929 | 589 |
| 부산권 | 107 | 24,627 | 17,085 | 5,433 | 210 | 931 | 968 |
| 전국 | 689 | 152,967 | 97,602 | 35,690 | 1,315 | 11,374 | 6,986 |

주) 2011년 4월 기준으로 보고된 고교별 잠정치(한국교육개발원)

1) 경제활동상태

2011년 고등학교 졸업자 중 전문계고 졸업자수는 총 152,967명이고 이중 전문계고의 미진학 졸업자(2011년 고졸자)는 54,044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조사기준기간(2011년 4월 24일 ~ 4월 30일)에 41,023명(75.9%)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문계고 전체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26.8%임), 실업자 비율은 9.5%,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4.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 고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 구 분 | | 경제활동인구 | | | | 비경제활동 인구 | | 전체 | |
|-------------------|------------------|-------------------|------|-------|------|-------------|------|--------|-------|
| | | 취업자 ²⁾ | | 실업자 | | | | | |
| 전체 | | 41,023 | 75.9 | 5,130 | 9.5 | 7,892 | 14.6 | 54,044 | 100.0 |
| 성별 | 남자 | 19,587 | 70.2 | 3,106 | 11.1 | 5,223 | 18.7 | 27,916 | 51.7 |
| | 여자 | 21,435 | 82.0 | 2,024 | 7.7 | 2,669 | 10.2 | 26,129 | 48.3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1,782 | 81.6 | 2,112 | 7.9 | 2,799 | 10.5 | 26,693 | 49.4 |
| | 공업 | 16,273 | 71.7 | 2,222 | 9.8 | 4,207 | 18.5 | 22,702 | 42.0 |
| | 기타 ³⁾ | 2,968 | 63.8 | 796 | 17.1 | 885 | 19.0 | 4,649 | 8.6 |
| 권역별 ⁴⁾ | 수도권 | 19,055 | 77.4 | 2,450 | 10.0 | 3,116 | 12.7 | 24,621 | 45.6 |
| | 중부권 | 5,990 | 73.7 | 817 | 10.0 | 1,325 | 16.3 | 8,133 | 15.0 |
| | 호남권 | 5,520 | 69.2 | 795 | 10.0 | 1,662 | 20.8 | 7,976 | 14.8 |
| | 대구권 | 4,707 | 78.7 | 496 | 8.3 | 779 | 13.0 | 5,982 | 11.1 |
| | 부산권 | 5,751 | 78.4 | 571 | 7.8 | 1,010 | 13.8 | 7,332 | 13.6 |

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82.0%)이 남성(70.2%)보다 약 11.8%p 가량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실업자 비율은 7.7%,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 졸업자들의 취업자 비율(81.6%)이 가장 높았으며, 공업계열(71.7%), 기타계열(63.8%)로 나타났다.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취업자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

2) 지난 1주간(2011년 4월 24일~ 4월 30일)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으로 일을 하거나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가구의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

3) 기타계열은 종합, 실업, 기타계열을 포함함

4) 권역별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남,충북,강원),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구권(대구,경북), 부산권(부산,울산,경남)으로 구분함

다. 다만, 호남권의 취업자 비율이 69.2%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8%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현재 일자리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고졸자 41,023명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대부분(99.4%)이 임금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여성은 99.7%, 남성은 99.1%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공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업계열(99.8%), 상업계열(99.4%)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기타계열은 97.5%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권이 99.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3〉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 명, %)

| 구 분 |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전 체 |
|-------|-----|---------------|-----------|----------------|
| 전 체 | | 40,778 (99.4) | 245 (0.6) | 41,023 [100.0] |
| 성 별 | 남 성 | 19,404 (99.1) | 183 (0.9) | 19,587 [47.7] |
| | 여 성 | 21,374 (99.7) | 62 (0.3) | 21,435 [52.3] |
| 전공유형별 | 상업 | 21,651 (99.4) | 131 (0.6) | 21,782 [53.1] |
| | 공업 | 16,235 (99.8) | 38 (0.2) | 16,273 [39.7] |
| | 기타 | 2,892 (97.5) | 76 (2.5) | 2,968 [7.2] |
| 권역별 | 수도권 | 18,926 (99.3) | 129 (0.7) | 19,055 [46.5] |
| | 중부권 | 5,947 (99.3) | 43 (0.7) | 5,990 [14.6] |
| | 호남권 | 5,486 (99.4) | 33 (0.6) | 5,520 [13.5] |
| | 대구권 | 4,680 (99.4) | 27 (0.6) | 4,707 [11.5] |
| | 부산권 | 5,738 (99.8) | 13 (0.2) | 5,751 [14.0] |

주 : []는 전체 고졸자 중 세로비율임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의 경우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용직이 전체 취업자의 64.7%이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각각 32.8%,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각각 99.1%와 99.7%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76.5%)이 남성(51.6%)보다 상용직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반면 임시직의 비율은 남성(44.7%)이 여성(22.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업(99.8%), 상업(99.4%), 기타(97.5%)의 순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업계열의 상용직 비율(70.6%)이 다른 계열의 상용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계열 고졸자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2.5%로 다른 전공유형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이 99.3%~99.8%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권의 상용직 비율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의 상용직 비율이 6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경우 임시직(37.5%)의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Ⅱ-4〉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 | | 임금근로자 | | | | 비임금근로자 | |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전체 | | 40,778 (100.0) | 26,367 (64.7) | 13,374 (32.8) | 1,037 (2.5) | 245 (100.0) | 38 (15.4) | 207 (84.6) |
| 성별 | 남성 | 19,404 (100.0) | 10,011 (51.6) | 8,669 (44.7) | 725 (3.7) | 183 (100.0) | 27 (14.7) | 156 (85.3) |
| | 여성 | 21,374 (100.0) | 16,357 (76.5) | 4,705 (22.0) | 312 (1.5) | 62 (100.0) | 11 (17.3) | 51 (82.7)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1,651 (100.0) | 15,276 (70.6) | 5,919 (27.3) | 456 (2.1) | 131 (100.0) | 38 (28.7) | 93 (71.3) |

| | | | | | | | | |
|-----|-----|-------------------|------------------|-----------------|--------------|----------------|--------------|---------------|
| | 공업 | 16,235 (100.0) | 9,539 (58.8) | 6,180 (38.1) | 516 (3.2) | 38 (100.0) | | 38 (100.0) |
| | 기타 | 2,892 (100.0) | 1,552 (53.7) | 1,275 (44.1) | 65 (2.2) | 76 (100.0) | | 76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8,926 (100.0) | 11,552 (61.0) | 6,735 (35.6) | 640 (3.4) | 129 (100.0) | 38 (29.2) | 91 (70.8) |
| | 중부권 | 5,947 (100.0) | 4,108 (69.1) | 1,719 (28.9) | 120 (2.0) | 43 (100.0) | | 43 (100.0) |
| | 호남권 | 5,486 (100.0) | 3,333 (60.8) | 2,059 (37.5) | 95 (1.7) | 33 (100.0) | | 33 (100.0) |
| | 대구권 | 4,680 (100.0) | 3,374 (72.1) | 1,179 (25.2) | 127 (2.7) | 27 (100.0) | | 27 (100.0) |
| | 부산권 | 5,738 (100.0) | 4,000 (69.7) | 1,683 (29.3) | 55 (1.0) | 13 (100.0) | | 13 (100.0) |

2011년 고졸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임금)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Ⅱ-5>와 같다. 이중 조사기준기간(2011년 4월 24일 ~ 4월 30일)을 기준으로 고졸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은 131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고졸 취업자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월평균 15만 2천 원이 많은 139만 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유형별로는 상업계열 졸업자의 월평균소득이 136만 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권 졸업자들의 월평균소득이 146만 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졸업자의 월평균소득이 127만 6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1년 고졸 취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평균근로시간은 50.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9시간가량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이 49.5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공업계열(51.9시간), 기타계열(52.8시간)순

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권이 53.9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49.0시간으로 가장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월평균 임금 및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 만원, 시간)

| 구 분 | | 임금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 전체 | |
|-----------|-----|-------|------|--------|------|-------|------|
| | | 소득 | 근로시간 | 소득 | 근로시간 | 소득 | 근로시간 |
| 전체 | | 131.8 | 50.6 | 221.6 | 57.2 | 131.9 | 50.7 |
| 성 별 | 남 성 | 123.8 | 52.7 | 250.0 | 58.0 | 123.9 | 52.7 |
| | 여 성 | 139.1 | 48.8 | 150.0 | 53.9 | 139.1 | 48.8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36.4 | 49.4 | 221.6 | 51.4 | 136.5 | 49.5 |
| | 공업 | 127.3 | 51.8 | | 60.4 | 127.3 | 51.9 |
| | 기타 | 122.8 | 52.5 | | 64.4 | 122.8 | 52.8 |
| 권역별 | 수도권 | 127.4 | 49.0 | 221.6 | 57.2 | 127.6 | 49.0 |
| | 중부권 | 137.6 | 51.7 | | 54.8 | 137.6 | 51.7 |
| | 호남권 | 131.2 | 50.6 | | 68.8 | 131.2 | 50.7 |
| | 대구권 | 146.4 | 53.9 | | 53.1 | 146.4 | 53.9 |
| | 부산권 | 129.2 | 52.2 | | 44.7 | 129.2 | 52.2 |

다음 <표 II-6>는 2011년 고졸 취업자의 전공유형별 산업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졸자가 5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12.8%), 숙박 및 음식점업(11.9%) 등의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계열에서는 제조업(47.8%), 도매 및 소매업(14.7%), 숙박 및 음식점업(9.5%)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업계열에서는 제조업(55.4%), 숙박 및 음식점업(13.9%), 도매 및 소매업(10.5%)의 순으로, 기타계열에서는 제조업(50.1%), 도매 및 소매업(12.8%), 숙박 및 음식점업(11.9%)의 순으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 - 6〉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¹⁾

(단위 : %)

| 산업대분류 | 상업 | | 공업 | | 기타 | | 전체 | |
|-----------------------------|--------|------------------|--------|-------|-------|-------|--------|-------|
| | 취업자 | 비율 ²⁾ | 취업자 | 비율 | 취업자 | 비율 | 취업자 | 비율 |
| 전체 | 21,605 | 100.0 | 16,210 | 100.0 | 2,875 | 100.0 | 40,690 | 100.0 |
| 농업, 임업 및 어업 | 25 | 0.1 | 62 | 0.4 | 42 | 1.5 | 129 | 0.3 |
| 광업 | 26 | 0.1 | | | | | 26 | 0.1 |
| 제조업 | 10,331 | 47.8 | 8,977 | 55.4 | 1,067 | 37.1 | 20,374 | 50.1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6 | 0.1 | 15 | 0.1 | 17 | 0.6 | 49 | 0.1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 11 | 0.1 | | | 11 | 0.0 |
| 건설업 | 456 | 2.1 | 519 | 3.2 | 31 | 1.1 | 1,006 | 2.5 |
| 도매 및 소매업 | 3,172 | 14.7 | 1,706 | 10.5 | 348 | 12.1 | 5,226 | 12.8 |
| 운수업 | 515 | 2.4 | 130 | 0.8 | 8 | 0.3 | 653 | 1.6 |
| 숙박 및 음식점업 | 2,056 | 9.5 | 2,256 | 13.9 | 518 | 18.0 | 4,829 | 11.9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424 | 2.0 | 146 | 0.9 | 15 | 0.5 | 585 | 1.4 |
| 금융 및 보험업 | 645 | 3.0 | 20 | 0.1 | | | 665 | 1.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4 | 0.2 | 26 | 0.2 | 13 | 0.5 | 73 | 0.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05 | 2.8 | 433 | 2.7 | 159 | 5.5 | 1,198 | 2.9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938 | 4.3 | 548 | 3.4 | 121 | 4.2 | 1,607 | 3.9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1 | 0.1 | 47 | 0.3 | 13 | 0.4 | 80 | 0.2 |
| 교육 서비스업 | 328 | 1.5 | 228 | 1.4 | 33 | 1.2 | 590 | 1.4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08 | 3.7 | 76 | 0.5 | 87 | 3.0 | 971 | 2.4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88 | 2.3 | 534 | 3.3 | 254 | 8.8 | 1,276 | 3.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19 | 3.3 | 476 | 2.9 | 148 | 5.1 | 1,343 | 3.3 |

주 : 1)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분석함

2) 전공유형별로 취업자가 진출한 산업 분포임

다음 <표 II-7>은 2011년 고졸 취업자의 전공유형별 직업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관련직이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6.4%), 영업 및 판매 관련직(11.6%), 음식 서비스 관련직(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계열에서는 전기·전자 관련직(26.8%),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6.2%)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업계열에서는 전기·전자 관련직(24.0%), 기계 관련직(16.0%)의 순으로, 기타계열에서는 전기·전자 관련직(18.0%), 음식 서비스 관련직(16.3%)의 순으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7> 취업자의 진출분야(직업)¹⁾

(단위 : 명, %)

| 직업중분류 | 상업 | | 공업 | | 기타 | | 전체 | |
|----------------------|--------|------------------|--------|-------|-------|-------|--------|-------|
| | 취업자 | 비율 ²⁾ | 취업자 | 비율 | 취업자 | 비율 | 취업자 | 비율 |
| 전 체 | 21,736 | 100.0 | 16,252 | 100.0 | 2,945 | 100.0 | 40,933 | 100.0 |
| 경영·회계·사무관련직 | 5,693 | 26.2 | 857 | 5.3 | 166 | 5.6 | 6,716 | 16.4 |
| 금융·보험관련직 | 437 | 2.0 | 16 | 0.1 | | | 453 | 1.1 |
|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56 | 0.3 | 40 | 0.2 | 17 | 0.6 | 114 | 0.3 |
| 보건·의료 관련직 | 601 | 2.8 | 80 | 0.5 | 89 | 3.0 | 770 | 1.9 |
|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 30 | 0.1 | 9 | 0.1 | | | 39 | 0.1 |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244 | 1.1 | 408 | 2.5 | 20 | 0.7 | 672 | 1.6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368 | 1.7 | 622 | 3.8 | 93 | 3.2 | 1,083 | 2.6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2,634 | 12.1 | 1,738 | 10.7 | 385 | 13.1 | 4,757 | 11.6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98 | 1.4 | 394 | 2.4 | 78 | 2.6 | 769 | 1.9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 804 | 3.7 | 646 | 4.0 | 376 | 12.8 | 1,826 | 4.5 |
| 음식 서비스 관련직 | 1,740 | 8.0 | 2,074 | 12.8 | 480 | 16.3 | 4,294 | 10.5 |
| 건설 관련직 | 163 | 0.8 | 378 | 2.3 | 39 | 1.3 | 580 | 1.4 |
| 기계 관련직 | 665 | 3.1 | 2,598 | 16.0 | 160 | 5.4 | 3,423 | 8.4 |
| 재료 관련직 | 386 | 1.8 | 774 | 4.8 | 71 | 2.4 | 1,232 | 3.0 |
| 화학 관련직 | 180 | 0.8 | 209 | 1.3 | 10 | 0.3 | 399 | 1.0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41 | 0.2 | 25 | 0.2 | 16 | 0.5 | 81 | 0.2 |

| | | | | | | | | |
|----------------------|-------|------|-------|------|-----|------|--------|------|
| 전기·전자 관련직 | 5,817 | 26.8 | 3,900 | 24.0 | 530 | 18.0 | 10,247 | 25.0 |
| 정보통신 관련직 | 161 | 0.7 | 57 | 0.3 | | | 218 | 0.5 |
| 식품가공 관련직 | 168 | 0.8 | 64 | 0.4 | 75 | 2.5 | 307 | 0.8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직 | 1,233 | 5.7 | 1,297 | 8.0 | 306 | 10.4 | 2,836 | 6.9 |
| 농림어업 관련직 | 16 | 0.1 | 66 | 0.4 | 34 | 1.1 | 116 | 0.3 |

주 : 1) 현재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분석함
 2) 전공 유형별로 취업자가 진출한 직업 분포임

3) 일자리 경험 횟수

일자리 경험 횟수별 분포를 보면, 1회 직장을 경험한 사람은 75.5%, 2회 경험자는 11.9%, 3회 경험자는 10.5%, 그리고 나머지 2.2%가 4회 이상 일자리를 경험하였다. 1회 직장경험자의 비율은 여성이 79.9%로 남성 7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일자리 경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8〉 졸업 후 일자리경험횟수

(단위 : 명, %)

| 구 분 | | 1회 | | 2회 | | 3회 | | 4회 이상 | | 전체 |
|-----------|-----|-------|------|-----|------|-----|------|-------|-----|-------|
| 전체 | | 4,904 | 75.5 | 773 | 11.9 | 680 | 10.5 | 142 | 2.2 | 6,499 |
| 성 별 | 남 성 | 2,865 | 72.6 | 536 | 13.6 | 454 | 11.5 | 91 | 2.3 | 3,946 |
| | 여 성 | 2,039 | 79.9 | 237 | 9.3 | 226 | 8.9 | 52 | 2.0 | 2,554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065 | 74.5 | 312 | 11.2 | 317 | 11.4 | 77 | 2.8 | 2,770 |
| | 공업 | 2,403 | 79.1 | 327 | 10.8 | 247 | 8.1 | 59 | 2.0 | 3,037 |
| | 기타 | 436 | 63.0 | 134 | 19.4 | 116 | 16.8 | 6 | 0.8 | 692 |
| 권역별 | 수도권 | 2,458 | 71.9 | 447 | 13.1 | 400 | 11.7 | 112 | 3.3 | 3,417 |
| | 중부권 | 704 | 82.5 | 111 | 13.0 | 35 | 4.1 | 4 | 0.5 | 854 |
| | 호남권 | 669 | 88.9 | 42 | 5.6 | 23 | 3.0 | 18 | 2.4 | 753 |
| | 대구권 | 463 | 80.0 | 53 | 9.1 | 63 | 10.9 | | | 579 |
| | 부산권 | 610 | 67.9 | 120 | 13.4 | 159 | 17.7 | 8 | 0.9 | 898 |

4) 구직활동 경험

2011년 전문계고 졸업자 54,044명 중 30.8%에 해당하는 16,630명이 고등학교 졸업 후 2011년 4월 30일까지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 활동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유형별로는 기타계열의 졸업자가 39.9%로 가장 많은 구직활동 비율을 나타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6.1%), 중부권(31.2%)의 고졸자들이 구직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II-9〉 졸업 후 구직활동 경험

(단위 : 명, %)

| 구 분 | | 있다 | 없다 | 합계 |
|-------|-----|------------------|------------------|-------------------|
| 전체 | | 16,630 (30.8) | 37,415 (69.2) | 54,044 (100.0) |
| 성별 | 남성 | 9,629 (34.5) | 18,287 (65.5) | 27,916 (100.0) |
| | 여성 | 7,001 (26.8) | 19,128 (73.2) | 26,129 (100.0) |
| 전공유형별 | 상업 | 7,734 (29.0) | 18,959 (71.0) | 26,693 (100.0) |
| | 공업 | 7,043 (31.0) | 15,659 (69.0) | 22,702 (100.0) |
| | 기타 | 1,853 (39.9) | 2,796 (60.1) | 4,649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8,883 (36.1) | 15,738 (63.9) | 24,621 (100.0) |
| | 중부권 | 2,537 (31.2) | 5,596 (68.8) | 8,133 (100.0) |
| | 호남권 | 1,863 (23.4) | 6,113 (76.6) | 7,976 (100.0) |
| | 대구권 | 1,567 (26.2) | 4,415 (73.8) | 5,982 (100.0) |
| | 부산권 | 1,780 (24.3) | 5,552 (75.7) | 7,332 (100.0) |

5) 전문계열 고등학교 선택 이유

2011년 고졸자의 전문계열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계고 진학의 주된 이유는 '성적에 맞춰서'가 36.6%가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35.4%),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10〉 전문계열 고등학교 선택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 성적에 맞춰서 |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 | 친구, 선배의 권유 | 대학진학 에 유리할 것 같아서 | 졸업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 미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 기타 | 전체 |
|-----------|-----|------------------|-------------------|------------------|------------------------|-------------------------|-------------------------|----------------|-------------------|
| 전체 | | 19,755 (36.6) | 7,716 (14.3) | 1,979 (3.7) | 3,692 (6.8) | 19,082 (35.4) | 459 (0.8) | 1,293 (2.4) | 53,975 (100.0) |
| 성별 | 남성 | 11,704 (42.0) | 4,432 (15.9) | 1,186 (4.3) | 1,329 (4.8) | 8,247 (29.6) | 319 (1.1) | 634 (2.3) | 27,853 (100.0) |
| | 여성 | 8,051 (30.8) | 3,284 (12.6) | 792 (3.0) | 2,363 (9.0) | 10,834 (41.5) | 140 (0.5) | 658 (2.5) | 26,122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8,967 (33.6) | 3,657 (13.7) | 766 (2.9) | 2,243 (8.4) | 10,222 (38.3) | 250 (0.9) | 580 (2.2) | 26,687 (100.0) |
| | 공업 | 9,037 (39.8) | 3,352 (14.8) | 943 (4.2) | 1,210 (5.3) | 7,615 (33.6) | 99 (0.4) | 435 (1.9) | 22,691 (100.0) |
| | 기타 | 1,751 (38.1) | 707 (15.4) | 270 (5.9) | 239 (5.2) | 1,245 (27.1) | 109 (2.4) | 277 (6.0) | 4,597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8,108 (33.0) | 3,383 (13.8) | 1,102 (4.5) | 2,598 (10.6) | 8,347 (34.0) | 199 (0.8) | 835 (3.4) | 24,573 (100.0) |
| | 중부권 | 3,576 (44.0) | 1,211 (14.9) | 309 (3.8) | 370 (4.6) | 2,529 (31.1) | 20 (0.2) | 111 (1.4) | 8,126 (100.0) |
| | 호남권 | 2,533 (31.8) | 1,337 (16.8) | 102 (1.3) | 260 (3.3) | 3,483 (43.7) | 104 (1.3) | 153 (1.9) | 7,972 (100.0) |
| | 대구권 | 2,232 (37.4) | 714 (12.0) | 162 (2.7) | 256 (4.3) | 2,449 (41.0) | 41 (0.7) | 118 (2.0) | 5,972 (100.0) |
| | 부산권 | 3,307 (45.1) | 1,071 (14.6) | 304 (4.1) | 207 (2.8) | 2,273 (31.0) | 95 (1.3) | 76 (1.0) | 7,332 (10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2.0%)이 여성(30.8%)보다 성적에 맞춰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약 11.2%p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41.5%)은 남성(29.6%)보다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약 11.9%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에서는 졸업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38.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업계열과 기타계열에서는 성적에 맞춰서의 응답이 각각 39.8%,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과 부산권에서는 성적에 맞춰서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 호남권, 대구권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0.6%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 향후 1년 이내의 계획

2011년 고졸자들의 앞으로 1년 이내의 계획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1.3%가 1년 이내에 군입대를 할 계획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응답도 21.1%로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직장을 계속다니겠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직장을 옮긴다는 응답자가 16.8%, 취업을 하겠다는 11.7%로 나타났다.

2011년 고졸자들의 앞으로 1년 이내의 계획을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6%는 직장을 옮길 계획 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업자의 경우를 보면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겠다는 28.4%로 군입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도 13.6%로 많이 나타났다.

〈표Ⅱ-11〉 향후 1년 이내의 계획

(단위 : 명, %)

| 구 분 | 성별 | | 경제활동 상태별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활 | |
| 현재 직장 계속 다님 | 5,887 (21.1) | 14,049 (53.8) | 19,936 (48.6) | | | 19,936 (36.9) |
| 직장 옮김 | 1,990 (7.1) | 4,393 (16.8) | 6,383 (15.6) | | | 6,383 (11.8) |
| 취업 | 1,887 (6.8) | 3,049 (11.7) | | 2,695 (52.6) | 2,241 (28.4) | 4,935 (9.1) |
| 개인사업이나 창업 | 84 (0.3) | 202 (0.8) | 221 (0.5) | 35 (0.7) | 29 (0.4) | 286 (0.5) |
| 그냥 쉬겠다 | 137 (0.5) | 105 (0.4) | 135 (0.3) | 17 (0.3) | 90 (1.1) | 242 (0.4) |
| 국내 학교로의 진학 | 1,583 (5.7) | 1,785 (6.8) | 2,116 (5.2) | 298 (5.8) | 955 (12.1) | 3,368 (6.2) |
| 어학연수·유학 | 94 (0.3) | 81 (0.3) | 147 (0.4) | 4 (0.1) | 24 (0.3) | 175 (0.3) |
| 군입대 | 14,331 (51.3) | 88 (0.3) | 9,639 (23.5) | 1,634 (31.9) | 3,147 (39.9) | 14,420 (26.7) |
| 구체적인 계획없음 | 1,491 (5.3) | 1,815 (7.0) | 2,027 (4.9) | 205 (4.0) | 1,074 (13.6) | 3,306 (6.1) |
| 기타 | 432 (1.5) | 540 (2.1) | 407 (1.0) | 239 (4.7) | 326 (4.1) | 972 (1.8) |

제3장 고졸자의 일자리 경험

1. 현재 일자리

현재 일자리는 2011년 전문계고(특성화고) 고졸자 중 미진학 고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의 일자리 관련 현황들을 나타낸다. 2011년 전문계고 졸업생 중 미진학 고졸자는 54,044명이며, 이들중 취업자 비중은 75.9%에 해당하는 41,023명으로 나타났다.

1) 고졸자의 경제활동상태

고졸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82.0%)이 남성(70.2%)보다 약 11.8%p 가량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실업자 비율은 7.7%,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 졸업자들의 취업자 비율(81.6%)이 가장 높았으며, 공업계열(71.7%), 기타계열(63.8%)로 나타났다.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취업자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호남권의 취업자 비율이 69.2%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8%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로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울산지역이 87.3%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대전(83.4%), 제주(82.3%), 서울(80.6%), 대구(80.6%)의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66.2%의 전북으로 나타났다.

〈표 III-1〉 특성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 구 분 | | 경제활동인구 | | | | 비경제활동인구 | | 전체 | |
|------------|----|-------------------|------|-------|------|---------|------|--------|-------|
| | | 취업자 ⁵⁾ | | 실업자 | | | | | |
| 전체 | | 41,023 | 75.9 | 5,130 | 9.5 | 7,892 | 14.6 | 54,044 | 100.0 |
| 성별 | 남자 | 19,587 | 70.2 | 3,106 | 11.1 | 5,223 | 18.7 | 27,916 | 51.7 |
| | 여자 | 21,435 | 82.0 | 2,024 | 7.7 | 2,669 | 10.2 | 26,129 | 48.3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1,782 | 81.6 | 2,112 | 7.9 | 2,799 | 10.5 | 26,693 | 49.4 |
| | 공업 | 16,273 | 71.7 | 2,222 | 9.8 | 4,207 | 18.5 | 22,702 | 42.0 |
| | 기타 | 2,968 | 63.8 | 796 | 17.1 | 885 | 19.0 | 4,649 | 8.6 |
| 16개 시도별 | 서울 | 6,820 | 80.6 | 760 | 9.0 | 881 | 10.4 | 8,460 | 15.7 |
| | 인천 | 2,941 | 77.3 | 407 | 10.7 | 457 | 12.0 | 3,805 | 7.0 |
| | 부산 | 3,023 | 78.2 | 300 | 7.7 | 546 | 14.1 | 3,869 | 7.2 |
| | 대구 | 2,064 | 80.6 | 201 | 7.8 | 296 | 11.6 | 2,562 | 4.7 |
| | 대전 | 1,378 | 83.4 | 124 | 7.5 | 150 | 9.1 | 1,652 | 3.1 |
| | 광주 | 1,292 | 72.5 | 149 | 8.4 | 342 | 19.2 | 1,784 | 3.3 |
| | 울산 | 771 | 87.3 | 56 | 6.3 | 56 | 6.4 | 883 | 1.6 |
| | 경기 | 9,294 | 75.2 | 1,283 | 10.4 | 1,778 | 14.4 | 12,356 | 22.9 |
| | 강원 | 1,320 | 72.9 | 135 | 7.5 | 356 | 19.7 | 1,811 | 3.4 |
| | 충북 | 1,511 | 68.8 | 332 | 15.1 | 354 | 16.1 | 2,197 | 4.1 |
| | 충남 | 1,781 | 72.0 | 227 | 9.2 | 465 | 18.8 | 2,473 | 4.6 |
| | 전북 | 1,870 | 66.2 | 264 | 9.3 | 692 | 24.5 | 2,826 | 5.2 |
| | 전남 | 1,978 | 68.1 | 349 | 12.0 | 579 | 19.9 | 2,906 | 5.4 |
| | 경북 | 2,643 | 77.3 | 295 | 8.6 | 482 | 14.1 | 3,421 | 6.3 |
| | 경남 | 1,956 | 75.8 | 216 | 8.4 | 409 | 15.8 | 2,581 | 4.8 |
| | 제주 | 379 | 82.3 | 33 | 7.2 | 49 | 10.6 | 461 | 0.9 |

5) 지난 1주간(2011년 4월 24일~ 4월 30일) 1시간 이상 수입 목적으로 일을 하거나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가구의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

2)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현재 일자리 진출 분야를 산업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12.9%), 숙박 및 음식점업(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8.1%), 여성(51.4%)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졸자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17.2%), 도매 및 소매업(11.6%)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14.1%), 숙박 및 음식점업(7.5%)에 종사하는 고졸자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공업계열 및 기타계열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순으로, 상업계열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으로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산업대분류)

(단위 : %)

| 산업대분류 | 성별 | | 전공유형별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6 | 0.1 | 0.2 | 0.4 | 1.4 | 0.4 |
| 광업 | | 0.1 | 0.1 | | | 0.1 |
| 제조업 | 48.1 | 51.4 | 47.6 | 55.2 | 36.2 | 49.8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0.2 | 0.1 | 0.1 | 0.1 | 0.6 | 0.1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0.1 | | | 0.1 | | 0.0 |
| 건설업 | 3.7 | 1.3 | 2.1 | 3.2 | 1.1 | 2.5 |
| 도매 및 소매업 | 11.6 | 14.1 | 14.7 | 10.6 | 11.9 | 12.9 |
| 운수업 | 1.0 | 2.1 | 2.4 | 0.8 | 0.3 | 1.6 |
| 숙박 및 음식점업 | 17.2 | 7.5 | 9.7 | 14.0 | 20.0 | 12.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1 | 1.7 | 1.9 | 0.9 | 0.5 | 1.4 |

| |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 | 3.1 | 3.0 | 0.1 | | 1.6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2 | 0.1 | 0.2 | 0.2 | 0.4 | 0.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0 | 3.9 | 2.9 | 2.7 | 5.4 | 3.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4.8 | 3.2 | 4.3 | 3.4 | 4.1 | 3.9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0.3 | 0.1 | 0.1 | 0.3 | 0.4 | 0.2 |
| 교육 서비스업 | 1.3 | 1.6 | 1.6 | 1.4 | 1.1 | 1.5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0.1 | 4.5 | 3.7 | 0.5 | 3.0 | 2.4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5 | 1.8 | 2.2 | 3.3 | 8.6 | 3.1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2 | 3.3 | 3.3 | 2.9 | 5.0 | 3.3 |

3)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고졸자의 현재 일자리 진출 분야를 직업중분류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관련직(25.0%)이 가장 많고, 경영·회계·사무관련직(16.4%), 영업 및 판매 관련직(11.6%), 음식 서비스 관련직(10.5%)의 순으로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경우 전기·전자 관련직과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4.0%, 28.0%로 남성의 15.2%와 3.7%와 비교하여 현저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기계 관련직(16.3%), 음식 서비스 관련직(15.7%) 직업에 종사하는 고졸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의 경우 전기·전자 관련직(26.8%) 및 경영·회계·사무관련직(26.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업계열의 경우 전기·전자 관련직(24.0%), 기계관련직(16.0%), 음식 서비스 관련직(12.8%)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계열의 경우 전기·전자 관련직(18.0%)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Ⅲ-3〉 현재 일자리 진출분야(직업중분류)

(단위 : %)

| 직업중분류 | 성별 | | 전공유형별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경영·회계·사무관련직 | 3.7 | 28.0 | 26.2 | 5.3 | 5.6 | 16.4 |
| 금융·보험 관련직 | | 2.1 | 2.0 | 0.1 | | 1.1 |
|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0.4 | 0.1 | 0.3 | 0.2 | 0.6 | 0.3 |
| 보건·의료 관련직 | 0.1 | 3.5 | 2.8 | 0.5 | 3.0 | 1.9 |
|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 0.0 | 0.1 | 0.1 | 0.1 | | 0.1 |
|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 2.1 | 1.2 | 1.1 | 2.5 | 0.7 | 1.6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5.2 | 0.3 | 1.7 | 3.8 | 3.2 | 2.6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11.9 | 11.3 | 12.1 | 10.7 | 13.1 | 11.6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3.4 | 0.5 | 1.4 | 2.4 | 2.6 | 1.9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관련직 | 5.4 | 3.6 | 3.7 | 4.0 | 12.8 | 4.5 |
| 음식 서비스 관련직 | 15.7 | 5.8 | 8.0 | 12.8 | 16.3 | 10.5 |
| 건설 관련직 | 3.0 | | 0.8 | 2.3 | 1.3 | 1.4 |
| 기계 관련직 | 16.3 | 1.1 | 3.1 | 16.0 | 5.4 | 8.4 |
| 재료 관련직 | 5.0 | 1.2 | 1.8 | 4.8 | 2.4 | 3.0 |
| 화학 관련직 | 1.1 | 0.9 | 0.8 | 1.3 | 0.3 | 1.0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2 | 0.2 | 0.2 | 0.2 | 0.5 | 0.2 |
| 전기·전자 관련직 | 15.2 | 34.0 | 26.8 | 24.0 | 18.0 | 25.0 |
| 정보통신 관련직 | 0.6 | 0.5 | 0.7 | 0.3 | | 0.5 |
| 식품가공 관련직 | 0.8 | 0.7 | 0.8 | 0.4 | 2.5 | 0.8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 예 및 생산단순직 | 9.2 | 4.9 | 5.7 | 8.0 | 10.4 | 6.9 |
| 농림어업 관련직 | 0.6 | 0.0 | 0.1 | 0.4 | 1.1 | 0.3 |

4)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99.4%가 임금 근로자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용직이 전체 취업자의 64.7%이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각각 32.8%, 2.5%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자와 비교하여 고졸자의 종사상 지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4〉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 구 분 | | 임금근로자 | | | | 비임금근로자 | |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 전체 | | 40,778 (100.0) | 26,367 (64.7) | 13,374 (32.8) | 1,037 (2.5) | 245 (100.0) | 38 (15.4) | 207 (84.6) |
| 성별 | 남성 | 19,404 (100.0) | 10,011 (51.6) | 8,669 (44.7) | 725 (3.7) | 183 (100.0) | 27 (14.7) | 156 (85.3) |
| | 여성 | 21,374 (100.0) | 16,357 (76.5) | 4,705 (22.0) | 312 (1.5) | 62 (100.0) | 11 (17.3) | 51 (82.7)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1,651 (100.0) | 15,276 (70.6) | 5,919 (27.3) | 456 (2.1) | 131 (100.0) | 38 (28.7) | 93 (71.3) |
| | 공업 | 16,235 (100.0) | 9,539 (58.8) | 6,180 (38.1) | 516 (3.2) | 38 (100.0) | | 38 (100.0) |
| | 기타 | 2,892 (100.0) | 1,552 (53.7) | 1,275 (44.1) | 65 (2.2) | 76 (100.0) | | 76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8,926 (100.0) | 11,552 (61.0) | 6,735 (35.6) | 640 (3.4) | 129 (100.0) | 38 (29.2) | 91 (70.8) |
| | 중부권 | 5,947 (100.0) | 4,108 (69.1) | 1,719 (28.9) | 120 (2.0) | 43 (100.0) | | 43 (100.0) |
| | 호남권 | 5,486 (100.0) | 3,333 (60.8) | 2,059 (37.5) | 95 (1.7) | 33 (100.0) | | 33 (100.0) |
| | 대구권 | 4,680 (100.0) | 3,374 (72.1) | 1,179 (25.2) | 127 (2.7) | 27 (100.0) | | 27 (100.0) |
| | 부산권 | 5,738 (100.0) | 4,000 (69.7) | 1,683 (29.3) | 55 (1.0) | 13 (100.0) | | 13 (100.0) |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각각 99.1%와 99.7%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76.5%)이 남성(51.6%)보다 상용직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면 임시직의 비율은 남성이 44.7%로 여성 2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업(99.8%), 상업(99.4%), 기타(97.5%)의 순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업계열의 상용직 비율(70.6%)이 다른 계열의 상용직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계열 고졸자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2.5%로 다른 전공유형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이 99.3%~99.8%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권의 상용직 비율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의 상용직 비율이 6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경우 임시직(37.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현재 일자리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분포

현재 일자리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000명 이상 대규모 회사에 종사하는 비율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43.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고졸자들이 소규모 사업체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 현재 일자리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분포

(단위 : 명, %)

| 사업체 규모 | 성별 | | 전공유형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1-4명 | 3,563 (18.4) | 2,956 (13.8) | 3,319 (15.3) | 2,548 (15.8) | 652 (22.2) | 6,519 (16.0) |
| 5-9명 | 2,767 (14.3) | 1,953 (9.1) | 2,205 (10.2) | 2,084 (12.9) | 431 (14.7) | 4,721 (11.6) |

| | | | | | | |
|-----------|-----------------|-----------------|-----------------|-----------------|---------------|-----------------|
| 10-29명 | 3,818 (19.7) | 2,578 (12.1) | 3,228 (14.9) | 2,612 (16.2) | 555 (18.9) | 6,396 (15.7) |
| 30-49명 | 1,682 (8.7) | 1,195 (5.6) | 1,330 (6.1) | 1,364 (8.5) | 184 (6.3) | 2,877 (7.1) |
| 50-99명 | 1,960 (10.1) | 1,160 (5.4) | 1,151 (5.3) | 1,741 (10.8) | 228 (7.8) | 3,120 (7.7) |
| 100-299명 | 2,551 (13.2) | 2,013 (9.4) | 2,126 (9.8) | 2,194 (13.6) | 244 (8.3) | 4,564 (11.2) |
| 300-499명 | 1,016 (5.2) | 1,505 (7.0) | 1,566 (7.2) | 819 (5.1) | 136 (4.6) | 2,521 (6.2) |
| 500-999명 | 754 (3.9) | 1,082 (5.1) | 1,152 (5.3) | 609 (3.8) | 76 (2.6) | 1,836 (4.5) |
| 1,000명 이상 | 1,265 (6.5) | 6,910 (32.4) | 5,588 (25.8) | 2,157 (13.4) | 430 (14.6) | 8,175 (2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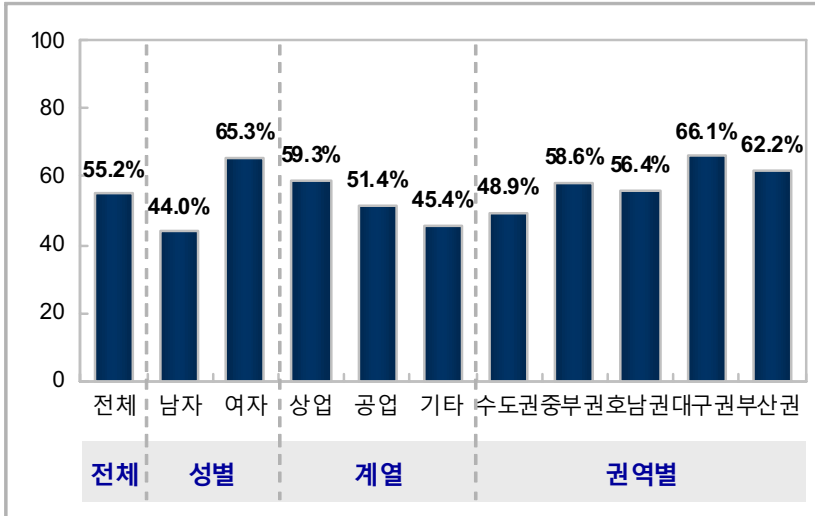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여성(35%)보다 남성(52.4%)이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계열(55.8%) 고졸자들이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현재 일자리의 정규직 비율

2011년 고졸자의 정규직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5.3%, 남성이 44.0%로 여성이 약 21.3%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임시직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공유형별로는 상업계열의 정규직 비율이 59.3%로 가장 높았고, 공업계열 및 기타계열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51.4%와 45.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대구권(66.1%), 부산권(62.2%), 중부권(58.6%)의 순서대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48.9%), 호남권(56.4%)의 정규직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앞에서 살펴본 정규직의 비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Ⅲ-1] 특성별 정규직 비율

다음 <표Ⅲ-6>은 16개 시도별 정규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경북으로 71.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충북(69.1%), 울산(67.3%), 부산(66.0%), 광주(64.7%)의 순으로 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정규직 비중이 40.9%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45.1%), 충남(48.7%), 경기(49.9%)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6> 16개 시도별 정규직 비율

(단위 : 명, %)

| 구 분 | 정규직 | | 비정규직 | | 전체 |
|-----|--------|--------|--------|--------|----------------|
| 전체 | 22,628 | (55.2) | 18,395 | (44.8) | 41,023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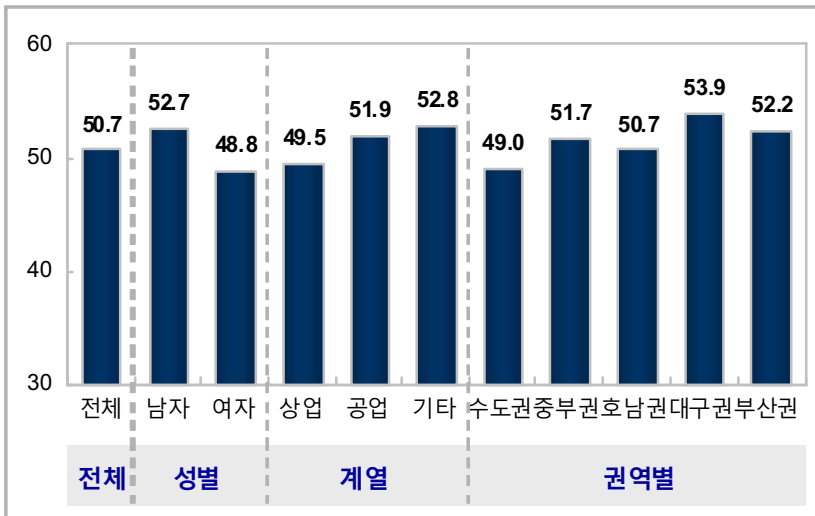
| | | | | | | | |
|---------|----|--------|--------|--------|--------|--------|--------|
| 성별 | 남성 | 8,623 | (44.0) | 10,964 | (56.0) | 19,587 | (47.7) |
| | 여성 | 14,005 | (65.3) | 7,431 | (34.7) | 21,435 | (52.3) |
| 전공유형별 | 상업 | 12,910 | (59.3) | 8,872 | (40.7) | 21,782 | (53.1) |
| | 공업 | 8,372 | (51.4) | 7,901 | (48.6) | 16,273 | (39.7) |
| | 기타 | 1,346 | (45.4) | 1,621 | (54.6) | 2,968 | (7.2) |
| 16개 시도별 | 서울 | 2,790 | (40.9) | 4,030 | (59.1) | 6,820 | (16.6) |
| | 인천 | 1,887 | (64.2) | 1,054 | (35.8) | 2,941 | (7.2) |
| | 부산 | 1,995 | (66.0) | 1,028 | (34.0) | 3,023 | (7.4) |
| | 대구 | 1,233 | (59.7) | 831 | (40.3) | 2,064 | (5.0) |
| | 대전 | 848 | (61.5) | 530 | (38.5) | 1,378 | (3.4) |
| | 광주 | 837 | (64.7) | 456 | (35.3) | 1,292 | (3.2) |
| | 울산 | 518 | (67.3) | 252 | (32.7) | 771 | (1.9) |
| | 경기 | 4,634 | (49.9) | 4,660 | (50.1) | 9,294 | (22.7) |
| | 강원 | 751 | (56.9) | 568 | (43.1) | 1,320 | (3.2) |
| | 충북 | 1,045 | (69.1) | 466 | (30.9) | 1,511 | (3.7) |
| | 충남 | 867 | (48.7) | 914 | (51.3) | 1,781 | (4.3) |
| | 전북 | 1,007 | (53.8) | 864 | (46.2) | 1,870 | (4.6) |
| | 전남 | 1,100 | (55.6) | 878 | (44.4) | 1,978 | (4.8) |
| | 경북 | 1,880 | (71.1) | 763 | (28.9) | 2,643 | (6.4) |
| | 경남 | 1,064 | (54.4) | 893 | (45.6) | 1,956 | (4.8) |
| | 제주 | 171 | (45.1) | 208 | (54.9) | 379 | (0.9) |

7) 현재 일자리 주당평균근로시간

2011년도 고졸자의 현재 일자리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0.7시간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2.7시간으로 여성(48.8시간)보다 3.9시간가량 평균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는 기타계열이 52.8시간으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업계열과 상업계열이 각각 49.5시간, 51.9시간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권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3.9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권 52.2시간, 중부권 51.7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49.0시간)과 호남권(50.7시간) 순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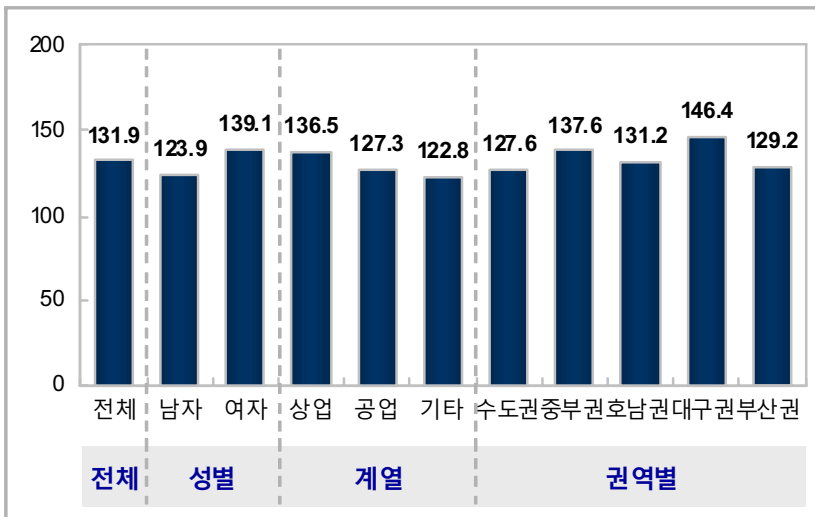
[그림Ⅲ-2] 현재 일자리의 주당평균근로시간 (단위 : 시간)

8)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소득

2011년도 고졸자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월평균소득은 131만 9천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39만 1천원으로 남성(123만 9천원)보다 평균 약 15만원 가량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는 상업계열(136만 5천원), 공업계열(127만 3천원), 기타계열(122만 8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권이 146만 4천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 순위로는 중부권(137만 6천원)이 따랐다. 수도권 평균 근로 소득은 127만 6천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Ⅲ-3] 현재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다음 <표Ⅲ-7>은 현재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월평균 소득을 16개 시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경북은 54.4시간으로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53.3시간), 제주(53.0시간), 경남(52.9시간), 울산(52.8시간), 충남(52.0시간)순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은 47.3시간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7>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월평균 소득

(단위 : 시간, 만원)

| 구 분 | | 평균근로시간 | 표준편차 | 월평균 소득 | 표준편차 |
|------------|----|--------|------|--------|------|
| 전체 | | 50.7 | 12.8 | 131.9 | 45.3 |
| 성별 | 남성 | 52.7 | 14.1 | 123.9 | 43.5 |
| | 여성 | 48.8 | 11.1 | 139.1 | 45.6 |
| 전공 유형별 | 상업 | 49.5 | 11.8 | 136.5 | 45.5 |
| | 공업 | 51.9 | 13.5 | 127.3 | 44.1 |
| | 기타 | 52.8 | 15.2 | 122.8 | 46.4 |
| 16개 시도별 | 서울 | 47.3 | 12.6 | 128.4 | 45.6 |
| | 인천 | 48.2 | 11.8 | 121.9 | 40.1 |
| | 부산 | 51.6 | 11.8 | 131.4 | 40.7 |
| | 대구 | 53.3 | 13.5 | 137.9 | 46.0 |
| | 대전 | 50.8 | 11.5 | 133.2 | 45.2 |
| | 광주 | 48.7 | 10.7 | 130.9 | 39.9 |
| | 울산 | 52.8 | 13.4 | 133.9 | 47.6 |
| | 경기 | 50.5 | 14.0 | 128.8 | 44.5 |
| | 강원 | 50.4 | 12.7 | 132.7 | 40.9 |
| | 충북 | 53.3 | 10.6 | 155.6 | 49.8 |
| | 충남 | 52.0 | 15.3 | 129.6 | 45.2 |
| | 전북 | 50.9 | 12.2 | 132.2 | 48.1 |
| | 전남 | 51.5 | 11.1 | 135.0 | 44.2 |
| | 경북 | 54.4 | 11.8 | 153.1 | 50.0 |
| | 경남 | 52.9 | 11.1 | 123.9 | 38.2 |
| | 제주 | 53.0 | 12.9 | 107.0 | 40.3 |

월평균 소득은 충북이 155.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153.1만원), 부산(137.9만원), 전남(135만원), 울산(133.9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는 107.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월평균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평균 근로시간은 많고 월평균 소득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 현재 일자리 만족도

2011년 고졸자들의 현재 일자리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사체계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3.72점), 근무환경(3.57점), 현직장의 안정성(3.57점), 직무내용(3.48점) 등이었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인사체계(2.99점), 개인의 발전 가능성(3.11점), 일의 자율성과 권한(3.26점)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는데,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남성들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업계열과 기타계열 보다 높은 만족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열에서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상업계열(3.71점), 공업계열(3.71점), 기타계열(3.8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유형에서 인사체계의 만족도가 상업계열(3.13점), 공업계열(2.96점), 기타계열(2.8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만족도를 비교하여 보면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사체계 및 개인의 발전가능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Ⅲ-8〉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점)

| 구 분 | | 임금 또는 소득 | 현직장 안정성 | 직무 내용 | 근무 환경 | 근로· 근무 시간 | 개인의 발전가 능성 | 상사 및 동료 와의 관계 | 복리 후생 제도 | 인사 체계 | 일의 사회적 평판 | 일의 자율성 과 권한 | 전반 적인 만족 |
|-----|----|----------------|------------|----------|----------|-----------------|------------------|---------------------------|----------------|----------|-----------------|-------------------|----------------|
| 전체 | | 3.36 | 3.57 | 3.48 | 3.57 | 3.33 | 3.11 | 3.72 | 3.40 | 2.99 | 3.28 | 3.26 | 3.42 |
| 성별 | 남성 | 3.25 | 3.38 | 3.44 | 3.40 | 3.26 | 3.04 | 3.74 | 3.11 | 2.86 | 3.14 | 3.24 | 3.36 |
| | 여성 | 3.46 | 3.74 | 3.52 | 3.73 | 3.40 | 3.17 | 3.71 | 3.66 | 3.12 | 3.41 | 3.27 | 3.47 |

| | | | | | | | | | | | | | |
|-----------|-----|------|------|------|------|------|------|------|------|------|------|------|------|
| 전공 유형별 | 상업 | 3.44 | 3.65 | 3.49 | 3.68 | 3.38 | 3.14 | 3.71 | 3.52 | 3.06 | 3.36 | 3.28 | 3.44 |
| | 공업 | 3.26 | 3.47 | 3.45 | 3.43 | 3.27 | 3.06 | 3.72 | 3.28 | 2.92 | 3.19 | 3.22 | 3.38 |
| | 기타 | 3.34 | 3.50 | 3.56 | 3.58 | 3.30 | 3.15 | 3.85 | 3.18 | 2.87 | 3.19 | 3.27 | 3.40 |
| 권역별 | 수도권 | 3.31 | 3.59 | 3.45 | 3.60 | 3.35 | 3.11 | 3.77 | 3.43 | 3.01 | 3.28 | 3.27 | 3.39 |
| | 중부권 | 3.45 | 3.54 | 3.49 | 3.59 | 3.33 | 3.17 | 3.73 | 3.49 | 3.04 | 3.32 | 3.33 | 3.44 |
| | 호남권 | 3.39 | 3.51 | 3.56 | 3.55 | 3.44 | 3.05 | 3.62 | 3.29 | 2.93 | 3.24 | 3.14 | 3.45 |
| | 대구권 | 3.42 | 3.60 | 3.49 | 3.59 | 3.19 | 3.11 | 3.79 | 3.45 | 3.02 | 3.41 | 3.29 | 3.45 |
| | 부산권 | 3.38 | 3.55 | 3.48 | 3.49 | 3.30 | 3.09 | 3.61 | 3.25 | 2.95 | 3.20 | 3.23 | 3.42 |

10) 현재 일자리의 업무내용과 교육수준

현재 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을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한 결과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였으며,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경우 업무내용과 교육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로 남성(46.3%)보다 10.6%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9.4%가 자신의 업무내용이 교육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56.0%)이 업무내용과 교육수준의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계열은 50%를 밑돌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57.7%)이 업무내용과 교육수준의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산권(48.6%)이 업무내용과 교육수준의 일치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권의 38.4%가 자신의 업무내용이 교육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다

〈표Ⅲ-9〉 현재 일자리의 업무내용과 교육수준

(단위 : 명, %)

| 구 분 | | 매우 낮음 | 낮음 | 알맞음 | 높음 | 매우 높음 |
|-----------|-----|----------------|------------------|------------------|-----------------|--------------|
| 전체 | | 2,795 (6.8) | 10,007 (24.5) | 21,218 (51.8) | 5,965 (14.6) | 941 (2.3) |
| 성별 | 남성 | 1,774 (9.1) | 5,920 (30.3) | 9,040 (46.3) | 2,257 (11.6) | 530 (2.7) |
| | 여성 | 1,021 (4.8) | 4,087 (19.1) | 12,178 (56.9) | 3,709 (17.3) | 411 (1.9)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084 (5.0) | 4,727 (21.7) | 12,208 (56.0) | 3,388 (15.6) | 374 (1.7) |
| | 공업 | 1,560 (9.6) | 4,437 (27.4) | 7,620 (47.0) | 2,093 (12.9) | 497 (3.1) |
| | 기타 | 151 (5.1) | 843 (28.7) | 1,390 (47.3) | 484 (16.5) | 71 (2.4) |
| 권역별 | 수도권 | 1,232 (6.5) | 4,463 (23.5) | 9,643 (50.9) | 3,139 (16.6) | 483 (2.5) |
| | 중부권 | 305 (5.1) | 1,122 (18.7) | 3,455 (57.7) | 935 (15.6) | 173 (2.9) |
| | 호남권 | 507 (9.2) | 1,466 (26.6) | 2,852 (51.7) | 631 (11.4) | 63 (1.1) |
| | 대구권 | 374 (8.0) | 1,128 (24.0) | 2,473 (52.5) | 607 (12.9) | 125 (2.7) |
| | 부산권 | 377 (6.6) | 1,828 (31.8) | 2,795 (48.6) | 653 (11.4) | 97 (1.7) |

11) 현재 일자리의 업무내용과 자신의 전공 비교

현재 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였을 때 일치도에 대하여 잘 맞지 않음(23.9%)과 전혀 맞지 않음(31.3%) 등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55.2%)이 그런대로 맞음(25.6%), 잘 맞음(15.4%), 매우 잘 맞음(2.8%) 등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43.8%)보다 11.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전공유형별과 권역별로도 자신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0〉 현재 일자리 업무내용과 자신의 전공 비교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맞지 않음 | 잘 맞지 않음 | 그런대로 맞음 | 잘 맞음 | 매우 잘맞음 |
|-----------|-----|------------------|-----------------|------------------|-----------------|----------------|
| 전체 | | 12,858 (31.3) | 9,837 (23.9) | 10,863 (26.5) | 6,320 (15.4) | 1,144 (2.8) |
| 성별 | 남성 | 6,274 (32.0) | 4,755 (24.3) | 4,906 (25.0) | 2,885 (14.7) | 767 (3.9) |
| | 여성 | 6,584 (30.7) | 5,083 (23.7) | 5,957 (27.8) | 3,435 (16.0) | 377 (1.8) |
| 전공 유형별 | 상업 | 6,720 (30.9) | 5,509 (25.3) | 5,847 (26.8) | 3,314 (15.2) | 392 (1.8) |
| | 공업 | 4,929 (30.3) | 3,838 (23.6) | 4,373 (26.9) | 2,553 (15.7) | 580 (3.6) |
| | 기타 | 1,208 (40.7) | 491 (16.5) | 643 (21.7) | 453 (15.3) | 172 (5.8) |
| 권역별 | 수도권 | 6,400 (33.6) | 4,157 (21.8) | 4,895 (25.7) | 2,958 (15.5) | 646 (3.4) |
| | 중부권 | 1,730 (28.9) | 1,661 (27.7) | 1,717 (28.7) | 782 (13.0) | 101 (1.7) |
| | 호남권 | 1,559 (28.2) | 1,405 (25.5) | 1,528 (27.7) | 899 (16.3) | 128 (2.3) |
| | 대구권 | 1,613 (34.3) | 1,314 (27.9) | 1,058 (22.5) | 631 (13.4) | 92 (2.0) |
| | 부산권 | 1,557 (27.1) | 1,300 (22.6) | 1,664 (28.9) | 1,052 (18.3) | 178 (3.1) |

12) 전공 지식의 도움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별로 도움 안 됨(27.2%)과 전혀 도움 안 됨(25.8%) 등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53.0%)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6.3%)이 여성(50.0%)보다 전공이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공유형별도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공이 도움이 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부산권에서는 보통 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51.6%)로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48.4%)보다 약간 높았다. 전반적으로 고졸자의 경우 전공 지식이 현재 일자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고 나타났다

〈표III-11〉 전공 지식의 현재 일자리 업무 수행 도움 정도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도움 안됨 | 별로 도움 안됨 | 보통 | 대체로 도움이 됨 | 매우 도움이 됨 |
|-----------|----|------------------|------------------|------------------|-----------------|----------------|
| 전체 | | 10,594 (25.8) | 11,176 (27.2) | 10,587 (25.8) | 7,240 (17.7) | 1,426 (3.5) |
| 성별 | 남성 | 5,486 (28.0) | 5,553 (28.3) | 4,785 (24.4) | 2,920 (14.9) | 844 (4.3) |
| | 여성 | 5,108 (23.8) | 5,624 (26.2) | 5,802 (27.1) | 4,320 (20.2) | 582 (2.7) |
| 전공 유형별 | 상업 | 5,281 (24.2) | 5,922 (27.2) | 5,834 (26.8) | 4,166 (19.1) | 579 (2.7) |
| | 공업 | 4,281 (26.3) | 4,616 (28.4) | 4,162 (25.6) | 2,558 (15.7) | 657 (4.0) |
| | 기타 | 1,032 (34.8) | 639 (21.5) | 592 (19.9) | 516 (17.4) | 189 (6.4) |

| | | | | | | |
|-----|-----|-----------------|-----------------|-----------------|-----------------|--------------|
| 권역별 | 수도권 | 4,856 (25.5) | 4,992 (26.2) | 4,715 (24.7) | 3,745 (19.7) | 748 (3.9) |
| | 중부권 | 1,488 (24.8) | 1,975 (33.0) | 1,523 (25.4) | 925 (15.4) | 80 (1.3) |
| | 호남권 | 1,499 (27.2) | 1,287 (23.3) | 1,632 (29.6) | 860 (15.6) | 241 (4.4) |
| | 대구권 | 1,295 (27.5) | 1,594 (33.9) | 1,106 (23.5) | 630 (13.4) | 83 (1.8) |
| | 부산권 | 1,456 (25.3) | 1,329 (23.1) | 1,612 (28.0) | 1,080 (18.8) | 275 (4.8) |

13) 현재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률

현재 일자리를 가진 2011년 고졸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률이 90.8%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88.4%, 고용보험 71.6%, 산재보험 7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비율이 여성의 직장가입 비율보다 약 20%p 가량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의 직장보험 가입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계열의 경우 국민연금(57.6%), 건강보험(60.3%)의 직장가입 비율로 타 전공계열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권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96.1%), 건강보험(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가입 비율도 국민연금(75.8%), 건강보험(77.9%)도 타 권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77.5%), 산재보험(76.0%)도 타 권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Ⅲ-12〉 현재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명, %)

| 구 분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 | 직장 가입 | 지역가입 | 직장 가입 | 지역가입 | | |
| 전체 | | 28,893 (70.4) | 7,387 (18.0) | 29,843 (72.7) | 7,427 (18.1) | 29,359 (71.6) | 28,719 (70.0) |
| 성별 | 남성 | 11,696 (59.7) | 4,881 (24.9) | 12,302 (62.8) | 4,925 (25.1) | 12,136 (62.0) | 11,868 (60.6) |
| | 여성 | 17,197 (80.2) | 2,506 (11.7) | 17,542 (81.8) | 2,502 (11.7) | 17,223 (80.4) | 16,852 (78.6)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6,188 (74.3) | 3,348 (15.4) | 16,544 (76.0) | 3,431 (15.8) | 16,222 (74.5) | 15,967 (73.3) |
| | 공업 | 10,994 (67.6) | 3,340 (20.5) | 11,511 (70.7) | 3,361 (20.7) | 11,424 (70.2) | 11,089 (68.1) |
| | 기타 | 1,711 (57.6) | 699 (23.6) | 1,788 (60.3) | 635 (21.4) | 1,713 (57.7) | 1,663 (56.0) |
| 권역별 | 수도권 | 13,350 (70.1) | 3,339 (17.5) | 13,814 (72.5) | 3,516 (18.5) | 13,411 (70.4) | 13,146 (69.0) |
| | 중부권 | 4,518 (75.4) | 1,070 (17.9) | 4,670 (78.0) | 947 (15.8) | 4,524 (75.5) | 4,451 (74.3) |
| | 호남권 | 3,458 (62.7) | 1,596 (28.9) | 3,616 (65.5) | 1,558 (28.2) | 3,709 (67.2) | 3,570 (64.7) |
| | 대구권 | 3,568 (75.8) | 956 (20.3) | 3,665 (77.9) | 883 (18.8) | 3,647 (77.5) | 3,579 (76.0) |
| | 부산권 | 3,999 (69.5) | 427 (7.4) | 4,079 (70.9) | 523 (9.1) | 4,069 (70.8) | 3,974 (69.1) |

14) 현재 일자리의 부가혜택 수혜율

2011년도 고졸자들의 부가혜택 수혜율을 살펴보면 퇴직금이 60.2%, 유급휴가가 56.9%, 시간외 수당이 64.8%, 상여금이 6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부가혜택의 수혜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사회보험 가입률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공유형별 부가혜택 수혜율을 살펴보면 상업계열, 공업계열, 기타 계열의 순서대로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 가입률과 마찬가지로 대구권의 수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결과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Ⅲ-13〉 현재 일자리에서 부가혜택 수혜율

(단위 : 명, %)

| 구 분 | | 퇴직금/ 퇴직연금 | 유급휴가 | 시간외 수당 | 상여금 |
|-----------|-----|------------------|------------------|------------------|------------------|
| 전체 | | 24,678 (60.2) | 23,344 (56.9) | 26,587 (64.8) | 24,987 (60.9) |
| 성별 | 남성 | 9,531 (48.7) | 8,524 (43.5) | 11,939 (61.0) | 9,271 (47.3) |
| | 여성 | 15,146 (70.7) | 14,820 (69.1) | 14,648 (68.3) | 15,716 (73.3)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3,950 (64.0) | 13,476 (61.9) | 14,095 (64.7) | 14,577 (66.9) |
| | 공업 | 9,301 (57.2) | 8,585 (52.8) | 10,916 (67.1) | 9,056 (55.7) |
| | 기타 | 1,426 (48.1) | 1,283 (43.2) | 1,577 (53.1) | 1,354 (45.6) |
| 권역별 | 수도권 | 11,139 (58.5) | 10,730 (56.3) | 11,791 (61.9) | 10,893 (57.2) |
| | 중부권 | 3,648 (60.9) | 3,618 (60.4) | 4,345 (72.5) | 4,001 (66.8) |
| | 호남권 | 3,067 (55.6) | 2,831 (51.3) | 3,571 (64.7) | 3,182 (57.7) |
| | 대구권 | 3,387 (71.9) | 3,123 (66.3) | 3,522 (74.8) | 3,317 (70.5) |
| | 부산권 | 3,436 (59.8) | 3,042 (52.9) | 3,358 (58.4) | 3,593 (62.5) |

15)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가입정도를 살펴본 결과 노동조합이 없다는 응답이 54.5%를 차지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도 31.2%로 많이 나타났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4.3%에 불과했다.

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이 약 10%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10.6%)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권(20.4%)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4〉 현재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가입률

(단위 : 명, %)

| 구 분 | | 노동조합이 없음 | 노동조합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 노동 조합에 가입하였음 | 잘모름 |
|-----------|-----|------------------|----------------------------|----------------------------------|-----------------|------------------|
| 전체 | | 22,045 (54.5) | 508 (1.3) | 1,833 (4.5) | 3,449 (8.5) | 12,628 (31.2) |
| 성별 | 남성 | 11,706 (60.2) | 213 (1.1) | 527 (2.7) | 660 (3.4) | 6,338 (32.6) |
| | 여성 | 10,339 (49.2) | 294 (1.4) | 1,306 (6.2) | 2,789 (13.3) | 6,290 (29.9)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1,182 (52.3) | 293 (1.4) | 1,085 (5.1) | 2,277 (10.6) | 6,557 (30.6) |
| | 공업 | 9,250 (57.3) | 152 (0.9) | 634 (3.9) | 1,051 (6.5) | 5,043 (31.3) |
| | 기타 | 1,614 (54.9) | 63 (2.2) | 114 (3.9) | 121 (4.1) | 1,028 (35.0) |
| 권역별 | 수도권 | 9,740 (51.8) | 303 (1.6) | 647 (3.4) | 1,122 (6.0) | 7,009 (37.2) |
| | 중부권 | 3,498 (59.0) | 59 (1.0) | 257 (4.3) | 605 (10.2) | 1,510 (25.5) |
| | 호남권 | 2,913 (53.3) | 19 (0.3) | 392 (7.2) | 512 (9.4) | 1,633 (29.9) |
| | 대구권 | 2,551 (55.5) | 48 (1.0) | 232 (5.0) | 938 (20.4) | 832 (18.1) |
| | 부산권 | 3,343 (59.2) | 79 (1.4) | 305 (5.4) | 272 (4.8) | 1,644 (29.1) |

16) 현재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무내용 습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22.5%), 상사-동료와의 관계(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0.9%)과 여성(42.1%) 모두 업무내용 습득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은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22.5%), 상사-동료와의 관계(14.5%), 적성/흥미와 불일치(11.1%)의 순으로 여성은 상사-동료와의 관계(17.1%),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16.3%), 적성/흥미와 불일치(11.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에서 업무내용 습득(40.8%)으로 응답한 고졸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중 특이할 만한 점은 다른 모든 계열에서는 업무 내용 습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기타계열에서는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28.2%)와 업무내용 습득(28.1%)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업무내용 습득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상사-동료와의 관계 순으로 현재 일자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5〉 현재 일자리 적응의 어려운 점

(단위 : 명, %)

| 구 분 | | 업무내용 습득 | 상사·동 료와의 관계 | 적성/ 흥미와 불일치 | 기대했던 수준과의 격차 | 차별성 학력· 지역등 | 기타 | 없음 |
|-----|----|------------------|-------------------|-------------------|--------------------|-------------------|--------------|-----------------|
| 전체 | | 15,042 (36.7) | 5,929 (14.5) | 4,535 (11.1) | 9,205 (22.5) | 855 (2.1) | 193 (0.5) | 5,177 (12.6) |
| 성별 | 남성 | 6,025 (30.9) | 2,265 (11.6) | 2,114 (10.8) | 5,710 (29.3) | 424 (2.2) | 137 (0.7) | 2,835 (14.5) |
| | 여성 | 9,016 (42.1) | 3,663 (17.1) | 2,421 (11.3) | 3,496 (16.3) | 431 (2.0) | 57 (0.3) | 2,341 (10.9) |

| | | | | | | | | |
|-----------|-----|-----------------|-----------------|-----------------|-----------------|--------------|--------------|-----------------|
| 전공 유형별 | 상업 | 8,878 (40.8) | 3,496 (16.1) | 2,527 (11.6) | 4,016 (18.4) | 462 (2.1) | 89 (0.4) | 2,303 (10.6) |
| | 공업 | 5,330 (32.9) | 1,963 (12.1) | 1,832 (11.3) | 4,353 (26.9) | 361 (2.2) | 72 (0.4) | 2,291 (14.1) |
| | 기타 | 834 (28.1) | 470 (15.9) | 176 (5.9) | 836 (28.2) | 32 (1.1) | 32 (1.1) | 582 (19.7) |
| 권역별 | 수도권 | 6,259 (33.0) | 2,611 (13.8) | 1,982 (10.4) | 4,284 (22.6) | 500 (2.6) | 133 (0.7) | 3,219 (17.0) |
| | 중부권 | 2,696 (45.0) | 906 (15.1) | 791 (13.2) | 1,055 (17.6) | 113 (1.9) | 14 (0.2) | 410 (6.9) |
| | 호남권 | 1,978 (35.8) | 894 (16.2) | 601 (10.9) | 1,370 (24.8) | 22 (0.4) | 25 (0.5) | 630 (11.4) |
| | 대구권 | 1,759 (37.4) | 733 (15.6) | 539 (11.5) | 1,014 (21.5) | 103 (2.2) | 17 (0.4) | 541 (11.5) |
| | 부산권 | 2,350 (41.0) | 784 (13.7) | 622 (10.9) | 1,483 (25.9) | 117 (2.0) | 3 (0.1) | 376 (6.6) |

17) 대학진학의 필요성 여부

2011년 고졸자에게 대학진학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진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진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고졸자가 많았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대학진학의 필요성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공업계열에서 대학진학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고졸자가 40.2% 타 계열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76.2%), 부산권(72.8%)에서 대학진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고졸자가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다른 권역에 비해 대학진학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고졸자가 43.4%로 높게 나타났다.

〈표Ⅲ-16〉 대학진학 필요성 느낀 유무

(단위 : 명, %)

| 구 분 | | 있다 | 없다 | 합계 |
|-----------|-----|------------------|------------------|-------------------|
| 전체 | | 15,214 (37.1) | 25,809 (62.9) | 41,023 (100.0) |
| 성별 | 남성 | 7,149 (36.5) | 12,438 (63.5) | 19,587 (100.0) |
| | 여성 | 8,065 (37.6) | 13,371 (62.4) | 21,435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7,772 (35.7) | 14,010 (64.3) | 21,782 (100.0) |
| | 공업 | 6,549 (40.2) | 9,724 (59.8) | 16,273 (100.0) |
| | 기타 | 893 (30.1) | 2,075 (69.9) | 2,968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8,274 (43.4) | 10,781 (56.6) | 19,055 (100.0) |
| | 중부권 | 2,215 (37.0) | 3,775 (63.0) | 5,990 (100.0) |
| | 호남권 | 1,316 (23.8) | 4,204 (76.2) | 5,520 (100.0) |
| | 대구권 | 1,846 (39.2) | 2,861 (60.8) | 4,707 (100.0) |
| | 부산권 | 1,564 (27.2) | 4,187 (72.8) | 5,751 (100.0) |

18) 대학진학의 필요성 느낀 이유

2011년 고졸자에게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적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많았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31.4%),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14.8%), 승진 인사상의 필요 때문에(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32.9%)가 여성은 전문적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서(40.2%)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은 전문적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서(40.0%),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30.0%),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13.1%)의 순으로 공업계열 및 기타계열은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나 계열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Ⅲ-17〉 유형별 대학진학 필요성을 느낀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성 별 | | 전공유형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 1,190 (16.6) | 1,058 (13.2) | 1,013 (13.1) | 1,064 (16.3) | 171 (19.1) | 2,248 (14.8) |
|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 2,350 (32.9) | 2,418 (30.1) | 2,318 (30.0) | 2,135 (32.6) | 315 (35.3) | 4,769 (31.4) |
| 승진 등 인사상의 필요 때문에 | 854 (11.9) | 786 (9.8) | 816 (10.6) | 779 (11.9) | 45 (5.0) | 1,640 (10.8) |
| 전문적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서 | 2,223 (31.1) | 3,228 (40.2) | 3,093 (40.0) | 2,061 (31.5) | 296 (33.1) | 5,451 (35.9) |
|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 346 (4.8) | 421 (5.2) | 353 (4.6) | 367 (5.6) | 46 (5.2) | 766 (5.1) |
| 기타 | 184 (2.6) | 82 (1.0) | 106 (1.4) | 139 (2.1) | 20 (2.3) | 266 (1.8) |
| 없음 | | 29 (0.4) | 29 (0.4) | | | 29 (0.2) |

2. 졸업 후 경험 일자리

1)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유무

2011년 고졸자의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일자리를 제외한 경험한 일자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자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고졸자가 12.0%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4.1%)이 여성(9.8%)보다 약 4.3%p 가량 일자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13.9%), 부산권(12.2%), 중부권(10.5%)의 순으로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남권(9.4%), 대구권(9.7%)의 순으로 일자리 경험이 있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8〉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유무

| 구 분 | | (단위 : 명, %)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전체 | | 6,499 (12.0) | 47,545 (88.0) | 54,044 (100.0) |
| 성별 | 남성 | 3,946 (14.1) | 23,970 (85.9) | 27,916 (100.0) |
| | 여성 | 2,554 (9.8) | 23,575 (90.2) | 26,129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770 (10.4) | 23,923 (89.6) | 26,693 (100.0) |
| | 공업 | 3,037 (13.4) | 19,665 (86.6) | 22,702 (100.0) |
| | 기타 | 692 (14.9) | 3,957 (85.1) | 4,649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3,417 (13.9) | 21,204 (86.1) | 24,621 (100.0) |
| | 중부권 | 854 (10.5) | 7,279 (89.5) | 8,133 (100.0) |
| | 호남권 | 753 (9.4) | 7,224 (90.6) | 7,976 (100.0) |
| | 대구권 | 579 (9.7) | 5,403 (90.3) | 5,982 (100.0) |
| | 부산권 | 898 (12.2) | 6,434 (87.8) | 7,332 (100.0) |

2) 경험한 일자리 진출분야(산업)

고졸자의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의 진출 분야를 산업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22.2%), 도매 및 소매업(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19〉 경험 일자리 진출분야(산업대분류)

(단위 : %)

| 산업대분류 | 성별 | | 전공유형별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0.8 | 0.2 | | 1.0 | 0.7 | 0.5 |
| 제조업 | 36.2 | 38.5 | 33.4 | 43.9 | 21.8 | 37.1 |
| 건설업 | 3.4 | 1.5 | 2.3 | 3.4 | 0.6 | 2.6 |
| 도매 및 소매업 | 15.0 | 20.4 | 18.6 | 11.6 | 36.0 | 17.1 |
| 운수업 | 1.1 | 2.0 | 1.9 | 1.1 | 0.7 | 1.4 |
| 숙박 및 음식점업 | 24.7 | 18.2 | 22.2 | 21.4 | 25.5 | 22.2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0.9 | 2.4 | 1.9 | 1.1 | 1.7 | 1.5 |
| 금융 및 보험업 | | 1.3 | 1.1 | | | 0.5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0.2 | 0.1 | | | 0.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0.7 | 2.6 | 1.9 | 1.1 | 1.1 | 1.4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7.0 | 2.7 | 3.4 | 7.1 | 4.8 | 5.3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2 | 0.6 | 0.5 | 1.5 | 0.4 | 1.0 |
| 교육 서비스업 | | 0.6 | 0.1 | 0.4 | | 0.2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0.1 | 5.6 | 4.4 | 0.6 | 0.7 | 2.3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7.0 | 2.5 | 6.0 | 4.5 | 5.4 | 5.3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9 | 0.8 | 2.0 | 1.2 | 0.7 | 1.5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6.2%), 여성(38.5%) 모두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졸자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24.7%), 도매 및 소매업(15.0%)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20.4%), 숙박 및 음식점업(18.2%)에 종사하는 고졸자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상업계열과 공업계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계열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경험 일자리 진출분야(직업)

고졸자의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의 진출 분야를 직업중분류별로 살펴보면, 음식 서비스 관련직(20.2%)이 가장 많고, 전기·전자 관련직(16.9%), 영업 및 판매 관련직(15.7%)의 순으로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0〉 경험 일자리 진출분야(직업중분류)

(단위 : %)

| 직업중분류 | 성별 | | 전공유형별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경영·회계·사무관련직 | 2.4 | 23.0 | 19.4 | 4.2 | 1.7 | 10.5 |
| 금융·보험 관련직 | | 1.3 | 1.1 | | | 0.5 |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0.6 | 0.5 | | | 0.2 |
| 보건·의료 관련직 | 0.1 | 4.3 | 3.2 | 0.6 | 0.7 | 1.7 |
|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관련직 | 0.6 | 0.5 | 0.5 | .7 | | 0.5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5.9 | | .8 | 5.8 | 5.4 | 3.6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12.5 | 20.5 | 16.9 | 11.7 | 28.4 | 15.7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5 | 1.3 | 0.6 | 2.8 | 4.3 | 2.0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관련직 | 7.2 | 3.0 | 7.2 | 4.1 | 5.2 | 5.5 |
| 음식 서비스 관련직 | 24.2 | 14.2 | 19.8 | 20.9 | 19.3 | 20.2 |
| 건설 관련직 | 2.0 | | 0.1 | 2.2 | 1.1 | 1.2 |
| 기계 관련직 | 14.1 | 2.2 | 3.9 | 15.7 | 4.1 | 9.4 |
| 재료 관련직 | 1.0 | 0.5 | | 1.8 | | 0.8 |

| | | | | | | |
|------------------------|------|------|------|------|------|------|
| 화학 관련직 | 1.6 | | 0.3 | 1.8 | | 1.0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7 | | | 0.9 | | 0.4 |
| 전기·전자 관련직 | 13.1 | 22.8 | 20.0 | 15.9 | 8.6 | 16.9 |
| 정보통신 관련직 | 1.4 | | 1.9 | | | 0.8 |
| 식품가공 관련직 | 0.2 | 0.5 | 0.2 | 0.1 | 2.1 | 0.3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9.7 | 5.0 | 3.5 | 9.6 | 18.5 | 7.9 |
| 농림어업 관련직 | 1.1 | 0.2 | | 1.4 | 0.7 | 0.7 |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여성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음식 서비스 관련직(24.2%)에 종사하는 고졸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열별로 일자리 진출분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업계열에서는 전기·전자 관련직(2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서비스 관련직(19.8%), 경영·회계·사무관련직(19.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업계열에서는 음식 서비스 관련직(20.9%)가 가장 높고 전기·전자 관련직(15.9%), 기계 관련직(15.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계열에서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28.4%로 가장 높았고 음식 서비스 관련직(19.3%),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18.5%)의 순으로 일자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경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경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 경험자가 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이 전체 취업자의 55.3%, 상용직 34.1%, 일용직 10.6%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일자리와 비교하여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45.0%)이 남성(27.1%)보다 상용직이 비율이 17.9%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임시직 상용직, 일용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부산권의 상용직 비율이 63.5%로 타 권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1〉 경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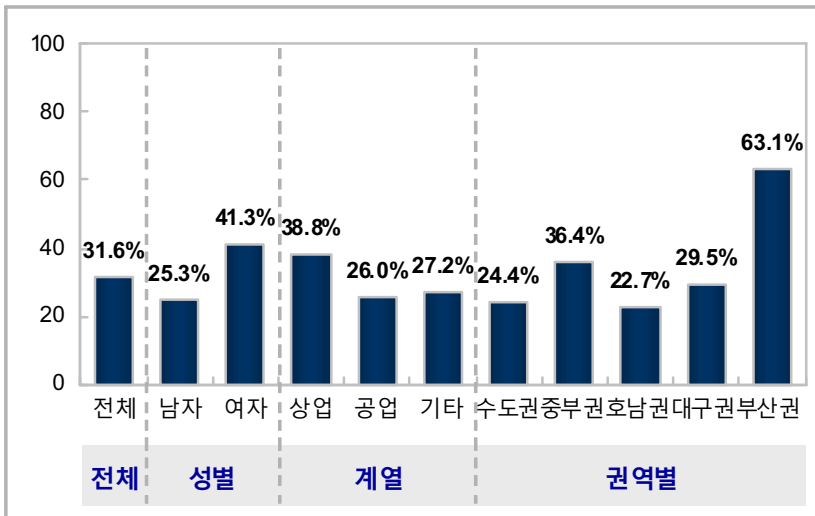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 분 | | 임금근로자 | | | |
|-----------|-----|------------------|-----------------|-----------------|---------------|
| | |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 전체 | | 6,499 (100.0) | 2,219 (34.1) | 3,594 (55.3) | 687 (10.6) |
| 성별 | 남성 | 3,946 (100.0) | 1,070 (27.1) | 2,386 (60.5) | 490 (12.4) |
| | 여성 | 2,554 (100.0) | 1,149 (45.0) | 1,207 (47.3) | 197 (7.7)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770 (100.0) | 1,159 (41.9) | 1,408 (50.8) | 203 (7.3) |
| | 공업 | 3,037 (100.0) | 867 (28.6) | 1,770 (58.3) | 399 (13.2) |
| | 기타 | 692 (100.0) | 192 (27.7) | 416 (60.1) | 84 (12.2) |
| 권역별 | 수도권 | 3,417 (100.0) | 943 (27.6) | 2,053 (60.1) | 421 (12.3) |
| | 중부권 | 854 (100.0) | 356 (41.7) | 375 (44.0) | 122 (14.3) |
| | 호남권 | 753 (100.0) | 179 (23.8) | 502 (66.7) | 71 (9.4) |
| | 대구권 | 579 (100.0) | 171 (29.5) | 366 (63.2) | 42 (7.3) |
| | 부산권 | 898 (100.0) | 570 (63.5) | 297 (33.1) | 31 (3.5) |

5) 경험 일자의 정규직 비율

2011년 고졸자의 경험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비율은 31.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41.3%, 남성이 25.3%로 여성이 약 16%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일자리에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유형별로는 상업계열의 정규직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고, 공업계열 및 기타계열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26.0%와 27.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부산권(63.1%)의 정규직 비율이 타 권역의 정규직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남권의 정규직 비율은 22.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서도 24.4%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Ⅲ-4] 특성별 경험 일자리 정규직 비율

6) 경험 일자리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

경험 일자리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1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55.5%로 절반 이상의 고졸자들이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자리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남성(53.0%)보다 여성(59.1%)이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50%가 넘는 학생들이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자리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2〉 경험 일자리의 종사자 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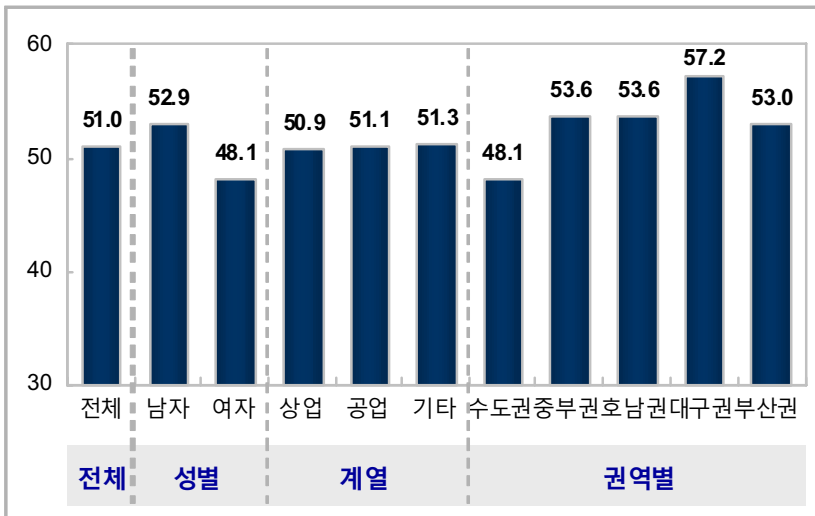
| 사업체 규모 | 성별 | | 전공유형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1-4명 | 1,130 (29.2) | 624 (24.6) | 792 (28.8) | 758 (25.3) | 203 (30.7) | 1,754 (27.4) |
| 5-9명 | 500 (12.9) | 453 (17.9) | 495 (18.0) | 379 (12.6) | 79 (12.0) | 953 (14.9) |
| 10-29명 | 423 (10.9) | 420 (16.6) | 357 (13.0) | 410 (13.7) | 76 (11.4) | 843 (13.2) |
| 30-49명 | 342 (8.8) | 122 (4.8) | 135 (4.9) | 269 (9.0) | 59 (8.9) | 463 (7.2) |
| 50-99명 | 538 (13.9) | 47 (1.9) | 145 (5.3) | 385 (12.8) | 55 (8.3) | 585 (9.1) |
| 100-299명 | 532 (13.7) | 236 (9.3) | 289 (10.5) | 387 (12.9) | 93 (14.0) | 769 (12.0) |
| 300-499명 | 226 (5.8) | 157 (6.2) | 136 (4.9) | 223 (7.4) | 24 (3.7) | 383 (6.0) |
| 500-999명 | 80 (2.1) | 143 (5.6) | 144 (5.2) | 64 (2.1) | 16 (2.4) | 223 (3.5) |
| 1,000명 이상 | 106 (2.7) | 328 (13.0) | 255 (9.3) | 122 (4.1) | 57 (8.7) | 434 (6.8) |

7) 경험 일자리 주당평균근로시간

2011년도 고졸자의 경험 일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1.0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2.9시간으로 여성(48.1시간)보다 4.8시간 가량 평균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는 기타계열이 51.3시간으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업계열이 50.9시간, 공업계열 51.1시간으로 기타계열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권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2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남권과 중부권이 53.6시간으로 길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은 48.1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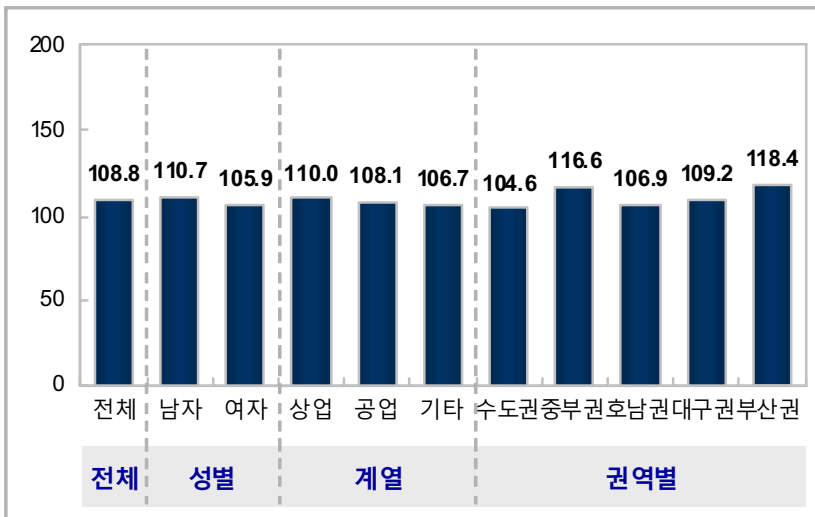
[그림 III-5] 경험 일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 (단위 : 시간)

8) 경험 일자리의 월평균소득

2011년도 고졸자들이 경험 일자리에서 받은 월평균소득은 108만 8천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10만 7천원으로 여성(105만 9천원)보다 평균 4만 8천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는 상업계열(110만 원), 공업계열(108만 1천원), 기타계열(106만 7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권이 118만 4천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 순위로는 중부권(116만 6천원)이 따랐다. 수도권은 평균 근로 소득은 104만 6천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Ⅲ-6] 경험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9) 경험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2011년 고졸자들의 경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도(66.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 모두 비슷한 만족도를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3〉 경험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

| 구 분 |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
| 전체 | | 491 (7.6) | 1,684 (25.9) | 2,518 (38.7) | 1,551 (23.9) | 255 (3.9) |
| 성별 | 남성 | 348 (8.8) | 1,013 (25.7) | 1,502 (38.1) | 908 (23.0) | 175 (4.4) |
| | 여성 | 143 (5.6) | 671 (26.3) | 1,016 (39.8) | 643 (25.2) | 80 (3.1)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53 (5.5) | 763 (27.5) | 1,062 (38.3) | 711 (25.7) | 81 (2.9) |
| | 공업 | 242 (8.0) | 849 (27.9) | 1,160 (38.2) | 618 (20.4) | 168 (5.5) |
| | 기타 | 96 (13.9) | 72 (10.4) | 297 (42.9) | 222 (32.1) | 5 (0.8) |
| 권역별 | 수도권 | 338 (9.9) | 939 (27.5) | 1,129 (33.0) | 807 (23.6) | 204 (6.0) |
| | 중부권 | 35 (4.1) | 195 (22.8) | 381 (44.6) | 216 (25.3) | 27 (3.2) |
| | 호남권 | 29 (3.8) | 143 (19.0) | 426 (56.5) | 154 (20.4) | 2 (0.3) |
| | 대구권 | 12 (2.1) | 122 (21.1) | 209 (36.1) | 221 (38.2) | 15 (2.5) |
| | 부산권 | 78 (8.7) | 285 (31.8) | 375 (41.7) | 153 (17.1) | 7 (0.8) |

10) 경험 일자리 업무내용과 자신의 전공 비교

경험 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였을 때 일치도에 대하여 잘 맞지 않음(30.0%)과 전혀 맞지 않음(36.6%) 등 맞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66.6%)이 그런대로 맞음(23.9%), 잘 맞음(7.9%), 매우 잘 맞음(1.6%) 등 맞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33.4)% 보다 약 33.2%p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 모두 자신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유형별에서는 기타계열(63.1%)이 권역별에서는 대구권(55.7%)이 자신의 업무내용과 전공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Ⅲ-24〉 경험일자리 업무내용과 자신의 전공 비교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맞지 않음 | 잘 맞지 않음 | 그런대로 맞음 | 잘 맞음 | 매우 잘맞음 |
|-----------|-----|-----------------|-----------------|-----------------|---------------|--------------|
| 전체 | | 2,363 (36.6) | 1,939 (30.0) | 1,545 (23.9) | 510 (7.9) | 102 (1.6) |
| 성별 | 남성 | 1,638 (41.9) | 1,157 (29.6) | 770 (19.7) | 276 (7.1) | 64 (1.6) |
| | 여성 | 725 (28.4) | 782 (30.6) | 775 (30.3) | 234 (9.2) | 38 (1.5) |
| 전공 유형별 | 상업 | 864 (31.2) | 837 (30.2) | 741 (26.7) | 277 (10.0) | 51 (1.8) |
| | 공업 | 1,063 (35.5) | 965 (32.2) | 733 (24.5) | 193 (6.4) | 43 (1.4) |
| | 기타 | 436 (63.1) | 137 (19.8) | 71 (10.2) | 40 (5.8) | 8 (1.2) |
| 권역별 | 수도권 | 1,330 (39.4) | 1,059 (31.4) | 714 (21.1) | 241 (7.1) | 33 (1.0) |
| | 중부권 | 301 (35.2) | 251 (29.4) | 206 (24.2) | 67 (7.9) | 28 (3.3) |
| | 호남권 | 141 (18.7) | 260 (34.6) | 282 (37.5) | 62 (8.3) | 7 (0.9) |
| | 대구권 | 323 (55.7) | 100 (17.3) | 85 (14.8) | 59 (10.2) | 12 (2.0) |
| | 부산권 | 269 (30.0) | 269 (29.9) | 257 (28.6) | 81 (9.0) | 22 (2.5) |

11) 경험 일자리 그만둔 주된 이유

2011년 고졸자들의 경험 일자리를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 불만족(22.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수가 낮아서(11.0%),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10.1%), 건강이 좋지 않아서(10.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 및 직장의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는 12.5%에 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 불만족이란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지만 그 비율은 여성(14.1%)보다 남성(27.2%)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보수가 낮아서(12.6%),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1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준비(13.9%), 건강이 좋지 않아서(11.9%)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나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보수 이외의 근로조건 불만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 순위는 상업계열에서는 보수가 낮아서(13.0%),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11.6%), 건강이 좋지 않아서(11.9%),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10.4%)의 순으로 공업계열에서는 보수가 낮아서(11.1%), 건강이 좋지 않아서(10.9%),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9.8%),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9.5%)의 순으로 기타계열에서는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13.8%),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12.5%),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7.7%), 계약기간이 끝나서(7.3%)의 순으로 경험일자리를 그만둔 사유가 높게 나타나 계열별로 조금씩 다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Ⅲ-25〉 경험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성별 | | 전공유형 | | | 전체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 계약기간이 끝나서 | 126 (3.3) | 58 (2.3) | 73 (2.7) | 60 (2.0) | 50 (7.3) | 184 (2.9) |
| 직장의 휴/폐업 등으로 | 220 (5.7) | 184 (7.4) | 232 (8.6) | 139 (4.7) | 32 (4.7) | 404 (6.4) |
|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 102 (2.7) | 100 (4.0) | 98 (3.6) | 91 (3.1) | 13 (1.9) | 202 (3.2) |
| 보수가 낮아서 | 485 (12.6) | 213 (8.5) | 351 (13.0) | 328 (11.1) | 18 (2.7) | 698 (11.0) |
|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 불만족 | 1,048 (27.2) | 353 (14.1) | 477 (17.7) | 720 (24.3) | 204 (29.7) | 1,402 (22.1) |
| 차별을 받아서 | 95 (2.5) | 94 (3.8) | 122 (4.5) | 61 (2.1) | 6 (0.8) | 188 (3.0) |
|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 108 (2.8) | 277 (11.1) | 146 (5.4) | 154 (5.2) | 86 (12.5) | 385 (6.1) |
|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 231 (6.0) | 346 (13.9) | 192 (7.1) | 291 (9.8) | 95 (13.8) | 577 (9.1) |
|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 | 143 (3.7) | 27 (1.1) | 19 (0.7) | 98 (3.3) | 53 (7.7) | 169 (2.7) |
|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 173 (4.5) | 276 (11.0) | 280 (10.4) | 165 (5.5) | 4 (0.6) | 449 (7.1) |
|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 409 (10.6) | 230 (9.2) | 312 (11.6) | 283 (9.5) | 44 (6.4) | 639 (10.1) |
| 건강이 좋지 않아서 | 344 (8.9) | 298 (11.9) | 290 (10.7) | 324 (10.9) | 29 (4.2) | 643 (10.1) |
|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 122 (3.2) | 42 (1.7) | 74 (2.8) | 45 (1.5) | 44 (6.4) | 164 (2.6) |
| 기타 | 250 (6.5) | | 32 (1.2) | 210 (7.1) | 8 (1.1) | 250 (3.9) |

제4장

고졸자의 학교생활 및 일자리 준비

1. 학교생활

1) 전문계열 고등학교 선택 이유

2011년 고졸자의 전문계열 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계고 진학의 주된 이유는 '성적에 맞춰서'가 36.6%가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35.4%),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2.0%)이 여성(30.8%)보다 성적에 맞춰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약 11.2%p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41.5%)은 남성(29.6%)보다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약 11.9%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에서는 졸업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38.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업계열과 기타계열에서는 성적에 맞춰서의 응답이 각각 39.8%,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과 부산권에서는 성적에 맞춰서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 호남권, 대구권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0.6%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Ⅳ-1〉 전문계열 고등학교 선택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 성적에 맞춰서 |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 | 친구, 선배의 권유 | 대학진학 에 유리할 것 같아서 | 졸업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 미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 기타 | 전체 |
|-----------|-----|------------------|-------------------|------------------|------------------------|-------------------------|-------------------------|----------------|-------------------|
| 전체 | | 19,755 (36.6) | 7,716 (14.3) | 1,979 (3.7) | 3,692 (6.8) | 19,082 (35.4) | 459 (0.8) | 1,293 (2.4) | 53,975 (100.0) |
| 성별 | 남성 | 11,704 (42.0) | 4,432 (15.9) | 1,186 (4.3) | 1,329 (4.8) | 8,247 (29.6) | 319 (1.1) | 634 (2.3) | 27,853 (100.0) |
| | 여성 | 8,051 (30.8) | 3,284 (12.6) | 792 (3.0) | 2,363 (9.0) | 10,834 (41.5) | 140 (0.5) | 658 (2.5) | 26,122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8,967 (33.6) | 3,657 (13.7) | 766 (2.9) | 2,243 (8.4) | 10,222 (38.3) | 250 (0.9) | 580 (2.2) | 26,687 (100.0) |
| | 공업 | 9,037 (39.8) | 3,352 (14.8) | 943 (4.2) | 1,210 (5.3) | 7,615 (33.6) | 99 (0.4) | 435 (1.9) | 22,691 (100.0) |
| | 기타 | 1,751 (38.1) | 707 (15.4) | 270 (5.9) | 239 (5.2) | 1,245 (27.1) | 109 (2.4) | 277 (6.0) | 4,597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8,108 (33.0) | 3,383 (13.8) | 1,102 (4.5) | 2,598 (10.6) | 8,347 (34.0) | 199 (0.8) | 835 (3.4) | 24,573 (100.0) |
| | 중부권 | 3,576 (44.0) | 1,211 (14.9) | 309 (3.8) | 370 (4.6) | 2,529 (31.1) | 20 (0.2) | 111 (1.4) | 8,126 (100.0) |
| | 호남권 | 2,533 (31.8) | 1,337 (16.8) | 102 (1.3) | 260 (3.3) | 3,483 (43.7) | 104 (1.3) | 153 (1.9) | 7,972 (100.0) |
| | 대구권 | 2,232 (37.4) | 714 (12.0) | 162 (2.7) | 256 (4.3) | 2,449 (41.0) | 41 (0.7) | 118 (2.0) | 5,972 (100.0) |
| | 부산권 | 3,307 (45.1) | 1,071 (14.6) | 304 (4.1) | 207 (2.8) | 2,273 (31.0) | 95 (1.3) | 76 (1.0) | 7,332 (100.0) |

2)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성적에 맞춰서'가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31.7%),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1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성적에 맞춰서'가 34.2%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Ⅳ-2〉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 직업 및 취업 전망이 밝아서 | 성적에 맞춰서 |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로 | 친구, 선배의 권유로 |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때문에 | 기타 | 전체 |
|-----------|-----|--------------------------|------------------|----------------------------|---------------------|-------------------|--------------------------|--------------|-------------------|
| 전체 | | 17,039 (31.7) | 17,335 (32.3) | 9,436 (17.6) | 7,016 (13.1) | 1,961 (3.7) | 553 (1.0) | 353 (0.7) | 53,691 (100.0) |
| 성별 | 남성 | 8,155 (29.4) | 9,484 (34.2) | 4,716 (17.0) | 3,949 (14.2) | 951 (3.4) | 367 (1.3) | 119 (0.4) | 27,742 (100.0) |
| | 여성 | 8,883 (34.2) | 7,851 (30.3) | 4,720 (18.2) | 3,067 (11.8) | 1,009 (3.9) | 186 (0.7) | 234 (0.9) | 25,949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8,754 (33.0) | 7,963 (30.0) | 5,043 (19.0) | 3,283 (12.4) | 998 (3.8) | 207 (0.8) | 253 (1.0) | 26,500 (100.0) |
| | 공업 | 7,170 (31.8) | 7,538 (33.4) | 3,457 (15.3) | 3,210 (14.2) | 768 (3.4) | 328 (1.5) | 83 (0.4) | 22,553 (100.0) |
| | 기타 | 1,115 (24.0) | 1,834 (39.5) | 936 (20.2) | 523 (11.3) | 195 (4.2) | 18 (0.4) | 17 (0.4) | 4,638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6,899 (28.4) | 7,920 (32.6) | 4,834 (19.9) | 3,160 (13.0) | 933 (3.8) | 361 (1.5) | 198 (0.8) | 24,305 (100.0) |
| | 중부권 | 2,061 (25.4) | 2,992 (36.8) | 1,552 (19.1) | 1,125 (13.8) | 318 (3.9) | 57 (0.7) | 20 (0.3) | 8,126 (100.0) |
| | 호남권 | 3,391 (42.6) | 2,300 (28.9) | 944 (11.9) | 1,045 (13.1) | 193 (2.4) | 24 (0.3) | 71 (0.9) | 7,968 (100.0) |
| | 대구권 | 2,156 (36.1) | 1,753 (29.3) | 822 (13.8) | 872 (14.6) | 283 (4.7) | 62 (1.0) | 26 (0.4) | 5,974 (100.0) |
| | 부산권 | 2,531 (34.6) | 2,370 (32.4) | 1,283 (17.5) | 814 (11.1) | 234 (3.2) | 48 (0.7) | 38 (0.5) | 7,318 (100.0) |

3) 동일 전공 선택 여부

전공을 다시 선택하게 된다면 동일 전공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고졸자는 54.6%, 아니다 라고 응답한 고졸자는 45.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8.2%)이 남성(51.2%)보다 동일 전공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유형별로는 상업 계열이 57.2%로 동일전공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권역별로는 대구권의 고졸자들이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63.0%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Ⅳ-3〉 동일전공 선택 여부

(단위 : 명, %)

| 구 분 | | 그렇다 | 아니다 | 합계 |
|-----------|-----|------------------|------------------|-------------------|
| 전체 | | 29,496 (54.6) | 24,549 (45.4) | 54,044 (100.0) |
| 성별 | 남성 | 14,298 (51.2) | 13,618 (48.8) | 27,916 (100.0) |
| | 여성 | 15,198 (58.2) | 10,931 (41.8) | 26,129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5,260 (57.2) | 11,433 (42.8) | 26,693 (100.0) |
| | 공업 | 11,769 (51.8) | 10,934 (48.2) | 22,702 (100.0) |
| | 기타 | 2,467 (53.1) | 2,182 (46.9) | 4,649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2,477 (50.7) | 12,144 (49.3) | 24,621 (100.0) |
| | 중부권 | 4,432 (54.5) | 3,700 (45.5) | 8,133 (100.0) |
| | 호남권 | 4,619 (57.9) | 3,357 (42.1) | 7,976 (100.0) |
| | 대구권 | 3,768 (63.0) | 2,214 (37.0) | 5,982 (100.0) |
| | 부산권 | 4,199 (57.3) | 3,133 (42.7) | 7,332 (100.0) |

4)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5.4%로 절반이 넘게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19.7%), 임금 및 근로조건이 타 전공에 비해 낮아서(13.0%)의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V-4〉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 적성에 맞지 않아서 |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 임금 및 근로조건이 타전공에 비해 낮아서 | 힘든 전공이기 때문에 | 기타 | 전체 |
|-----------|-----|------------------|--------------------|------------------------------------|-------------------|--------------|-------------------|
| 전체 | | 13,471 (55.4) | 4,787 (19.7) | 3,170 (13.0) | 2,146 (8.8) | 765 (3.1) | 24,339 (100.0) |
| 성별 | 남성 | 7,127 (52.8) | 2,814 (20.8) | 1,811 (13.4) | 1,414 (10.5) | 334 (2.5) | 13,500 (100.0) |
| | 여성 | 6,344 (58.5) | 1,973 (18.2) | 1,360 (12.6) | 732 (6.7) | 431 (4.0) | 10,840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6,593 (58.2) | 2,100 (18.6) | 1,473 (13.0) | 760 (6.7) | 399 (3.5) | 11,333 (100.0) |
| | 공업 | 5,795 (53.4) | 2,039 (18.8) | 1,476 (13.6) | 1,239 (11.4) | 296 (2.7) | 10,844 (100.0) |
| | 기타 | 1,083 (49.9) | 648 (29.9) | 221 (10.2) | 147 (6.8) | 70 (3.2) | 2,170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7,236 (60.4) | 1,901 (15.9) | 1,409 (11.8) | 1,030 (8.6) | 395 (3.3) | 11,972 (100.0) |
| | 중부권 | 2,062 (55.9) | 948 (25.7) | 409 (11.1) | 201 (5.4) | 71 (1.9) | 3,696 (100.0) |
| | 호남권 | 1,384 (41.5) | 721 (21.6) | 609 (18.3) | 491 (14.7) | 131 (3.9) | 3,339 (100.0) |
| | 대구권 | 1,298 (58.8) | 461 (20.9) | 163 (7.4) | 179 (8.1) | 105 (4.7) | 2,207 (100.0) |
| | 부산권 | 1,490 (47.5) | 756 (24.1) | 580 (18.5) | 244 (7.8) | 63 (2.0) | 3,133 (100.0) |

5) 출신학교의 교육 만족도

출신학교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5점 만점에 3.3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Ⅳ-5〉 출신 고등학교 교육 만족도

(단위: 점)

| 구 분 | | 전반적 교육과정 운영 | 수업내용 및 기자재 활용 | 학교의 시설 및 환경 | 교육 및 지도방식 |
|-----------|-----|-------------------|------------------|----------------|--------------|
| 전체 | | 3.36 | 3.39 | 3.44 | 3.48 |
| 성별 | 남성 | 3.36 | 3.40 | 3.45 | 3.53 |
| | 여성 | 3.36 | 3.38 | 3.42 | 3.43 |
| 전공 유형별 | 상업 | 3.35 | 3.38 | 3.41 | 3.43 |
| | 공업 | 3.36 | 3.39 | 3.45 | 3.51 |
| | 기타 | 3.46 | 3.49 | 3.48 | 3.62 |
| 권역별 | 수도권 | 3.29 | 3.35 | 3.42 | 3.46 |
| | 중부권 | 3.37 | 3.44 | 3.45 | 3.49 |
| | 호남권 | 3.50 | 3.44 | 3.48 | 3.49 |
| | 대구권 | 3.33 | 3.38 | 3.34 | 3.51 |
| | 부산권 | 3.49 | 3.45 | 3.49 | 3.52 |

2. 취업목표

취업목표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말한다.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졸업 전 취업목표

<표IV-6>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1년 고졸자 중 43.6%가 취업목표를 설정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49.0%로 남성(38.5%)에 비해 취업목표 설정 비율이 약 10.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6〉 취업목표 경험 유무

(단위 : 명, %)

| 구 분 | | 있음 | 없음 | 전체 |
|-----------|-----|------------------|------------------|-------------------|
| 전체 | | 23,552 (43.6) | 30,492 (56.4) | 54,044 (100.0) |
| 성별 | 남성 | 10,757 (38.5) | 17,159 (61.5) | 27,916 (100.0) |
| | 여성 | 12,795 (49.0) | 13,334 (51.0) | 26,129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2,372 (46.3) | 14,321 (53.7) | 26,693 (100.0) |
| | 공업 | 9,144 (40.3) | 13,559 (59.7) | 22,702 (100.0) |
| | 기타 | 2,037 (43.8) | 2,612 (56.2) | 4,649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1,834 (48.1) | 12,786 (51.9) | 24,621 (100.0) |
| | 중부권 | 3,414 (42.0) | 4,719 (58.0) | 8,133 (100.0) |
| | 호남권 | 2,528 (31.7) | 5,448 (68.3) | 7,976 (100.0) |
| | 대구권 | 3,364 (56.2) | 2,619 (43.8) | 5,982 (100.0) |
| | 부산권 | 2,412 (32.9) | 4,920 (67.1) | 7,332 (100.0) |

2) 취업목표 일자리 형태

다음으로 취업목표를 설정한 사람 중에서 어떤 직장(일자리)에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지는 <표Ⅳ-7>에 나타나 있다. 민간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응답자(78.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부기관(6.8%), 자영업(6.0%), 공공기관(4.1%)의 순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7> 취업목표 직장(일자리) 형태

(단위 : 명, %)

| 구 분 | | 민간 회사 | 외국인 회사 | 정부 기관 | 공공 기관 | 비영리 법인 | 프리 랜서 | 자영업 | 전체 |
|-----------------------|-----|------------------|--------------|----------------|--------------|--------------|--------------|----------------|-------------------|
| 전체 | | 18,378 (78.2) | 532 (2.3) | 1,599 (6.8) | 968 (4.1) | 409 (1.7) | 202 (0.9) | 1,419 (6.0) | 23,508 (100.0) |
| 성 별 | 남성 | 7,943 (73.8) | 183 (1.7) | 1,054 (9.8) | 461 (4.3) | 154 (1.4) | 93 (0.9) | 870 (8.1) | 10,757 (100.0) |
| | 여성 | 10,435 (81.8) | 349 (2.7) | 545 (4.3) | 508 (4.0) | 255 (2.0) | 109 (0.9) | 550 (4.3) | 12,751 (100.0) |
| 전 공 유 형 별 | 상업 | 9,828 (79.5) | 352 (2.8) | 665 (5.4) | 536 (4.3) | 263 (2.1) | 87 (0.7) | 626 (5.1) | 12,357 (100.0) |
| | 공업 | 7,152 (78.2) | 123 (1.3) | 777 (8.5) | 351 (3.8) | 94 (1.0) | 106 (1.2) | 541 (5.9) | 9,144 (100.0) |
| | 기타 | 1,398 (69.6) | 57 (2.8) | 157 (7.8) | 81 (4.1) | 52 (2.6) | 9 (0.4) | 253 (12.6) | 2,008 (100.0) |
| 권 역 별 | 수도권 | 9,053 (76.7) | 313 (2.7) | 973 (8.2) | 466 (3.9) | 145 (1.2) | 57 (0.5) | 798 (6.8) | 11,805 (100.0) |
| | 중부권 | 2,592 (75.9) | 46 (1.4) | 175 (5.1) | 186 (5.5) | 116 (3.4) | 44 (1.3) | 254 (7.4) | 3,414 (100.0) |
| | 호남권 | 2,023 (80.5) | 36 (1.4) | 106 (4.2) | 73 (2.9) | 90 (3.6) | 33 (1.3) | 154 (6.1) | 2,513 (100.0) |
| | 대구권 | 2,700 (80.3) | 68 (2.0) | 236 (7.0) | 136 (4.0) | 39 (1.2) | 48 (1.4) | 136 (4.0) | 3,364 (100.0) |
| | 부산권 | 2,010 (83.3) | 69 (2.8) | 109 (4.5) | 108 (4.5) | 18 (0.8) | 20 (0.8) | 78 (3.2) | 2,412 (100.0) |

3) 취업목표 달성여부

취업목표 달성여부로 27.5%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취업목표 달성율(33.4%)이 남성(20.5%)보다 높게 나왔으며, 전공유형별로는 상업계열이 3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계열(27.3%)로 나타났으며, 공업계열(2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부산권(34.9%)로 다른 권역에 비해 취업목표의 달성 비율이 높았다.

〈표Ⅳ-8〉 취업목표 달성여부

(단위 : 명, %)

| 구 분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 전체 | | 6,480 (27.5) | 17,072 (72.5) | 23,552 (100.0) |
| 성별 | 남성 | 2,201 (20.5) | 8,556 (79.5) | 10,757 (100.0) |
| | 여성 | 4,279 (33.4) | 8,516 (66.6) | 12,795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3,800 (30.7) | 8,572 (69.3) | 12,372 (100.0) |
| | 공업 | 2,123 (23.2) | 7,020 (76.8) | 9,144 (100.0) |
| | 기타 | 557 (27.3) | 1,480 (72.7) | 2,037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3,060 (25.9) | 8,774 (74.1) | 11,834 (100.0) |
| | 중부권 | 1,024 (30.0) | 2,390 (70.0) | 3,414 (100.0) |
| | 호남권 | 558 (22.1) | 1,970 (77.9) | 2,528 (100.0) |
| | 대구권 | 995 (29.6) | 2,368 (70.4) | 3,364 (100.0) |
| | 부산권 | 843 (34.9) | 1,569 (65.1) | 2,412 (100.0) |

4)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취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는 자신의 준비시간의 부족이라고 선택한 고졸자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자질의 부족(19.8%)과 경제적 여유부족(12.3%)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9〉 취업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 구분 | | 높은 목표 | 정보 부족 | 경제적 여유부족 | 가치관 변화 | 준비 부족 | 자질 부족 | 학력 필요 | 기타 | 계 |
|-----------------------|-----|----------------|-----------------|-----------------|----------------|-----------------|-----------------|-----------------|--------------|-------------------|
| 계 | | 1,515 (8.9) | 1,827 (10.8) | 2,092 (12.3) | 1,592 (9.4) | 4,203 (24.8) | 3,360 (19.8) | 1,697 (10.0) | 673 (4.0) | 16,958 (100.0) |
| 성 별 | 남성 | 635 (7.5) | 888 (10.5) | 1,012 (11.9) | 626 (7.4) | 2,346 (27.7) | 1,486 (17.5) | 939 (11.1) | 550 (6.5) | 8,481 (100.0) |
| | 여성 | 880 (10.4) | 939 (11.1) | 1,080 (12.7) | 967 (11.4) | 1,857 (21.9) | 1,874 (22.1) | 757 (8.9) | 122 (1.4) | 8,477 (100.0) |
| 전 공 유 형 별 | 상업 | 910 (10.7) | 915 (10.7) | 1,207 (14.2) | 975 (11.5) | 1,754 (20.6) | 1,789 (21.0) | 743 (8.7) | 224 (2.6) | 8,518 (100.0) |
| | 공업 | 556 (8.0) | 788 (11.3) | 617 (8.9) | 501 (7.2) | 1,833 (26.3) | 1,395 (20.0) | 879 (12.6) | 400 (5.7) | 6,969 (100.0) |
| | 기타 | 49 (3.3) | 124 (8.4) | 268 (18.2) | 115 (7.8) | 616 (41.9) | 176 (12.0) | 75 (5.1) | 49 (3.3) | 1,470 (100.0) |
| 권 역 별 | 수도권 | 622 (7.1) | 969 (11.1) | 1,459 (16.7) | 707 (8.1) | 2,139 (24.5) | 1,516 (17.3) | 970 (11.1) | 357 (4.1) | 8,738 (100.0) |
| | 중부권 | 371 (15.7) | 227 (9.6) | 255 (10.8) | 253 (10.7) | 548 (23.2) | 402 (17.0) | 215 (9.1) | 90 (3.8) | 2,362 (100.0) |
| | 호남권 | 78 (4.1) | 172 (8.9) | 177 (9.2) | 239 (12.4) | 466 (24.2) | 587 (30.5) | 172 (8.9) | 33 (1.7) | 1,925 (100.0) |
| | 대구권 | 299 (12.6) | 310 (13.1) | 144 (6.1) | 159 (6.7) | 575 (24.3) | 524 (22.1) | 219 (9.2) | 139 (5.9) | 2,368 (100.0) |
| | 부산권 | 144 (9.2) | 149 (9.5) | 57 (3.6) | 233 (14.9) | 476 (30.4) | 330 (21.1) | 121 (7.7) | 54 (3.4) | 1,565 (100.0) |

제5장

고졸자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1.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1) 고졸자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2011년 고졸자 중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⁶⁾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0%로 나타났다.

성별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남성이 9.2%, 여성이 14.9%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5.7%p 가량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업계열이 13.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공업계열(10.9%), 기타계열(7.1%)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권의 21.3%로 교육 및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남권(6.0%), 부산권(7.4%)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은 직장을 갖기 위한 취업, 창업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되며, 통신강좌와 교양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되며, 꽃꽂이, 노래교실 등 단순한 취미 활동은 제외된다.

〈표 V-1〉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

| 구 분 | | 있음 | 없음 | 전체 |
|-----------|-----|-----------------|------------------|-------------------|
| 전체 | | 6,461 (12.0) | 47,584 (88.0) | 54,044 (100.0) |
| 성별 | 남성 | 2,568 (9.2) | 25,348 (90.8) | 27,916 (100.0) |
| | 여성 | 3,893 (14.9) | 22,236 (85.1) | 26,129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3,653 (13.7) | 23,040 (86.3) | 26,693 (100.0) |
| | 공업 | 2,476 (10.9) | 20,226 (89.1) | 22,702 (100.0) |
| | 기타 | 331 (7.1) | 4,317 (92.9) | 4,649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3,156 (12.8) | 21,465 (87.2) | 24,621 (100.0) |
| | 중부권 | 1,010 (12.4) | 7,123 (87.6) | 8,133 (100.0) |
| | 호남권 | 475 (6.0) | 7,501 (94.0) | 7,976 (100.0) |
| | 대구권 | 1,276 (21.3) | 4,706 (78.7) | 5,982 (100.0) |
| | 부산권 | 544 (7.4) | 6,788 (92.6) | 7,332 (100.0) |

취업 여부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와 미취업자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로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대구권의 경우 취업자의 교육훈련 경험이 22.6%로 미취업자(16.8%)의 경험보다 5.8%p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V-2〉 취업여부에 따른 고졸자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

| 구 분 | | 취업자 | | | 미취업자 | | |
|-----------|-----|-----------------|------------------|-------------------|-----------------|------------------|-------------------|
| | | 있음 | 없음 | 합계 | 있음 | 없음 | 합계 |
| 전체 | | 4,982 (12.1) | 36,040 (87.9) | 41,023 (100.0) | 1,478 (11.4) | 11,544 (88.6) | 13,022 (100.0) |
| 성별 | 남성 | 1,775 (9.1) | 17,812 (90.9) | 19,587 (100.0) | 793 (9.5) | 7,536 (90.5) | 8,329 (100.0) |
| | 여성 | 3,207 (15.0) | 18,228 (85.0) | 21,435 (100.0) | 686 (14.6) | 4,008 (85.4) | 4,693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3,060 (14.0) | 18,722 (86.0) | 21,782 (100.0) | 593 (12.1) | 4,319 (87.9) | 4,911 (100.0) |
| | 공업 | 1,729 (10.6) | 14,544 (89.4) | 16,273 (100.0) | 748 (11.6) | 5,682 (88.4) | 6,430 (100.0) |
| | 기타 | 193 (6.5) | 2,774 (93.5) | 2,968 (100.0) | 138 (8.2) | 1,543 (91.8) | 1,681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2,420 (12.7) | 16,635 (87.3) | 19,055 (100.0) | 736 (13.2) | 4,830 (86.8) | 5,566 (100.0) |
| | 중부권 | 671 (11.2) | 5,319 (88.8) | 5,990 (100.0) | 339 (15.8) | 1,804 (84.2) | 2,143 (100.0) |
| | 호남권 | 383 (6.9) | 5,136 (93.1) | 5,520 (100.0) | 92 (3.7) | 2,365 (96.3) | 2,457 (100.0) |
| | 대구권 | 1,062 (22.6) | 3,645 (77.4) | 4,707 (100.0) | 214 (16.8) | 1,061 (83.2) | 1,275 (100.0) |
| | 부산권 | 445 (7.7) | 5,305 (92.3) | 5,751 (100.0) | 98 (6.2) | 1,483 (93.8) | 1,581 (100.0) |

2)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고졸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2011년 고졸자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8.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알지 못했다(23.5%),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2%)라고 응답하였다.

〈표 V-3〉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 구 분 | | 알지 못했다 |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 필요성 느끼지 못했다 | 실제로 탐색할 생각을 못해서 | 직장내 분위기 조성이 안된다 | 비용이 부담되어서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기타 | 없다 | 합계 |
|-----------|-----|------------------|---------------------|------------------|-----------------|-----------------|----------------|-----------------|--------------|-------------|-------------------|
| 전체 | | 11,141 (23.5) | 6,788 (14.3) | 13,589 (28.7) | 3,196 (6.7) | 1,679 (3.5) | 1,427 (3.0) | 8,651 (18.2) | 935 (2.0) | 15 (0.0) | 47,420 (100.0) |
| 성 별 | 남성 | 6,099 (24.1) | 3,538 (14.0) | 7,549 (29.8) | 1,688 (6.7) | 748 (3.0) | 607 (2.4) | 4,333 (17.1) | 724 (2.9) | 7 (0.0) | 25,292 (100.0) |
| | 여성 | 5,042 (22.8) | 3,250 (14.7) | 6,040 (27.3) | 1,507 (6.8) | 931 (4.2) | 821 (3.7) | 4,318 (19.5) | 211 (1.0) | 7 (0.0) | 22,128 (100.0) |
| 전 공 유 형 별 | 상업 | 5,363 (23.4) | 3,432 (15.0) | 6,182 (27.0) | 1,499 (6.5) | 1,014 (4.4) | 740 (3.2) | 4,390 (19.2) | 289 (1.3) | 15 (0.1) | 22,925 (100.0) |
| | 공업 | 4,699 (23.3) | 2,650 (13.1) | 6,273 (31.0) | 1,474 (7.3) | 604 (3.0) | 557 (2.8) | 3,485 (17.2) | 466 (2.3) | | 20,207 (100.0) |
| | 기타 | 1,078 (25.1) | 706 (16.5) | 1,135 (26.5) | 223 (5.2) | 61 (1.4) | 130 (3.0) | 775 (18.1) | 180 (4.2) | | 4,288 (100.0) |
| 권 역 별 | 수도권 | 6,056 (28.4) | 2,786 (13.0) | 5,112 (23.9) | 1,178 (5.5) | 646 (3.0) | 816 (3.8) | 4,214 (19.7) | 538 (2.5) | 7 (0.0) | 21,355 (100.0) |
| | 중부권 | 1,902 (26.7) | 1,059 (14.9) | 2,555 (35.9) | 281 (3.9) | 220 (3.1) | 198 (2.8) | 823 (11.6) | 65 (0.9) | 7 (0.1) | 7,110 (100.0) |
| | 호남권 | 1,120 (15.0) | 855 (11.4) | 2,620 (35.1) | 1,079 (14.4) | 219 (2.9) | 161 (2.2) | 1,252 (16.8) | 165 (2.2) | | 7,472 (100.0) |
| | 대구권 | 845 (18.0) | 621 (13.2) | 1,700 (36.2) | 210 (4.5) | 263 (5.6) | 135 (2.9) | 807 (17.2) | 113 (2.4) | | 4,694 (100.0) |
| | 부산권 | 1,217 (17.9) | 1,467 (21.6) | 1,603 (23.6) | 448 (6.6) | 329 (4.9) | 117 (1.7) | 1,555 (22.9) | 52 (0.8) | | 6,788 (100.0) |

3)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

다음은 고졸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경험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고졸자들은 평균 1.36회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1.44회)가 미취업자(1.05회)보다 약 0.39회 가량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유형별로는 기타계열의 취업자가 1.50회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권의 취업자가 1.59회로 가장 높았으며 중부권의 취업자가 1.29회로 가장 낮았다.

〈표 V-4〉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경험 횟수

(단위 : 회)

| 구 분 | | 전체 | 취업자 | 미취업자 |
|-----------|-----|------|------|------|
| 전체 | | 1.36 | 1.44 | 1.05 |
| 성별 | 남성 | 1.25 | 1.34 | 1.04 |
| | 여성 | 1.42 | 1.49 | 1.06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38 | 1.44 | 1.03 |
| | 공업 | 1.32 | 1.43 | 1.07 |
| | 기타 | 1.35 | 1.50 | 1.03 |
| 권역별 | 수도권 | 1.36 | 1.44 | 1.04 |
| | 중부권 | 1.23 | 1.29 | 1.11 |
| | 호남권 | 1.36 | 1.43 | 1.05 |
| | 대구권 | 1.49 | 1.59 | 1.00 |
| | 부산권 | 1.26 | 1.31 | 1.03 |

4)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분야

다음으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분야를 살펴보면 전자분야(16.0%), 보건·의료분야(13.6%)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분야(12.6%)와 기계분야(12.2%)의 순으로 교육 및 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기계분야(24.0%), 서비스분야(13.6%)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전자분야(21.4%)와 보건·의료분야(20.4%)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성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분야

(단위 : 명, %)

| 구분 | 남성 | | 여성 | | 합계 | |
|--------------|-------|---------|-------|---------|-------|---------|
| 전체 | 2,517 | (100.0) | 3,882 | (100.0) | 6,399 | (100.0) |
| 식품분야 | 122 | (4.9) | 105 | (2.7) | 227 | (3.6) |
| 섬유·의복분야 | | | 39 | (1.0) | 39 | (0.6) |
| 화학분야 | 24 | (1.0) | 20 | (0.5) | 45 | (0.7) |
| 금속·비금속분야 | 43 | (1.7) | 21 | (0.5) | 64 | (1.0) |
| 기계분야 | 604 | (24.0) | 179 | (4.6) | 782 | (12.2) |
| 건설분야 | 160 | (6.4) | 8 | (0.2) | 168 | (2.6) |
| 전기분야 | 174 | (6.9) | 33 | (0.8) | 207 | (3.2) |
| 전자분야 | 196 | (7.8) | 831 | (21.4) | 1,027 | (16.0) |
| 컴퓨터분야 | 226 | (9.0) | 270 | (7.0) | 496 | (7.8) |
| 인쇄·출판·디자인분야 | 52 | (2.1) | 27 | (0.7) | 79 | (1.2) |
| 서비스분야 | 343 | (13.6) | 464 | (12.0) | 807 | (12.6) |
| 경영·사무분야 | 8 | (0.3) | 384 | (9.9) | 392 | (6.1) |
| 금융·보험분야 | 11 | (0.4) | 156 | (4.0) | 166 | (2.6) |
| 보건·의료분야 | 77 | (3.1) | 791 | (20.4) | 868 | (13.6) |
| 환경·비파괴·안전분야 | 130 | (5.2) | 173 | (4.4) | 303 | (4.7) |
|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 8 | (0.3) | 20 | (0.5) | 28 | (0.4) |
| 판매·영업분야 | 35 | (1.4) | 120 | (3.1) | 155 | (2.4) |
| 운전분야 | 23 | (0.9) | | | 23 | (0.4) |
| 계층별교육분야 | 38 | (1.5) | 11 | (0.3) | 49 | (0.8) |
| 어학분야 | 25 | (1.0) | | | 25 | (0.4) |
| 문화·예술분야 | 93 | (3.7) | 65 | (1.7) | 158 | (2.5) |
| 기타 | 125 | (5.0) | 165 | (4.2) | 290 | (4.5) |

전공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상업계열의 경우 전자분야(20.6%)와 보건·의료분야(17.7%), 서비스분야(15.9%)의 비중이 높으며, 공업계열은 기계분야(23.3%)와 전자분야(10.7%), 컴퓨터분야(10.0%)의 비중이 높았다. 기타계열의 경우는 보건·의료분야(17.5%)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비스분야(16.3%)에도 많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전공계열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분야

(단위 : 명, %)

| 구 분 | 상업 | 공업 | 기타 | 합계 |
|--------------|---------------|---------------|-------------|---------------|
| 전체 | 3,641 (100.0) | 2,426 (100.0) | 331 (100.0) | 6,399 (100.0) |
| 식품분야 | 81 (2.2) | 118 (4.8) | 29 (8.7) | 227 (3.6) |
| 섬유·의복분야 | 39 (1.1) | | | 39 (0.6) |
| 화학분야 | 16 (0.4) | 27 (1.1) | 2 (0.6) | 45 (0.7) |
| 금속·비금속분야 | 17 (0.5) | 35 (1.4) | 13 (3.8) | 64 (1.0) |
| 기계분야 | 182 (5.0) | 564 (23.3) | 36 (11.0) | 782 (12.2) |
| 건설분야 | 62 (1.7) | 87 (3.6) | 19 (5.8) | 168 (2.6) |
| 전기분야 | 12 (0.3) | 181 (7.5) | 13 (3.9) | 207 (3.2) |
| 전자분야 | 752 (20.6) | 259 (10.7) | 16 (4.8) | 1,027 (16.0) |
| 컴퓨터분야 | 227 (6.2) | 242 (10.0) | 27 (8.3) | 496 (7.8) |
| 인쇄·출판·디자인분야 | | 79 (3.3) | | 79 (1.2) |
| 서비스분야 | 578 (15.9) | 175 (7.2) | 54 (16.3) | 807 (12.6) |
| 경영·사무분야 | 384 (10.5) | 8 (0.3) | | 392 (6.1) |
| 금융·보험분야 | 159 (4.4) | 8 (0.3) | | 166 (2.6) |
| 보건·의료분야 | 643 (17.7) | 167 (6.9) | 58 (17.5) | 868 (13.6) |
| 환경·비파괴·안전분야 | 112 (3.1) | 191 (7.9) | | 303 (4.7) |
|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 28 (0.8) | | | 28 (0.4) |
| 판매·영업분야 | 118 (3.2) | 19 (0.8) | 18 (5.4) | 155 (2.4) |
| 운전분야 | 5 (0.1) | 19 (0.8) | | 23 (0.4) |
| 계층별교육분야 | 19 (0.5) | 28 (1.2) | 2 (0.6) | 49 (0.8) |
| 어학분야 | | 13 (0.5) | 13 (3.9) | 25 (0.4) |
| 문화·예술분야 | 56 (1.5) | 81 (3.3) | 20 (6.2) | 158 (2.5) |
| 기타 | 152 (4.2) | 127 (5.2) | 11 (3.3) | 290 (4.5) |

5)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시기

다음으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시기를 살펴보았다.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시기는 취업 이후, 재직중 일때 받은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실직기간, 미취업기간 동안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경우가 16.9%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이후, 재직중에 교육 또는 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에서는 상업계열(78.8%)이 권역별로는 대구권(81.4%)에서 취업이후, 재직중에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Ⅴ-7〉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 또는 훈련 시기

(단위 : 명, %)

| 구 분 | | 취업이전 | 취업이후, 재직중 | 실직기간, 미취업기간 | 전체 |
|-----------|-----|---------------|-----------------|-----------------|------------------|
| 전체 | | 836 (13.0) | 4,493 (70.1) | 1,081 (16.9) | 6,409 (100.0) |
| 성별 | 남성 | 353 (14.0) | 1,533 (60.7) | 638 (25.3) | 2,524 (100.0) |
| | 여성 | 483 (12.4) | 2,959 (76.2) | 443 (11.4) | 3,885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421 (11.5) | 2,878 (78.8) | 354 (9.7) | 3,653 (100.0) |
| | 공업 | 317 (13.1) | 1,484 (61.2) | 624 (25.7) | 2,425 (100.0) |
| | 기타 | 98 (29.6) | 131 (39.4) | 103 (31.0) | 331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554 (17.8) | 2,101 (67.4) | 460 (14.8) | 3,116 (100.0) |
| | 중부권 | 124 (12.4) | 594 (59.3) | 284 (28.3) | 1,002 (100.0) |
| | 호남권 | 30 (6.3) | 347 (73.0) | 98 (20.6) | 475 (100.0) |
| | 대구권 | 65 (5.1) | 1,039 (81.4) | 172 (13.5) | 1,276 (100.0) |
| | 부산권 | 62 (11.5) | 411 (76.1) | 67 (12.3) | 540 (100.0) |

6)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주제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주체를 살펴보면 회사주관(66.1%)의 교육 및 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72.1%)이 남성(56.6%)보다 회사주관의 교육 및 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24.5%)은 정부지원의 교육 및 훈련을 여성(9.9%)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는 공업계열에서 정부지원(22.5%) 교육 및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계열에서는 개인선택(36.9%)으로도 교육 및 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주제

(단위 : 명, %)

| 구 분 | | 회사주관 | 정부지원 | 개인선택 | 기타 | 전체 |
|-----------|-----|-----------------|---------------|-----------------|-------------|------------------|
| 전체 | | 4,210 (66.1) | 993 (15.6) | 1,130 (17.7) | 40 (0.6) | 6,373 (100.0) |
| 성별 | 남성 | 1,406 (56.6) | 609 (24.5) | 429 (17.3) | 40 (1.6) | 2,484 (100.0) |
| | 여성 | 2,804 (72.1) | 384 (9.9) | 701 (18.0) | | 3,888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689 (73.6) | 391 (10.7) | 573 (15.7) | | 3,653 (100.0) |
| | 공업 | 1,378 (57.6) | 538 (22.5) | 437 (18.2) | 40 (1.7) | 2,393 (100.0) |
| | 기타 | 143 (43.6) | 64 (19.4) | 121 (36.9) | | 327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920 (62.4) | 418 (13.6) | 698 (22.7) | 40 (1.3) | 3,076 (100.0) |
| | 중부권 | 570 (56.5) | 195 (19.3) | 245 (24.3) | | 1,010 (100.0) |
| | 호남권 | 346 (72.8) | 99 (20.8) | 31 (6.4) | | 475 (100.0) |
| | 대구권 | 1,050 (82.3) | 162 (12.7) | 64 (5.0) | | 1,276 (100.0) |
| | 부산권 | 324 (60.4) | 120 (22.4) | 92 (17.2) | | 536 (100.0) |

7)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방법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방법을 살펴보면 OJT(근무장소 및 사업체의 생산시설 등 현장에서 받는 훈련)가 56.4%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방법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OFF-JT(근무장소 및 사업체의 생산시설 이외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받는 직업 훈련)가 42.4%로 나타났다.

〈표 V-9〉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방법

(단위 : 명, %)

| 구 분 | | OJT | OFF-JT | 이러닝 | 우편통신 훈련 | 혼합훈련 | 전체 |
|-----------|-----|-----------------|-----------------|-------------|------------|-------------|------------------|
| 전체 | | 3,575 (56.4) | 2,686 (42.4) | 65 (1.0) | 2 (0.0) | 10 (0.2) | 6,338 (100.0) |
| 성별 | 남성 | 1,297 (52.3) | 1,151 (46.4) | 27 (1.1) | 2 (0.1) | 3 (0.1) | 2,481 (100.0) |
| | 여성 | 2,278 (59.0) | 1,535 (39.8) | 38 (1.0) | | 7 (0.2) | 3,857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151 (59.5) | 1,419 (39.2) | 41 (1.1) | | 7 (0.2) | 3,617 (100.0) |
| | 공업 | 1,296 (54.2) | 1,069 (44.7) | 19 (0.8) | 2 (0.1) | 3 (0.1) | 2,389 (100.0) |
| | 기타 | 128 (38.7) | 199 (59.9) | 5 (1.4) | | | 331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638 (53.8) | 1,371 (45.0) | 38 (1.3) | | | 3,047 (100.0) |
| | 중부권 | 486 (48.6) | 492 (49.2) | 19 (1.9) | | 3 (0.3) | 999 (100.0) |
| | 호남권 | 304 (64.0) | 168 (35.4) | | 2 (0.5) | | 475 (100.0) |
| | 대구권 | 898 (70.4) | 371 (29.0) | | | 7 (0.6) | 1,276 (100.0) |
| | 부산권 | 248 (45.9) | 284 (52.6) | 8 (1.5) | | | 540 (100.0) |

8)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목적을 살펴보면 업무상 필요해서 라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고, (재)취업이 23.2%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 순위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기타계열에서는 업무상 필요(41.3%), (재)취업(24.9%),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21.4%)이라고 응답한 고졸자도 많이 나타났다

〈표 V-10〉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

(단위 : 명, %)

| 구 분 | | 업무상 필요 | (재)취 업 | 전직, 이직 | 인사 고과에 도움 | 수당을 받기 위해 | 개업 또는 창업 | 상급 학교 진학 | 자격증 취득 | 기타 | 전체 |
|-----------------------|-----|-----------------|-----------------|-------------|-----------------|-----------------|----------------|----------------|--------------|-------------|------------------|
| 전체 | | 4,356 (67.9) | 1,487 (23.2) | 99 (1.5) | 31 (0.5) | 25 (0.4) | 19 (0.3) | 19 (0.3) | 324 (5.0) | 58 (0.9) | 6,417 (100.0) |
| 성 별 | 남성 | 1,492 (59.1) | 677 (26.8) | 82 (3.2) | 21 (0.8) | 8 (0.3) | 14 (0.5) | 3 (0.1) | 178 (7.1) | 49 (1.9) | 2,524 (100.0) |
| | 여성 | 2,864 (73.6) | 810 (20.8) | 17 (0.4) | 10 (0.3) | 17 (0.4) | 5 (0.1) | 16 (0.4) | 145 (3.7) | 9 (0.2) | 3,893 (100.0) |
| 전 공 유 형 별 | 상업 | 2,705 (74.0) | 729 (19.9) | | 10 (0.3) | 8 (0.2) | 9 (0.3) | 16 (0.4) | 140 (3.8) | 37 (1.0) | 3,653 (100.0) |
| | 공업 | 1,514 (62.2) | 676 (27.8) | 82 (3.4) | 17 (0.7) | | 9 (0.4) | | 113 (4.7) | 22 (0.9) | 2,433 (100.0) |
| | 기타 | 137 (41.3) | 83 (24.9) | 17 (5.1) | 4 (1.2) | 17 (5.1) | | 3 (1.0) | 71 (21.4) | | 331 (100.0) |
| 권 역 별 | 수도권 | 1,983 (63.7) | 864 (27.7) | 29 (0.9) | 14 (0.4) | 21 (0.7) | | 14 (0.4) | 155 (5.0) | 35 (1.1) | 3,116 (100.0) |
| | 중부권 | 599 (59.3) | 256 (25.3) | 66 (6.5) | 9 (0.8) | | 5 (0.5) | 3 (0.3) | 72 (7.2) | | 1,010 (100.0) |
| | 호남권 | 344 (72.4) | 83 (17.6) | | 5 (1.1) | 3 (0.7) | 9 (2.0) | | 27 (5.7) | 2 (0.5) | 475 (100.0) |
| | 대구권 | 1,065 (83.5) | 191 (15.0) | | | | | | 20 (1.6) | | 1,276 (100.0) |
| | 부산권 | 364 (67.4) | 92 (17.1) | 3 (0.6) | 3 (0.6) | | 5 (0.8) | 3 (0.5) | 49 (9.1) | 21 (3.8) | 540 (100.0) |

9)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대비 도움정도

전체의 44.9%가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도 23.9%로 나타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도움이 된다(68.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11〉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목적대비 도움정도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도움이 안됨 | 별로 도움이 안됨 | 보통 | 대체로 도움이 됨 | 매우 도움이 됨 | 전체 |
|-----------|-----|-------------|--------------|-----------------|-----------------|-----------------|------------------|
| 전체 | | 45 (0.7) | 482 (7.5) | 1,478 (23.0) | 2,881 (44.9) | 1,531 (23.9) | 6,417 (100.0) |
| 성별 | 남성 | 22 (0.9) | 165 (6.6) | 607 (24.1) | 1,102 (43.7) | 628 (24.9) | 2,524 (100.0) |
| | 여성 | 23 (0.6) | 317 (8.1) | 871 (22.4) | 1,779 (45.7) | 903 (23.2) | 3,893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3 (0.6) | 315 (8.6) | 803 (22.0) | 1,528 (41.8) | 982 (26.9) | 3,653 (100.0) |
| | 공업 | 22 (0.9) | 149 (6.1) | 589 (24.2) | 1,212 (49.8) | 462 (19.0) | 2,433 (100.0) |
| | 기타 | | 18 (5.4) | 86 (25.9) | 141 (42.6) | 86 (26.1) | 331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1 (0.3) | 306 (9.8) | 805 (25.8) | 1,098 (35.2) | 896 (28.8) | 3,116 (100.0) |
| | 중부권 | | 66 (6.5) | 166 (16.5) | 554 (54.9) | 224 (22.1) | 1,010 (100.0) |
| | 호남권 | 10 (2.0) | 72 (15.1) | 93 (19.6) | 207 (43.6) | 94 (19.7) | 475 (100.0) |
| | 대구권 | 25 (2.0) | 15 (1.2) | 280 (22.0) | 762 (59.7) | 194 (15.2) | 1,276 (100.0) |
| | 부산권 | | 24 (4.4) | 133 (24.6) | 260 (48.1) | 124 (22.9) | 540 (100.0) |

2. 취득 자격증

1) 자격증 소지 유무

2011년 고졸자 중 자격증⁷⁾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78.8%에 해당하는 42,575명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자격증 소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공유형별로는 공업계열(83.4%), 상업계열(76.8%), 기타계열(68.0%)의 비율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V-12〉 자격증 소지 유무

(단위 : 명, %)

| 구 분 | | 보유 | 미보유 | 합계 |
|-----------|-----|------------------|------------------|-------------------|
| 전체 | | 42,575 (78.8) | 11,469 (21.2) | 54,044 (100.0) |
| 성별 | 남성 | 22,279 (79.8) | 5,637 (20.2) | 27,916 (100.0) |
| | 여성 | 20,297 (77.7) | 5,832 (22.3) | 26,129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20,489 (76.8) | 6,204 (23.2) | 26,693 (100.0) |
| | 공업 | 18,927 (83.4) | 3,775 (16.6) | 22,702 (100.0) |
| | 기타 | 3,159 (68.0) | 1,490 (32.0) | 4,649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8,795 (76.3) | 5,826 (23.7) | 24,621 (100.0) |
| | 중부권 | 6,989 (85.9) | 1,144 (14.1) | 8,133 (100.0) |
| | 호남권 | 6,293 (78.9) | 1,684 (21.1) | 7,976 (100.0) |
| | 대구권 | 5,067 (84.7) | 915 (15.3) | 5,982 (100.0) |
| | 부산권 | 5,432 (74.1) | 1,900 (25.9) | 7,332 (100.0) |

7) 운전면허의 경우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하였다.

취업 여부에 따른 고졸자의 자격증 소지 유무를 살펴보면 취업자(81.0%)가 미취업자(71.6%)보다 9.4%p정도 자격증 소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로 살펴봐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3〉 취업 여부에 따른 고졸자의 자격증 소지 유무

(단위 : 명, %)

| 구 분 | | 취업자 | | 미취업자 | |
|-----------|-----|------------------|-----------------|-----------------|-----------------|
| | | 보유 | 미보유 | 보유 | 미보유 |
| 전체 | | 33,248 (81.0) | 7,774 (19.0) | 9,327 (71.6) | 3,695 (28.4) |
| 성별 | 남성 | 16,004 (81.7) | 3,584 (18.3) | 6,275 (75.3) | 2,054 (24.7) |
| | 여성 | 17,244 (80.4) | 4,191 (19.6) | 3,052 (65.0) | 1,641 (35.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7,238 (79.1) | 4,544 (20.9) | 3,252 (66.2) | 1,660 (33.8) |
| | 공업 | 13,802 (84.8) | 2,471 (15.2) | 5,125 (79.7) | 1,304 (20.3) |
| | 기타 | 2,209 (74.4) | 759 (25.6) | 950 (56.5) | 731 (43.5) |
| 권역별 | 수도권 | 14,957 (78.5) | 4,098 (21.5) | 3,838 (69.0) | 1,728 (31.0) |
| | 중부권 | 5,299 (88.5) | 691 (11.5) | 1,689 (78.8) | 453 (21.2) |
| | 호남권 | 4,423 (80.1) | 1,097 (19.9) | 1,870 (76.1) | 587 (23.9) |
| | 대구권 | 4,183 (88.9) | 524 (11.1) | 884 (69.3) | 391 (30.7) |
| | 부산권 | 4,386 (76.3) | 1,365 (23.7) | 1,047 (66.2) | 535 (33.8) |

2) 자격증 소지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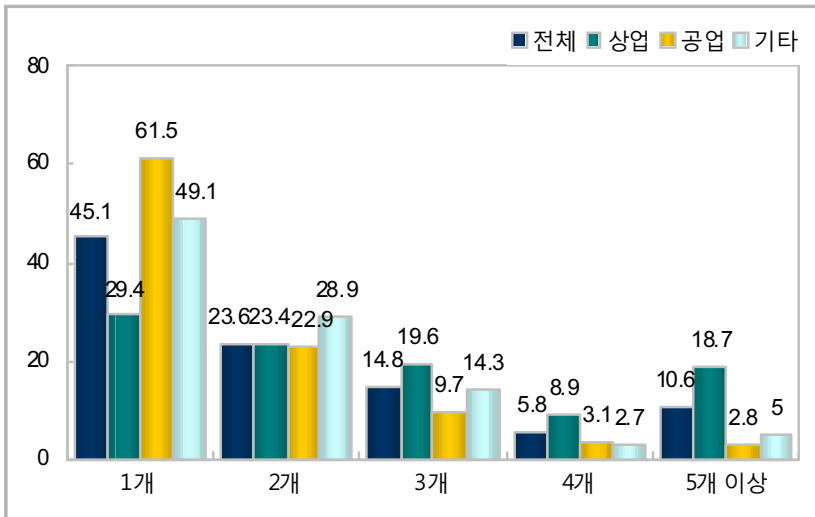
고졸자의 자격증 소지 개수 살펴보면 전체 고졸자들은 약 2.31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92개로 남성의 1.75개 보다 약 1개 이상 자격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업계열이 2.9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대구권이 2.52개로 가장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자격증 소지 개수

(단위 : 개)

| 구 분 | | 2011년 고졸자 |
|-------|-----|-----------|
| 전체 | | 2.31 |
| 성별 | 남성 | 1.75 |
| | 여성 | 2.92 |
| 전공유형별 | 상업 | 2.97 |
| | 공업 | 1.66 |
| | 기타 | 1.91 |
| 권역별 | 수도권 | 2.39 |
| | 중부권 | 2.22 |
| | 호남권 | 2.26 |
| | 대구권 | 2.52 |
| | 부산권 | 2.00 |

[그림 V-1]는 고졸자의 전공유형별 자격증 보유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공업계열과 기타계열에서는 자격증 소지 개수 비율이 1개 있는 사람이 가장 높고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 개수가 개수별 비율의 큰 차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도 19.5%로 타 전공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 고졸자의 자격증 소지 개수 (단위 : %)

3) 자격증 취득시기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시기를 살펴보았다. 취득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경우가 98.0%로 전문계고 고졸자의 대부분이 고교재학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전공유형별, 권역별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표 V-15〉 자격증 취득 시기

(단위 : 명, %)

| 구 분 | | 고교재학중 | 고교졸업후 (취업이전) | 고교졸업후 (취업이후) | 전체 |
|-----------|-----|------------------|-----------------|-----------------|-------------------|
| 전체 | | 41,702 (98.0) | 635 (1.5) | 196 (0.5) | 42,533 (100.0) |
| 성별 | 남성 | 21,827 (98.2) | 314 (1.4) | 96 (0.4) | 22,236 (100.0) |
| | 여성 | 19,875 (97.9) | 322 (1.6) | 100 (0.5) | 20,297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19,997 (97.6) | 392 (1.9) | 100 (0.5) | 20,489 (100.0) |
| | 공업 | 18,682 (98.7) | 169 (0.9) | 76 (0.4) | 18,927 (100.0) |
| | 기타 | 3,022 (97.0) | 74 (2.4) | 20 (0.6) | 3,116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18,328 (97.7) | 317 (1.7) | 107 (0.6) | 18,753 (100.0) |
| | 중부권 | 6,896 (98.7) | 74 (1.1) | 18 (0.3) | 6,989 (100.0) |
| | 호남권 | 6,231 (99.0) | 35 (0.6) | 26 (0.4) | 6,293 (100.0) |
| | 대구권 | 4,999 (98.7) | 46 (0.9) | 21 (0.4) | 5,067 (100.0) |
| | 부산권 | 5,247 (96.6) | 162 (3.0) | 23 (0.4) | 5,432 (100.0) |

4) 자격증 취득 목적

다음으로는 자격증 취득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재)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2.9%로 가장 많았고, 상급학교 진학이 11.5%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성별 특징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재)취업을 목적으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전공유형별, 권역별로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자격증 취득 목적

(단위 : 명, %)

| | | 업무상 필요 | (재)취 업 | 전직, 이직 | 인사 고과에 도움 | 수당을 받기 위해 | 개업 또는 창업 | 상급 학교 진학 | 기타 | 전체 |
|-----------------------|-----|-----------------|------------------|--------------|-----------------|-----------------|----------------|-----------------|--------------|-------------------|
| 전체 | | 4,282 (10.0) | 31,095 (72.9) | 351 (0.8) | 482 (1.1) | 66 (0.2) | 518 (1.2) | 4,895 (11.5) | 948 (2.2) | 42,637 (100.0) |
| 성 별 | 남성 | 2,161 (9.7) | 16,019 (72.1) | 194 (0.9) | 217 (1.0) | 54 (0.2) | 288 (1.3) | 2,759 (12.4) | 537 (2.4) | 22,229 (100.0) |
| | 여성 | 2,121 (10.4) | 15,077 (73.9) | 157 (0.8) | 265 (1.3) | 12 (0.1) | 230 (1.1) | 2,136 (10.5) | 411 (2.0) | 20,409 (100.0) |
| 전 공 유 형 별 | 상업 | 2,180 (10.6) | 14,937 (72.8) | 180 (0.9) | 248 (1.2) | 12 (0.1) | 250 (1.2) | 2,329 (11.4) | 382 (1.9) | 20,518 (100.0) |
| | 공업 | 1,754 (9.2) | 14,176 (74.5) | 168 (0.9) | 201 (1.1) | 54 (0.3) | 160 (0.8) | 2,092 (11.0) | 430 (2.3) | 19,035 (100.0) |
| | 기타 | 348 (11.3) | 1,983 (64.3) | 3 (0.1) | 33 (1.1) | | 109 (3.5) | 474 (15.4) | 136 (4.4) | 3,086 (100.0) |
| 권 역 별 | 수도권 | 1,856 (9.8) | 12,876 (68.1) | 250 (1.3) | 181 (1.0) | 37 (0.2) | 176 (0.9) | 2,931 (15.5) | 593 (3.1) | 18,900 (100.0) |
| | 중부권 | 929 (13.4) | 5,243 (75.4) | 14 (0.2) | 100 (1.4) | 14 (0.2) | 92 (1.3) | 437 (6.3) | 128 (1.8) | 6,957 (100.0) |
| | 호남권 | 293 (4.6) | 5,100 (80.2) | 5 (0.1) | 91 (1.4) | 9 (0.1) | 98 (1.5) | 641 (10.1) | 121 (1.9) | 6,358 (100.0) |
| | 대구권 | 333 (6.6) | 3,903 (77.5) | 24 (0.5) | 57 (1.1) | 6 (0.1) | 98 (1.9) | 558 (11.1) | 59 (1.2) | 5,038 (100.0) |
| | 부산권 | 871 (16.2) | 3,974 (73.8) | 58 (1.1) | 53 (1.0) | | 54 (1.0) | 328 (6.1) | 47 (0.9) | 5,385 (100.0) |

5) 자격증 취득 목적대비 도움정도

전체의 28.8%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자도 18.8%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이 목적대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41.5%)보다 남성(53.1%)이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안 된다 응답하였으며, 기타계열에서는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나타났다.

〈표 V-17〉 특성별 자격증 취득 목적대비 도움정도

(단위 : 명, %)

| 구 분 | | 전혀 도움이 안됨 | 별로 도움이 안됨 | 보통 | 대체로 도움이 됨 | 매우 도움이 됨 | 전체 |
|-----------|-----|-----------------|------------------|------------------|-----------------|----------------|-------------------|
| 전체 | | 7,984 (18.8) | 12,263 (28.8) | 10,588 (24.9) | 8,567 (20.1) | 3,173 (7.5) | 42,575 (100.0) |
| 성별 | 남성 | 4,681 (21.0) | 7,155 (32.1) | 5,275 (23.7) | 3,887 (17.4) | 1,281 (5.7) | 22,279 (100.0) |
| | 여성 | 3,303 (16.3) | 5,108 (25.2) | 5,313 (26.2) | 4,680 (23.1) | 1,892 (9.3) | 20,297 (100.0) |
| 전공 유형별 | 상업 | 3,246 (15.8) | 5,206 (25.4) | 5,381 (26.3) | 4,887 (23.9) | 1,769 (8.6) | 20,489 (100.0) |
| | 공업 | 3,812 (20.1) | 6,266 (33.1) | 4,447 (23.5) | 3,309 (17.5) | 1,093 (5.8) | 18,927 (100.0) |
| | 기타 | 926 (29.3) | 790 (25.0) | 760 (24.1) | 371 (11.7) | 311 (9.8) | 3,159 (100.0) |
| 권역별 | 수도권 | 3,513 (18.7) | 4,996 (26.6) | 4,839 (25.7) | 3,802 (20.2) | 1,645 (8.8) | 18,795 (100.0) |
| | 중부권 | 1,389 (19.9) | 2,519 (36.0) | 1,416 (20.3) | 1,263 (18.1) | 401 (5.7) | 6,989 (100.0) |
| | 호남권 | 1,084 (17.2) | 1,710 (27.2) | 1,746 (27.8) | 1,310 (20.8) | 442 (7.0) | 6,293 (100.0) |
| | 대구권 | 1,001 (19.8) | 1,836 (36.2) | 991 (19.6) | 1,009 (19.9) | 230 (4.5) | 5,067 (100.0) |
| | 부산권 | 996 (18.3) | 1,202 (22.1) | 1,595 (29.4) | 1,184 (21.8) | 455 (8.4) | 5,432 (100.0) |

제6장

고졸자의 구직 활동

2011년 전문계고 졸업자 54,044명 중 30.8%에 해당하는 16,630명이 고등학교 졸업 후 2011년 4월 30일까지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 활동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유형별로는 기타계열의 졸업자가 39.9%로 가장 많은 구직활동 비율을 나타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6.1%), 중부권(31.2%)의 고졸자들의 구직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VI-1〉 졸업 후 구직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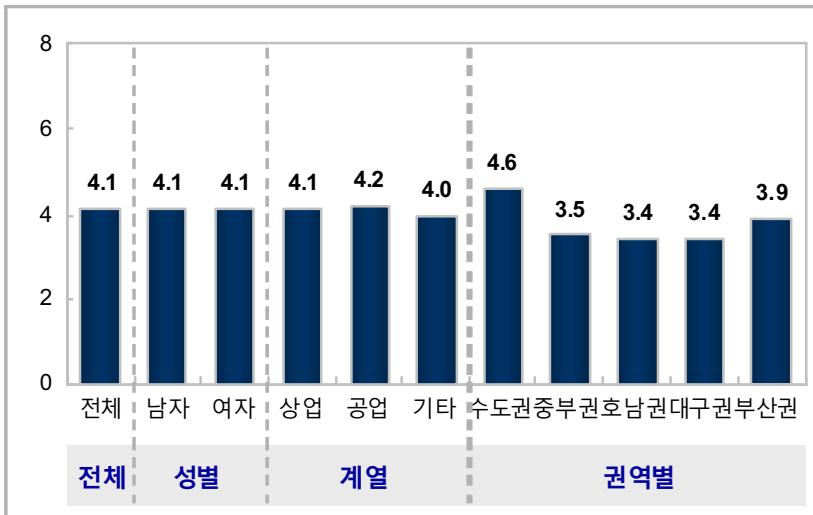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 분 | | 있다 | 없다 | 합계 |
|-------|----|------------------|------------------|-------------------|
| 전체 | | 16,630 (30.8) | 37,415 (69.2) | 54,044 (100.0) |
| 성별 | 남성 | 9,629 (34.5) | 18,287 (65.5) | 27,916 (100.0) |
| | 여성 | 7,001 (26.8) | 19,128 (73.2) | 26,129 (100.0) |
| 전공유형별 | 상업 | 7,734 (29.0) | 18,959 (71.0) | 26,693 (100.0) |
| | 공업 | 7,043 (31.0) | 15,659 (69.0) | 22,702 (100.0) |
| | 기타 | 1,853 (39.9) | 2,796 (60.1) | 4,649 (100.0) |

| 구 분 | | 있다 | 없다 | 합계 |
|-----|-----|-----------------|------------------|-------------------|
| 권역별 | 수도권 | 8,883 (36.1) | 15,738 (63.9) | 24,621 (100.0) |
| | 중부권 | 2,537 (31.2) | 5,596 (68.8) | 8,133 (100.0) |
| | 호남권 | 1,863 (23.4) | 6,113 (76.6) | 7,976 (100.0) |
| | 대구권 | 1,567 (26.2) | 4,415 (73.8) | 5,982 (100.0) |
| | 부산권 | 1,780 (24.3) | 5,552 (75.7) | 7,332 (100.0) |

1) 구직자의 취업 노력

구직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전공계열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졸업자들이 4.6시간으로 구직활동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권(3.9시간)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VI-1] 구직활동을 위한 주당 평균 소요시간 (단위 : 시간)

2)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41.1%), '지인을 통해서(26.8%), '학교·학원 선생님을 통해서(15.7%), '언론매체를 통해서(12.9%)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자와 비교하여 '언론매체를 통해서(17.5%)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Ⅵ-2〉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취업자 | 미취업자 |
|-------------------|-------------------|------------------|------------------|
| 전체 | 16,590 (100.0) | 9,991 (100.0) | 6,599 (100.0) |
| 학교·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 2,612 (15.7) | 1,588 (15.9) | 1,024 (15.5) |
| 지인을 통해서 | 4,450 (26.8) | 2,822 (28.2) | 1,628 (24.7) |
| 언론매체를 통해서 | 2,147 (12.9) | 993 (9.9) | 1,154 (17.5) |
|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 | 364 (2.2) | 181 (1.8) | 182 (2.8) |
| 인터넷을 통해서 | 6,815 (41.1) | 4,288 (42.9) | 2,527 (38.3) |
| 회사에 직접연락 | 201 (1.2) | 118 (1.2) | 83 (1.3) |

성별 일자리 정보를 얻는 방법을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40.7%,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 여성 모두 지인을 통해서 학교·학원 선생님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남성은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많이 얻은 반면 여성은 학교·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유형별로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계열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2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Ⅵ-3〉 성별, 전공유형별 일자리 정보를 얻는 주된 방법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성별 | | 전공유형별 | | |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전체 | 16,590 (100.0) | 9,589 (100.0) | 7,001 (100.0) | 7,734 (100.0) | 7,003 (100.0) | 1,853 (100.0) |
| 학교·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 2,612 (15.7) | 1,160 (12.1) | 1,452 (20.7) | 1,325 (17.1) | 1,067 (15.2) | 221 (11.9) |
| 지인을 통해서 | 4,450 (26.8) | 2,896 (30.2) | 1,554 (22.2) | 1,956 (25.3) | 1,961 (28.0) | 533 (28.8) |
| 언론매체를 통해서 | 2,147 (12.9) | 1,259 (13.1) | 888 (12.7) | 942 (12.2) | 823 (11.8) | 381 (20.6) |
|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 | 364 (2.2) | 207 (2.2) | 157 (2.2) | 141 (1.8) | 209 (3.0) | 13 (0.7) |
| 인터넷을 통해서 | 6,815 (41.1) | 3,905 (40.7) | 2,911 (41.6) | 3,331 (43.1) | 2,854 (40.7) | 631 (34.0) |
| 회사에 직접연락 | 201 (1.2) | 163 (1.7) | 38 (0.5) | 38 (0.5) | 89 (1.3) | 73 (3.9) |

3) 구직자들의 노력

구직 활동을 위해 구직자들은 '면접시험 준비 및 이력서 작성 등'(44.8%) '자격증 취득'(32.8%), '외모관리'(26.6%), 'IT, 컴퓨터관련 교육 수강'(10.6%),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노력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자와 비교하여 '외모관리'(28.7%)를 하는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Ⅵ-4〉 구직자들의 노력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취업자 | 미취업자 |
|----------------------|-----------------|-----------------|-----------------|
| 외국어 공부(TOEIC, JPT 등) | 1,187 (7.1) | 882 (8.8) | 304 (4.6) |
| IT, 컴퓨터관련 교육 수강 | 1,759 (10.6) | 1,126 (11.2) | 633 (9.6) |
| 자격증 취득 | 5,451 (32.8) | 3,526 (35.2) | 1,924 (29.2) |
| 면접시험 준비 및 이력서 작성 등 | 7,449 (44.8) | 4,640 (46.3) | 2,809 (42.6) |
| 기타 직업훈련 | 1,165 (7.0) | 675 (6.7) | 489 (7.4) |
| 현장실습 및 인턴십 | 1,581 (9.5) | 1,094 (10.9) | 487 (7.4) |
| 공무원 등 채용시험 준비 | 603 (3.6) | 428 (4.3) | 175 (2.7) |
| 외모관리 | 4,431 (26.6) | 2,535 (25.3) | 1,896 (28.7) |
| 기타 | 32 (0.2) | 14 (0.1) | 18 (0.3) |

주: 중복응답임

성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살펴보면 남성은 '면접시험 준비 및 이력서 작성 등'(40.0%), '자격증 취득'(31.5%), '외모관리'(21.5%), '현장실습 및 인턴십'(10.0%)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면접시험 준비 및 이력서 작성 등'(51.4%), '자격증 취득'(34.6%), '외모관리'(33.7%), 'IT, 컴퓨터관련 교육 수강'(15.3%)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면접시험 준비 및 이력서 작성 등, 자격증 취득, 외모관리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VI-5〉 성별, 전공유형별 구직자들의 노력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성별 | | 전공유형별 | | |
|----------------------|-----------------|-----------------|-----------------|-----------------|-----------------|---------------|
| | | 남성 | 여성 | 상업 | 공업 | 기타 |
| 외국어 공부(TOEIC, JPT 등) | 1,187 (7.1) | 551 (5.7) | 635 (9.1) | 652 (8.4) | 380 (5.4) | 154 (8.3) |
| IT, 컴퓨터관련 교육 수강 | 1,759 (10.6) | 690 (7.2) | 1,069 (15.3) | 1,096 (14.2) | 563 (8.0) | 101 (5.4) |
| 자격증 취득 | 5,451 (32.8) | 3,030 (31.5) | 2,421 (34.6) | 2,532 (32.7) | 2,402 (34.1) | 517 (27.9) |
| 면접시험 준비 및 이력서 작성 등 | 7,449 (44.8) | 3,853 (40.0) | 3,596 (51.4) | 3,882 (50.2) | 2,787 (39.6) | 780 (42.1) |
| 기타 직업훈련 | 1,165 (7.0) | 581 (6.0) | 584 (8.3) | 601 (7.8) | 354 (5.0) | 210 (11.3) |
| 현장실습 및 인턴십 | 1,581 (9.5) | 967 (10.0) | 614 (8.8) | 601 (7.8) | 776 (11.0) | 203 (11.0) |
| 공무원 등 채용시험 준비 | 603 (3.6) | 254 (2.6) | 349 (5.0) | 251 (3.3) | 224 (3.2) | 128 (6.9) |
| 외모관리 | 4,431 (26.6) | 2,068 (21.5) | 2,362 (33.7) | 2,219 (28.7) | 1,691 (24.0) | 521 (28.1) |
| 기타 | 32 (0.2) | 14 (0.1) | 18 (0.3) | 18 (0.2) | 14 (0.2) | |

주: 중복응답임

4) 구직활동에서의 고려 항목 중요도

구직 활동 시 고려 항목의 중요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구직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급여(4.34점)와 직장(고용)안정성(4.16점),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4.09점), 자신의 적성·흥미(4.08점), 근로시간(4.05점),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4.04점), 개인의 발전가능성(4.01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은 회사규모(3.35점), 전공분야와의 관련성(3.39점), 업무의 난이도(3.68점), 업무량(3.76점), 출퇴근 거리(3.91점)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Ⅵ-6〉 구직활동에서 고려 항목의 중요도

(단위 : 점)

| 구분 | 합계 | 취업자 | 미취업자 |
|--------------|------|------|------|
| 급여 | 4.34 | 4.33 | 4.34 |
| 직장(고용) 안정성 | 4.16 | 4.14 | 4.20 |
| 회사규모 | 3.35 | 3.35 | 3.36 |
|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3.39 | 3.36 | 3.43 |
| 업무의 난이도 | 3.68 | 3.67 | 3.68 |
| 업무량 | 3.76 | 3.77 | 3.74 |
| 개인 발전가능성 | 4.01 | 4.01 | 4.03 |
|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4.04 | 4.02 | 4.05 |
| 근로시간 | 4.05 | 4.08 | 4.01 |
| 근무환경 및 복리 후생 | 4.09 | 4.12 | 4.03 |
| 출퇴근거리 | 3.91 | 3.93 | 3.89 |
| 자신의 적성·흥미 | 4.08 | 4.07 | 4.10 |

5) 구직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력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려서'(25.8%)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22.4%)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여성 취업자의 경우 경력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려서가 가장 높았으며 남성 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구직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자가 19.2%, 미취업자가 25.0%로 높게 나타났다.

〈표VI-7〉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취업자 | | 미취업자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전체 | 16,526 (100.0) | 5,474 (100.0) | 4,460 (100.0) | 4,091 (100.0) | 2,500 (100.0) |
|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 3,700 (22.4) | 1,374 (25.1) | 1,072 (24.0) | 626 (15.3) | 628 (25.1) |
|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 2,205 (13.3) | 390 (7.1) | 806 (18.1) | 647 (15.8) | 361 (14.4) |
| 경력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려서 | 4,259 (25.8) | 1,298 (23.7) | 1,187 (26.6) | 928 (22.7) | 845 (33.8) |
|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아서 | 1,483 (9.0) | 551 (10.1) | 499 (11.2) | 229 (5.6) | 204 (8.2) |
|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 198 (1.2) | 34 (0.6) | 127 (2.9) | 18 (0.4) | 19 (0.8) |
|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 1,177 (7.1) | 463 (8.4) | 340 (7.6) | 302 (7.4) | 73 (2.9) |
|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 1,412 (8.5) | 315 (5.8) | 414 (9.3) | 318 (7.8) | 365 (14.6) |
|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 2,071 (12.5) | 1,050 (19.2) | | 1,022 (25.0) | |
| 기타 | 21 (0.1) | | 16 (0.4) | | 6 (0.2) |

6) 고졸자의 1년 이내 계획

2011년 고졸자들의 앞으로 1년 이내의 계획을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6%는 직장을 옮길 계획 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업자의 경우를 보면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겠다고 28.4%로 군입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도 13.6%로 많이 나타났다.

〈표Ⅵ-8〉 경제활동 상태별 1년 이내 계획

(단위 : 명, %)

| 구분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 | 전체 |
|------------|---------------|--------------|--------------|---------------|
| 현재직장 계속 다님 | 19,936 (48.6) | | | 19,936 (36.9) |
| 직장 옮김 | 6,383 (15.6) | | | 6,383 (11.8) |
| 취업 | | 2,695 (52.6) | 2,241 (28.4) | 4,935 (9.1) |
| 개인사업이나 창업 | 221 (0.5) | 35 (0.7) | 29 (0.4) | 286 (0.5) |
| 그냥 쉬겠다 | 135 (0.3) | 17 (0.3) | 90 (1.1) | 242 (0.4) |
| 국내 학교로의 진학 | 2,116 (5.2) | 298 (5.8) | 955 (12.1) | 3,368 (6.2) |
| 어학연수·유학 | 147 (0.4) | 4 (0.1) | 24 (0.3) | 175 (0.3) |
| 군입대 | 9,639 (23.5) | 1,634 (31.9) | 3,147 (39.9) | 14,420 (26.7) |
| 구체적인 계획없음 | 2,027 (4.9) | 205 (4.0) | 1,074 (13.6) | 3,306 (6.1) |
| 기타 | 407 (1.0) | 239 (4.7) | 326 (4.1) | 972 (1.8) |

다음으로 성별 고졸자의 1년 이내의 계획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1.3%가 1년 이내에 군입대를 할 계획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응답도 21.1%로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직장을 옮긴다는 응답자가 16.8%, 취업을 하겠다는 11.7%로 나타났다.

〈표VI-9〉 성별 1년 이내 계획

(단위 : 명, %)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현재직장 계속 다님 | 5,887 | (21.1) | 14,049 | (53.8) | 19,936 | (36.9) |
| 직장 옮김 | 1,990 | (7.1) | 4,393 | (16.8) | 6,383 | (11.8) |
| 취업 | 1,887 | (6.8) | 3,049 | (11.7) | 4,935 | (9.1) |
| 개인사업이나 창업 | 84 | (0.3) | 202 | (0.8) | 286 | (0.5) |
| 그냥 쉬겠다 | 137 | (0.5) | 105 | (0.4) | 242 | (0.4) |
| 국내 학교로의 진학 | 1,583 | (5.7) | 1,785 | (6.8) | 3,368 | (6.2) |
| 어학연수·유학 | 94 | (0.3) | 81 | (0.3) | 175 | (0.3) |
| 군입대 | 14,331 | (51.3) | 88 | (0.3) | 14,420 | (26.7) |
| 구체적인 계획없음 | 1,491 | (5.3) | 1,815 | (7.0) | 3,306 | (6.1) |
| 기타 | 432 | (1.5) | 540 | (2.1) | 972 | (1.8) |

제7장

고졸자의 가계배경

1. 고졸자의 가계배경

1) 부모님의 최종학력

2011년 고졸자의 부모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모님 모두 고졸 학력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Ⅶ-1〉 부모님 최종학력

(단위 : %)

| 구분 | 아버지 | 학력 | | | 어머니 | 학력 | | |
|----------|------|------|------|------|------|------|------|------|
| | | 상업 | 공업 | 기타 | | 상업 | 공업 | 기타 |
| 무학 | 0.6 | 0.6 | 0.6 | 0.5 | 0.9 | 0.9 | 1.1 | 0.4 |
| 초졸 이하 | 7.6 | 6.2 | 8.3 | 12.3 | 6.2 | 6.7 | 5.3 | 7.8 |
| 중졸 | 13.5 | 13.0 | 14.1 | 13.5 | 15.8 | 15.2 | 16.4 | 15.8 |
| 고졸 | 62.6 | 62.9 | 63.3 | 57.5 | 68.3 | 68.9 | 68.5 | 63.1 |
| 초급대 | 5.7 | 6.5 | 4.7 | 5.5 | 3.6 | 3.9 | 3.4 | 2.8 |
| 대졸 | 9.7 | 10.4 | 8.5 | 10.6 | 5.1 | 4.2 | 5.2 | 10.0 |
| 석사이상 | 0.3 | 0.3 | 0.4 | 0.1 | 0.2 | 0.3 | 0.0 | |

2) 부모님의 직업

다음은 2011년 고졸자의 부모님의 직업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은 건설 관련직(17.8%)에 종사하고 계신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운전 및 운송 관련직(13.8%) 기계 관련직(1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은퇴, 주부) 이신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음식 서비스 관련직이 16.5%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 및 판매 관련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9.9%로 높았다.

〈표Ⅷ-2〉 부모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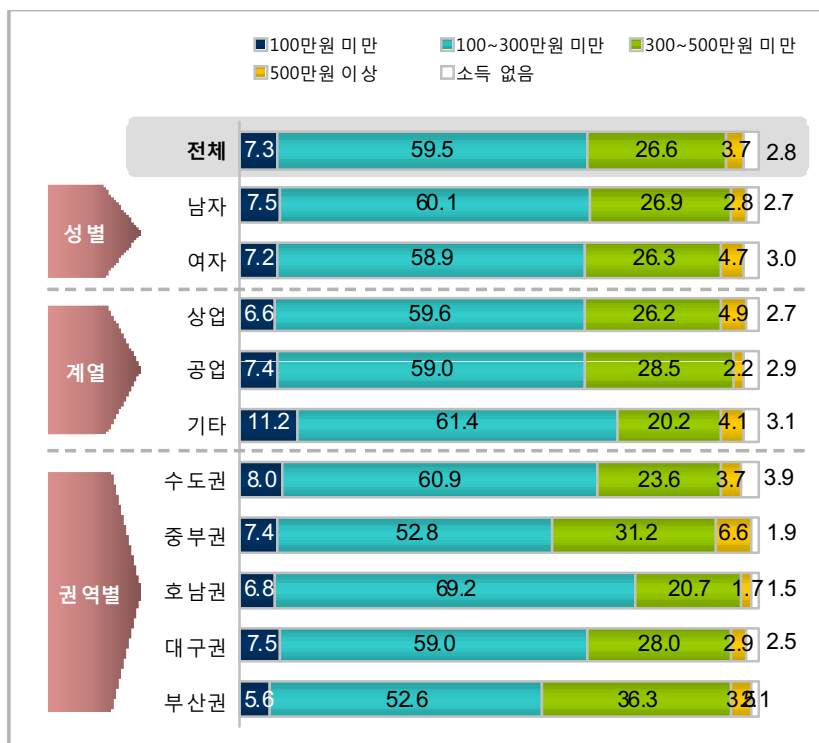
(단위 : %)

| 직업중분류 | 아버지 직업 | | | | 어머니 직업 | | | |
|-------------------------|--------|------|------|------|--------|------|------|------|
| | | 상업 | 공업 | 기타 | | 상업 | 공업 | 기타 |
| 관리직 | 1.6 | 1.5 | 1.6 | 2.4 | 0.4 | 0.3 | 0.4 | 0.9 |
| 경영·회계·사무관련직 | 3.6 | 3.9 | 3.4 | 2.5 | 2.3 | 2.6 | 2.1 | 1.9 |
| 금융·보험관련직 | 0.7 | 0.9 | 0.5 | 0.6 | 1.2 | 1.6 | 0.9 | 0.2 |
|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0.5 | 0.4 | 0.5 | 1.1 | 0.8 | 0.4 | 1.2 | 1.3 |
|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 0.1 | 0.1 | 0.2 | | 0.0 | 0.0 | 0.0 | 0.0 |
| 보건·의료관련직 | 0.2 | 0.1 | 0.4 | 0.1 | 1.0 | 1.2 | 0.9 | 0.6 |
|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 0.4 | 0.6 | 0.3 | 0.3 | 1.6 | 1.6 | 1.7 | 1.5 |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5 | 0.5 | 0.5 | 0.1 | 0.1 | 0.2 | 0.0 | 0.2 |
| 운전 및 운송관련직 | 13.8 | 14.2 | 13.9 | 10.7 | 0.4 | 0.4 | 0.3 | 0.7 |
| 영업 및 판매관련직 | 8.3 | 9.0 | 7.2 | 9.2 | 9.9 | 9.5 | 10.0 | 11.5 |
| 경비 및 청소관련직 | 1.3 | 1.2 | 1.4 | 1.3 | 1.4 | 1.1 | 1.8 | 1.6 |
|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관련직 | 1.3 | 1.0 | 1.3 | 2.7 | 2.6 | 2.0 | 3.1 | 3.0 |
| 음식 서비스관련직 | 4.2 | 3.7 | 4.7 | 4.4 | 16.5 | 16.4 | 17.1 | 14.4 |
| 건설관련직 | 17.8 | 18.7 | 17.3 | 15.6 | 0.8 | 0.8 | 0.9 | 0.3 |
| 기계관련직 | 10.5 | 9.3 | 11.5 | 11.7 | 2.7 | 2.4 | 3.2 | 2.0 |
| 재료관련직 | 1.4 | 1.5 | 1.4 | | 0.6 | 0.6 | 0.7 | 0.1 |
| 화학관련직 | 0.5 | 0.3 | 0.6 | 0.6 | 0.2 | 0.2 | 0.1 | 0.1 |
| 섬유 및 의복관련직 | 2.5 | 2.7 | 2.8 | 0.1 | 4.9 | 4.7 | 5.8 | 1.1 |
| 전기·전자관련직 | 3.1 | 3.7 | 2.4 | 2.3 | 1.8 | 2.0 | 1.6 | 1.7 |
| 정보통신관련직 | 0.4 | 0.5 | 0.5 | | 0.2 | 0.2 | 0.3 | |
| 식품가공관련직 | 1.0 | 1.3 | 0.7 | 0.8 | 1.3 | 1.2 | 1.2 | 2.4 |

| | | | | | | | | |
|---------------------------|------|------|------|------|------|------|------|------|
| 환경·인쇄·문예·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3.8 | 3.4 | 4.1 | 5.1 | 3.3 | 3.5 | 2.9 | 3.9 |
| 농림어업관련직 | 5.7 | 4.9 | 5.4 | 12.1 | 4.3 | 3.7 | 3.9 | 9.5 |
| 군인 | 0.2 | 0.2 | 0.1 | 0.4 | 0.1 | 0.0 | 0.1 | |
| 무직(은퇴, 주부) | 5.9 | 5.9 | 6.1 | 4.7 | 35.6 | 38.1 | 33.1 | 32.7 |
| 안 계심(사망) | 10.7 | 10.2 | 11.2 | 11.0 | 6.1 | 5.2 | 6.6 | 8.5 |

3)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은 대부분이 100~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계열별, 권역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중부권의 부모님들이 500만원 이상 고소득을 받는 경우가 6.6%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도 3.9%로 나타났다.



[그림Ⅶ-1]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4) 부모님과 동거여부

2011년 고졸자들은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가 70.2%였으며, 여성(64.3%) 보다 남성(75.8%)이 부모님과 동거하는 비율이 약 11.5%p 높게 나타났다.

〈표Ⅶ-3〉 부모님과 동거여부

(단위 : 명, %)

| 성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전체 | 27,431 | (100.0) | 25,889 | (100.0) | 53,320 | (100.0) |
| 부모님과 동거 | 20,783 | (75.8) | 16,647 | (64.3) | 37,430 | (70.2) |
| 부모님과 비동거 | 6,649 | (24.2) | 9,242 | (35.7) | 15,890 | (29.8) |

5) 가구원수

2011년 고졸자의 가구내 가구원수는 4인인 경우가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인 경우도 19.4%로 나타나 졸업 후 혼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자(24.0%)가 실업자 및 비경활자들 보다 혼자 거주하는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에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Ⅶ-4〉 가구원수

(단위 : %)

| 구분 | 전체 | 현거주지 | | 경제활동상태 | | |
|-------|------|------|------|--------|------|------|
| | | 수도권 | 비수도권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활 |
| 1인 | 19.4 | 13.0 | 24.9 | 24.0 | 3.9 | 5.3 |
| 2인 | 8.5 | 8.8 | 8.3 | 7.8 | 10.3 | 11.0 |
| 3인 | 22.2 | 23.5 | 21.1 | 20.2 | 27.0 | 29.4 |
| 4인 | 32.3 | 36.3 | 28.9 | 30.8 | 36.4 | 37.2 |
| 5인 이상 | 17.6 | 18.4 | 16.9 | 17.1 | 22.4 | 17.0 |

부록 1 설문지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미진학 고졸자의 취업실태와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는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미진학 고졸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정보는 국가정책 수립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법33조>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 5.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국가고용서비스의 선진화에 힘쓰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주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연구원 : 조동진 과장(☎ 02-2629-7363)

박선연 대리(☎ 02-2629-7366)

조사기관 :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담당연구원 : 이윤기 차장(☎ 02-3488-2797)

담당수퍼바이저 : 김명기 과장(☎ 02-3488-2746)

| | | |
|-----------|--|--|
| 면접원 성명 | | D1) 리스트번호 : <input type="text"/> |
| | | D2) 학교 유형 : <input type="text"/> D3) 전공계열 : <input type="text"/> D4) 성별 : <input type="text"/> |

| | | | | | |
|-----------|--|-----|---------------------|--------|------------------|
| 응답자 성명 | | 연락처 | 전화: () - - | E-mail | |
| | | | 핸드폰: - - | 생년월 | 양력) _____년 ____월 |
| 응답자 주소 |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번지 _____호(_____아파트_____동_____호) | | | | |

| | | | |
|------|-------|---------------|--|
| 방문일정 | 1차 방문 | _____월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
| | 2차 방문 | _____월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
| | 3차 방문 | _____월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
| | 4차 방문 | _____월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
| | 5차 방문 | _____월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
| | 6차 방문 | _____월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

| | | | | | | | |
|-------------|--|---------------|--|---------------|--|---------------|--|
| 슈퍼바이저 확인 | | 직/산업 1차 코딩 | | 직/산업 최종 코딩 | | 전화검증 확인 성공 | |
|-------------|--|---------------|--|---------------|--|---------------|--|

☐ 조사기준일: 2011년 5월 1일

응답자 ID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모든 항목은 **조사기준일(201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동상태의 조사기준 기간은 11.4.24.(일)~4.30(토)일의 일주일이며, 기준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문항의 조사기준일은 (201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Q1) _____님은 조사기준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1. 일하였음 → **문1)로 갈 것**
2. 일시휴직
3. 구직활동
4. 발령대기
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6. 취업준비(학원 및 기관 수강 제외)
7. 진학준비
8. 심신장애
9. 군입대 대기
10. 결혼 준비
11. 쉬었음
12. 기타(_____)

SQ2) 지난 조사기준기간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무급(무보수)으로 가구원의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다 _____ → **문1)로 갈 것**
2.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_____
3.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 **SQ3)으로 갈 것**
4. 없었다 _____

SQ3)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자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 → **SQ4)로 갈 것**

SQ3-1) 어떤 이유로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일시적 병, 사고
 2. 연가, 교육
 3. 가정적 이유
 4. 노사분규
 5. 사업부진·조업중단
 6. 기타(_____)
- **문1)로 갈 것**

SQ4) 귀하는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직장(일자리)을 구해보셨습니까?

1. 구해 보았음 → **SQ6)으로 갈 것**
2. 구해보지 않았음

SQ5) 귀하는 **조사기준기간을 포함한 4주간(2011. 4. 3 ~ 4.30) 동안에** 직장(일자리)을 구해보셨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구해보지 않았음 → **SQ7)로 갈 것**

SQ6) 귀하는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직장(일자리)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문26)으로 갈 것**

SQ7)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직장(일자리)을 원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26)으로 갈 것**

SQ7-1)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직장(일자리)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SQ7-2) **조사기준기간을 포함한 4주간(2011. 4. 3 ~ 4.30) 동안에** 직장(일자리)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일하고 싶지 않아서
8. 군입대 대기
9. 진학준비
10. 심신장애
11. 기타(_____)

→ **문26)으로 갈 것**

다음은 _____님의 **현 직장(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두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주된 일자리**는 조사기준기간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던 일자리를 말합니다.
- ※ **현 직장(일자리)**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 ※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은 현직장(일자리)에 대한 질문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 현 직장(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년 _____월

문2) 현 직장(일자리)의 일자리는 아르바이트입니까?

※ 아르바이트 : 돈을 벌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일자리 형태

1. 그렇다
2. 아니다

문3) 조사기준기간(2011년 4월 24일~4월30일) 동안 일하는 곳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 | | |
|------------|---------------|--|--|
| 사업체명 | | | |
|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
| 주 생산품목(활동) | | | |
|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
| 주 생산품 원료 | | | |
|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
| CODE | | | |

문4) 현 직장(일자리)에서 _____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 |
|-----------------|---------------|
| 부서명 (code:)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 |
| 직 급 (code:)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 |
| 직무내용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 |
| 사용 장비나 도구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 |

CODE

| | | | |
|--|--|--|--|
| | | | |
|--|--|--|--|

※ 부서명과 직급은 설문 완료 후 코드북을 참고하여 코드를 별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5) 현 직장(일자리)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 무급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규모를 기입합니다. 현 직장이 본사라면 지사(지점)나 공장의 인원을 제외하고, 지사(지점)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다른 지사(지점), 공장의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 | | |
|-----------|--------------|
| 1. 1~4명 | 6. 100~299명 |
| 2. 5~9명 | 7. 300~499명 |
| 3. 10~29명 | 8. 500~999명 |
| 4. 30~49명 | 9. 1,000명 이상 |
| 5. 50~99명 | |

문6) 현 직장(일자리)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1. 서울 | 6. 광주 | 11. 충남 | 16. 제주 |
| 2. 부산 | 7. 울산 | 12. 전북 | 17. 기타() |
| 3. 대구 | 8. 경기 | 13. 전남 | |
| 4. 대전 | 9. 강원 | 14. 경북 | |
| 5. 인천 | 10. 충북 | 15. 경남 | |

문7) 현 직장(일자리)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
|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4. 종업원을 둔 고용주 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 문10)으로 갈 것 |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거나, 고용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사업의 필요(1년 이내 완료되는 사업)에 의해 고용된 자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

※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문8) _____님은 현 직장(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 현 직장이 정년제인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1. 정해져 있다
2. 정해져 있지 않다 → **문8-2)로 갈 것**

문8-1)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미만
5. 2년
6. 2년 초과~3년 미만
7. 3년 이상

문8-1-1) 현재 계약(기간)은 반복·갱신(재계약)된 것입니까?

※ 최초 계약인 경우는 '2. 아니다'에 해당합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문8-2) 현재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1. 그렇다 → **문8-4)로 갈 것**
2. 아니다

문8-3)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현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8-3-1)로 갈 것**
2. 아니다 → **문8-3-2)로 갈 것**

문8-3-1)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문8-4)로 갈 것**

문8-3-2) 계속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던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지근 하고 있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8.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9.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0. 기타(_____)

→ **문8-4)로 갈 것**

문8-4)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입니까?

1. 전일제 근로 → **문8-5)로 갈 것**
2. 시간제 근로

문8-4-1) 본인 스스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8-5) 실제 일하시는 곳과 임금(급여)을 주는 곳이 동일합니까?

1. 그렇다 → **문8-7)로 갈 것**
2. 아니다

문8-6) 아니라면, 임금(급여)은 다음 중 어디에서 받습니까?

- ※ 파견업체 : 근로자가 파견사업체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체에 가서 근무하며, 업무지시는 사용사업체로부터 받고, 임금은 파견사업체로부터 받는 형태의 사업유형
- ※ 용역업체 : 근로자가 용역사업체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용역(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체에 가서 근무하며, 고용관계, 임금 및 모든 업무지시를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형태의 사업유형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도 포함)

1. 파견업체
2. 용역업체(경비, 청소용역 등)

문8-7) 현재 일자리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합니까?

※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커스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 직접 채용된 영업사원은 '2. 아니다'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문8-8) 평소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십니까?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문8-9) 현재 일자리에서 교대제로 일하고 계십니까?

※ 교대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는 근무형태입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문10)으로 갈 것**

문9) 개인 사업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2. 임금근로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3. 임금근로자보다 내 생활(시간) 갖기가 쉬울 것 같아서
4. 조직생활이 안맞거나 사업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5.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서
6. 사업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해서(실현시키고 싶어서)
7.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8. 기타()

문10) 현 직장(일자리)은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4.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5.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보협설계사, 학습지 교사, 커리어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7. 자영업
8. 기타()

문11) 현 직장(일자리)에서 통상 일주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 ※ 최근 3개월 동안의 근무기간 평균을 기입하여 주시고,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일: 고용계약서나 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인 경우는 주당정규근로일수를 5.5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실근로시간: 고용계약서나 사업체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규근로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예) 주5일 근무, 1일 9시~18시 근로인 경우
점심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5일=40시간
- ※ 주당 초과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OT),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자영업을 하고 있어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에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 월평균 휴일근무: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상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 | |
|-------------|-------------|
| 주당 정규 근로일 | _____ 일 |
| 주당 정규 실근로시간 | 평균 _____ 시간 |
| 주당 초과 실근로시간 | 평균 _____ 시간 |
| 월평균 휴일근무 | _____ 일 |

문12) 현 직장(일자리)에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소득 및 급여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세금을 포함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월평균 | _____ 만원 |
| 급여형태별 |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
| |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
| |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
| |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
| | 5. 시간당 _____ 원 |

문13) 현 직장(일자리)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각 항목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만족 5. 매우 만족 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 만족도 |
|------------------------------|-----|
| (1) 임금 또는 소득 | |
| (2) 현 직장 안정성 | |
|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직무내용) | |
| (4) 근무환경(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 |
| (5) 일하는 시간(근로시간, 근무시간) | |
| (6) 개인의 발전가능성 | |
| (7)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 |
| (8) 복리후생제도(4대보험, 자녀보육지원 등) | |
| (9) 인사체계(승진제도) | |
| (10)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 |
| (11)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 |
| (12) 현 직장(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여부 | |

문14) 현 직장(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은 자신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1. (교육받은 수준에 비해)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2. (교육받은 수준에 비해) 일의 수준이 낮다
3. (교육받은 수준에 비해) 일의 수준이 알맞다
4. (교육받은 수준에 비해) 일의 수준이 높다
5. (교육받은 수준에 비해)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

문15) 현 직장(일자리)에서 귀하는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여부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직장내 가입되어 있지 않고 부모님이 가입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지역 가입 여부에 '가입되어 있다'에 체크해 주십시오.

| | 직장내 가입 여부 | | | 지역 가입 여부 (직장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 | |
|---------------------------------|-----------|------------|------|----------------------------------|------------|------|
| | 가입되어 있다 | 가입되어 있지 않다 | 모름 다 | 가입되어 있다 | 가입되어 있지 않다 | 모름 다 |
| (1)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 | | | | |
| (2) 건강보험 | | | | | | |
| (3) 고용보험 | | | | | | |
| (4) 산재보험 | | | | | | |

문16) 현 직장(일자리)에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본인이 수혜대상임
- ※ 받을 수 없다: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이 수혜대상아님

| | 직장에서 제공여부 | | | 본인의 혜택여부 | | |
|----------------|-----------|----------|------|----------|---------|------|
| | 제공된다 | 제공되지 않는다 | 모름 다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 모름 다 |
| (1) 법정퇴직금/퇴직연금 | | | | | | |
| (2) 유급휴가 | | | | | | |
| (3) 시간외수당 | | | | | | |
| (4) 상여금 | | | | | | |

※ 일반계고 → 문19로 갈 것

문17) 현 직장(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업무 내용이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맞지 않는다
2. 잘 맞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잘 맞는다
5. 매우 잘 맞는다

문18)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 별로 도움이 안 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도움이 된다
5. 매우 도움이 된다

→ 문19로 갈 것

문18-1)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 지식이 경쟁력이 없어서
2. 지원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3. 실제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서
4.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적어서
5. 기타 ()

문19) 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있다 (자격증명: _____ code : _____)
2. 없다 → 문20으로 갈 것

※ 자격증명은 설문 양표 후 코드북을 참고하여 코드를 별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19-1) 귀하는 해당(문 19에서 응답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1. 취득하였다 → 문20으로 갈 것
2. 취득하지 않았다.

문19-1-1) 해당(문19-1에서 응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2. 해당 자격증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3. 자격증의 필요성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4. 현재 준비중임
5. 기타 ()

문20) 현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시오.

| 직장에서 유무여부 | | | 본인의 가입여부 | | |
|-----------|--|------|----------|----------|------------|
| | | 모름 다 | 가입하였다 | 가입하지 않았다 |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
| | | | | | |

문20-1) _____님께서 현 직장 이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 예) 직종별 노조, 산업별 노조 등

1. 가입하였다
2. 가입하지 않았다.
3. 모름 다.

문21) 현 직장(일자리)의 일자리 정보를 얻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학교·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2. 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서
3.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4.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사 등)
5. 인터넷을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구직사이트)
6. 회사에 직접연락을 해서(현장실습, 인턴십 포함)
7. 기타 ()

문21-1) 귀하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 | 있다 | 없다 |
|---------------------------------------|----|----|
| (1) 워크넷 (고용노동부) | | |
| (2) 커리어넷 (교육과학기술부) | | |
| (3)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 (취업지원센터 등) | | |
| (4) 민간회사의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 리쿠르트 등) | | |
| (5) 기타() | | |

문22) 현 직장(일자리)에 들어가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1.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으로
2. 가족이나 친지,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3. 공공취업알선기관(워크넷, 고용센터, 취업센터 등)의
취업알선을 통하여
4. 민간취업알선기관(인터넷구직사이트 등)의
취업알선을 통하여
5. 구인광고 등을 통해 내가 스스로 알아서
6. 개인사업을 시작하여(가족사업 참여 포함)
7. 기타()

문23) 현 직장(일자리)에 적응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1. 업무내용습득
2. 상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
3. 적성·흥미와 불일치
4. 기대했던 수준(임금, 복지, 근무시간 등)과의 격차
5. 차별대우(성, 학력, 지역 등)
6. 기타()

문24) 현 직장(일자리)을 다니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진학을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25)로 갈 것**

문24-1)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2.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3. 승진 등 인사상의 필요 때문에
4. 전문적 지식을 더 배우기 위해서
5.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6. 기타()

※ 다음 문25-문25-2는 현 직장(일자리)을 제외한 다른 일자리 관련
문항입니다.

문25) 현 직장(일자리) 외에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26)으로 갈 것**

문25-1) 현 직장(일자리)을 제외하고 조사기준기간 동안 총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까?

- _____ 개

문25-2) 현 직장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돈을 더 벌기 위해서
2. 지인의 부탁으로
3.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4. 자아실현을 위해
5. 경력개발을 위해
6. 기타()

다음은 **____**님의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6-1)~26-16)문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 현 직장을 제외하고 다른 직장(일자리)을
다니 경험한 경우 **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7지**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6) **졸업 후** 현 직장을 제외하고 다른 직장(일자리)을 다니 경험이
있습니까?

- ※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졸업 후 계속해서** 현재 직장(일
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2' 없기에 표기하십시오.

1. 있다
2. 없다 → **문 27)로 갈 것**

문26-1) **졸업 후** 총 몇 개의 직장(일자리)에서 일하셨습니까?
현 직장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_____ 개

※ 2개 이상의 직장 경험이 있었다면 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7지에 대하여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6-2) 일하셨던 그 직장(일자리)에서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__ 년 _____ 월 ~ _____ 년 _____ 월

문26-3) _____님이 일하셨던 곳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 | |
|------------|---------------|
| 사업체명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주 생산품목(활동)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주 생산품 원료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CODE | |

문26-4) 그 직장(일자리)에서 _____님이 주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 | |
|-----------------|---------------|
| 부서명 (code:)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직 급 (code:)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직무내용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사용 장비나 도구 | 제조사 요청사항 및 내용 |
| CODE | |

※ 부서명과 직급은 설문 완료 후 코드북을 참고하여 코드를
별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26-5) 그 직장(일자리)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 | |
|-----------|--------------|
| 1. 1~4명 | 6. 100~299명 |
| 2. 5~9명 | 7. 300~499명 |
| 3. 10~29명 | 8. 500~999명 |
| 4. 30~49명 | 9. 1,000명 이상 |
| 5. 50~99명 | |

문26-6) 일하셨던 직장(일자리)의 소재지는?

- | | | | |
|-------|--------|--------|-----------|
| 1. 서울 | 6. 광주 | 11. 충남 | 16. 제주 |
| 2. 부산 | 7. 울산 | 12. 전북 | 17. 기타() |
| 3. 대구 | 8. 경기 | 13. 전남 | |
| 4. 대전 | 9. 강원 | 14. 경북 | |
| 5. 인천 | 10. 충북 | 15. 경남 | |

문26-7) 그 직장(일자리)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
| 1. 상용근로자 | 4. 종업원을 둔 고용주 |
| 2. 임시근로자 | 5.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
| 3. 일용근로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 | → 문26-12)로 갈 것 |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거나, 고용계약기간이 없는 경우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사업의 필요(1년 이내 완료되는 사업)에 의해 고용된 자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임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 임금근로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문26-8) _____님은 그 직장(일자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 그 직장이 정년제인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1. 정해져 있다
2. 정해져 있지 않다 → 문26-11)로 갈 것

문26-9)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1개월 미만 | 4. 1년 초과~2년 미만 |
| 2. 1개월 이상~1년 미만 | 5. 2년 |
| 3. 1년 | 6. 2년 초과~3년 미만 |
| | 7. 3년 이상 |

문26-10) 그 직장(일자리)에서 고용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하는 곳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구분 | 고용형태 | 해당여부 |
|-------------------------|-------------------|------|
| 비정규직 | (1) 특수형태근로 | |
| | (2) 재택/가내근로 | |
| | (3) 파견근로 | |
| | (4) 용역근로 | |
| | (5) 단시간(시간제)근로 | |
| | (6) 일일근로 | |
| | (7) 기간제근로 | |
| | (8)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 | |
| (1)-(8)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 (9) 정규직근로 | |

※ 특수형태근로 :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경우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 재택/가내근로 : 주로 일하는 곳이 집(가정)인 경우

※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자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형태

※ 용역근로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도 포함)

※ 시간제근로 :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

※ 일일근로 :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경우

※ 기간제근로 :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일을 하는 경우

※ 기간제가 아닌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한시적 근로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정규직근로 : (1)-(8)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문26-11) 일하셨던 그 직장(일자리)은 다음 중 어디 유형에 속합니까?

-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 자영업
- 기타()

문26-12) 일하셨던 그 직장(일자리)에서 통상 일주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 ※ 최근 3개월 동안의 근무기간 평균을 기입하여 주시고,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근로일 : 고용계약서나 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규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인 경우는 주당정규근로일수를 5.5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주당 정규 실근로시간 : 고용계약서나 사업체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규근로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예) 주5일 근무, 1일 9시~18시 근로인 경우
점심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8시간*5일=40시간
- ※ 주당 초과 실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OT),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자영업업을 하고 있어 정규·초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정규 근로시간에 합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 월평균 휴일근무 : 사업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상근로일 이외의 휴일(주휴일, 취업규칙상 휴일) 및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 | |
|-------------|-------------|
| 주당 정규 근로일 | _____ 일 |
| 주당 정규 실근로시간 | 평균 _____ 시간 |
| 주당 초과 실근로시간 | 평균 _____ 시간 |
| 월평균 휴일근무 | _____ 일 |

문26-13) 일하셨던 그 직장(일자리)에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소득 및 급여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임금근로자는 세금·상여금을 포함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세금을 포함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 프로젝트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월평균 | _____ 만원 |
| 급여형태별 | 1. 연봉 _____ 만원 또는 |
| | 2. 월평균 _____ 만원 또는 |
| | 3. 주당 _____ 만원 또는 |
| | 4. 일당 _____ 만원 또는 |
| | 5. 시간당 _____ 원 |

문26-14) 일하셨던 직장(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26-15) 일하셨던 그 직장(일자리)에서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계열)과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맞지 않았다
2. 맞지 않았다
3. 그런대로 맞았다
4. 잘 맞았다
5. 매우 잘 맞았다

문26-16) 일하셨던 그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계약기간이 끝나서(또는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2. 직장의 휴폐업 등으로(또는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3.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서
4. 보수가 낮아서
5. 보수 이외의 근로여건(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 근로환경 등) 불만족
6. 차별을 받아서(성차별, 고용형태 차별 등)
7.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8. 학업의 계속이나 재취업 준비
9. 육아(출산), 결혼, 가족과 연관된 이유로
10. 상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11. 보다 나은 직장으로서의 전직(이직)을 위하여
12. 건강이 좋지 않아서
13. 회사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거리가 멀어져서
14. 기타(_____)

다음은 _____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출신 고등학교 관련

문27) 출신고등학교의 계열은 무엇입니까?

| 일반계고 | 특성화고(전문계고) |
|-------------|-------------|
| 1) 문과 | 5) 농업 |
| 2) 이과 | 6) 공업 |
| 3) 예체능 | 7) 상업(정보고) |
| 4) 직업반 | 8) 수산해양 |
| | 9) 가사실업 |
| → 문28)로 갈 것 | → 문29)로 갈 것 |

문28) 일반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대학진학을 고려하여
2.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3.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4. 특별한 이유 없음
5. 기타()

→ 문31)로 갈 것

문29)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성적에 맞아서
2.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3.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4. 대학진학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
5. 졸업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
6. 기타()

문30) 전공(주전공 기준)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
2. 성적에 맞아서
3. 학문적 흥미 및 적성에 고려해서
4.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5.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6.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 때문에
7. 기타()

문30-1)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일 전공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1. 그렇다 → 문 31)로 갈 것
2. 아니다

문30-2) 동일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적성에 맞지 않아서
2.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3. 취업 후 임금 및 근로조건이 타전공 졸업생에 비해 낮아서
4. 내 전공 자체가 힘든 직업(학업)이기 때문에
5. 기타()

문30-3) 그렇다면 고등학교 입학 시 만족스러운 전공선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실시
2. 학년별 지속적인 진로상담
3. 고등학교 전공 정보 및 전공 관련 직업정보 제공
4.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5. 기타()

문31) 졸업한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각 항목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항목 | 만족도 |
|----------------------------------|-----|
| (1)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전반적 교육과정 운영 | |
| (2) 과목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업이나 기자재 활용 | |
| (3) 실험·실습 시설을 포함한 학교의 시설 및 환경 | |
| (4)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의 교육 및 지도 방식 | |

문32)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에 해당하는 것과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각 항목에 대하여 경험여부 1. 있다 2. 없다 로 만족도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항목 | 경험여부 | 만족도 |
|-----------------------------|------|-----|
| (1) '진로와 직업' 등 교과목을 통한 진로지도 | | |
| (2)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 | |
| (3) 직업정보 제공 및 안내 | | |
| (4) 진로관련 검사(직성, 흥미검사) 실시 | | |
| (5) 현장학습이나 견학 등 직업체험경험 | | |
| (6)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진로상담 및 지도 | | |

문32-1)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받은 취업지원에 해당하는 것과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각 항목에 대하여 경험여부 1. 있다 2. 없다 로 만족도에 대하여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항목 | 경험여부 | 만족도 |
|--------------------------|------|-----|
| (1)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 |
| (2) 구직 및 취업 상담 | | |
| (3) 취업 정보 제공 | | |
| (4)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등 구직 지도 | | |
| (5) 취업 알선 및 동행 지도(동행 면접) | | |

문33) 고등학교 재학시 평소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아래 내용들의 경험 여부와 빈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 각 항목에 대하여 경험여부 1. 있다 2. 없다 로 빈도에 대하여 1. 전혀없다 2. 일년에 1-2번 3. 한달에 1-2번 4. 일주일에 1-2번 5. 거의 매일 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항목 | 경험여부 | 빈도 |
|-----------------------------|------|----|
| (1) 나의 적성과 흥미 등에 대한 대화 | | |
| (2) 미래의 직업 학교나 학과 선택에 대한 대화 | | |
| (3) 가족의 직장 방문 | | |
| (4) 직업, 학교, 학과에 대한 정보 찾기 | | |

문34) 고등학교 재학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아래 행동들을 해 보신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 각 항목에 대하여 **1. 전혀 없음 2. 거의 없음 3. 보통 4. 약간 있음 5. 매우 많음** 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항목 | 빈도 |
|--|----|
|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 |
| (2)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 |
|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 |
|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 |
| (5)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
| (6)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 |
| (7)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학원수강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 본 적이 있다. | |

문35) 고등학교 재학시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부모님
2. 학교(학원)선생님
3. 형제·자매
4. 친인척
5. 친구·선호배
6. 역사적 또는 훌륭한 인물
7. 종교인(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8. 없음
9. 기타(_____)

문36)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은 어떠했습니다?

1. 상위권
2. 중상위권
3. 중위권
4. 중하위권
5. 하위권

문37) 졸업한 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다음은 _____님의 졸업 전 취업목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8) 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취업목표가 있으셨습니까?

※ 취업목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희망한 미래의 일자리 또는 직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희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정보탐색 이상의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문39)로 갈 것**

※ 졸업 이전 설정했던 취업목표가 여러 개 있었던 경우, 문38-1) ~문38-5)까지 가장 오래 준비한 취업목표 한 가지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8-1) 취업목표를 설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_____학년 _____학기

문38-2) 위 취업목표로 계획했던 직업이 있습니까?

1. 그렇다 (직업명 또는 직업내용 : _____)
2. 아니다

문38-3) 취업 목표로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직장(일자리)에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셨습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4.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5.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7. 자영업
8. 기타(_____)

문38-4) 위의 취업목표를 이루셨습니까?

1. 그렇다 → **문39)로 갈 것**
2. 아니다

문38-5) 현재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높은 목표 설정
2. 관련 정보 부족
3. 경제적 여유 부족
4.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목표 상실(변경)
5. 준비시간의 부족
6. 자질이나 능력의 부족
7.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8. 기타 (_____)

다음은 _____ 님의 졸업 후 구직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9) 졸업 후 2011년 4월 30일까지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47)로 갈 것**

문39-1) 일자리를 찾기 위해 주당 평균 소요한 시간은?

- 주당 평균 _____ 시간

※ 첫 직장경험이 있으신 경우는 첫 직장을 얻기 전까지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까지 일자리를 찾고 계신 경우는 현재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문39-2) _____ 님이 일자리(직장)를 구하려고 하였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2. 가족이 실직하여
3. 본인의 용돈을 벌려고
4.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이므로
5. 자신의 발전을 위해
6.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7. 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직업을 가져야 하니까
8. 기타(_____)

문40) 취업 내지 이직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에 위치하는 외국인 회사
3.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4.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5.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보람실개사, 학습지 교사, 커피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7. 자영업
8. 기타(_____)
9.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문41) 일자리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2순위

1. 학교·학원 선생님들 통해서
2. 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서
3.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4.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을 통해서 (고용센터, 취업센터, 직업소개사 등)
5. 인터넷을 통해서(워크넷, 잡코리아 등 인터넷구직사이트)
6. 회사에 직접연락을 해서(현장실습, 인턴쉽 포함)
7. 기타 (_____)

문42) 귀하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 | 있다 | 없다 |
|------------------------------------|----|----|
| (1) 워크넷 (고용노동부) | | |
| (2) 커리어넷 (교육과학기술부) | | |
| (3)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 (취업지원센터 등) | | |
| (4) 민간회사의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 리쿠르트 등) | | |
| (5) 기타(_____) | | |

문43) 졸업 후 2011년 4월 30일까지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_____ 회

문43-1) 그 중 면접을 본 횟수는 몇 번입니까?

※ 한 기업에서 한 번의 채용전형 동안 여러 번 면접을 본 경우는 1회에 해당됩니다.

- _____ 회

문43-2) 취업(이직)을 위한 일자리 지원 후 합격하여 일자리 제의를 받은 횟수는 몇 번입니까?

※ 문43)에서 지원 횟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 _____ 회
2. 없다 → **문44)로 갈 것**

문43-3) 그 중 일자리 제의(취업)를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44)로 갈 것**

문43-4) 일자리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자리 제의 거절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2. 내 적성과 맞지 않아서
3. 장래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4.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5.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6. 원하던 직업이 아니어서
7. 동시에 두 곳 이상의 일자리에 합격하여서
8. 기타(_____)

문44) 일자리 지원 시 다음 항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하셨습니까?

※ 각 항목에 대하여 1. **전혀 중요치 않음** 2. **중요치 않음**
3. **보통** 4. **중요** 5. **매우 중요** 로 답하여 주십시오.

| | 중요도 |
|------------------|-----|
| (1) 급여 | |
| (2) 직장(고용) 안정성 | |
| (3) 회사규모 | |
| (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 |
| (5) 업무내용의 난이도 | |
| (6) 업무량 | |
| (7) 개인 발전가능성 | |
| (8)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 |
| (9) 근무시간 | |
| (10)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 |
| (11) 출퇴근거리 | |
| (12) 자신의 적성·흥미 | |

문45) 구직활동 과정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 1순위 | | 2순위 | |
|-----|--|-----|--|

1.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3. 경력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어려서
4.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아서
5.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6. 수임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7.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8.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9. 기타()

문46) 취업 또는 이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거나 현재(조사기준 기간)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 항목 | 예 | 아니오 |
|--|---|-----|
| 1) 외국어 공부 (TOEIC, JPT, CPT 등 외국어 시험 준비 포함) | | |
| 2) 웹, 프로그램 등 IT 교육 수강 (컴퓨터 관련 교육) | | |
| 3) 자격증 취득 | | |
| 4) 면접시험 준비 및 이력서 작성 등 | | |
| 5) (2)~(4)외의 직업훈련 | | |
| 6) 현장 실습 및 인턴쉽 | | |
| 7) 공무원, 공사, 일반기업체 등 채용시험 준비 | | |
| 8) 외모관리 | | |
| 9) 기타 | | |

다음은 **님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7) 귀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은 직장을 갖기 위한 취업, 창업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합니다.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되며, 통신폭자외 교양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하지만, 꽃꽂이, 노래교실 등 단순한 취미 활동은 제외됩니다.
- ※ 재학중에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한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인정되는 교과목도 제외되며, 정규학교교육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됩니다.

1. 예 → 문47-2)로 갈 것
2. 아니오

문47-1)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2.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이 없어서
3.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해서
5. 직장 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서
6. 비용이 부담되어서
7.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8. 기타()

→ 문48)로 갈 것

문47-2) 총 몇 개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 _____ 개

※ 문47-3)문47-12은 **응답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47-3) 어떤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 또는 훈련을 포함하여 중요한 것 3개까지만 기입 하여 주십시오.

문47-4) 받으신 교육 또는 훈련은 다음 중 어떤 분야에 해당합니까?

- | | |
|-------------------|------------------|
| 1. 농·림·어업분야 | 13. 서비스분야 |
| 2. 식품분야 | 14. 경영·사무분야 |
| 3. 섬유·의복분야 | 15. 금융·보험분야 |
| 4. 화학분야 | 16. 보건·의료분야 |
| 5. 금속·비금속분야 | 17. 환경·비파괴·안전분야 |
| 6. 기계분야 | 18. 교육·법률·사회복지분야 |
| 7. 건설분야 | 19. 판매·영업분야 |
| 8. 전기분야 | 20. 운전분야 |
| 9. 전자분야 | 21. 계층별교육분야 |
| 10. 컴퓨터분야 | 22. 어학분야 |
| 11. 인쇄·출판·디자인분야 | 23. 문화·예술분야 |
| 12. 목재·펄프·가구 공예분야 | |

문47-5)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_____ 년 월 ~ _____ 년 월

문47-6) 받으신 교육 또는 훈련의 총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__ 시간

문47-7)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시기는?

1. 취업이전
2. 취업이후 또는 재직 중
3. 실직기간 또는 미취업기간 동안

문47-8) 귀하가 받은 교육□훈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
2. 정부지원훈련
3.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비로 선택한 교육훈련
4. 기타()

문47-9) 교육□훈련은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까?

1. 근무장소 및 사업체의 생산시설 등 현장에서 받는 훈련(OJT)
2. 근무장소 및 사업체의 생산시설 이외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받는 직업 훈련(OFF-JT)
3. 인터넷 통신훈련(e-learning)
4. 우편통신훈련
5. 혼합훈련(OJT+e-Learning, 집체+e-Learning, OJT+우편통신훈련, 집체+e-Learning 등)
6. 기타()

문47-10) 직업훈련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1. 공공훈련기관 (인력개발원 등)
2. 민간직업전문학교(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사설학원 등)
3. 근무장소나 사업체의 생산시설 등 현장
4. 사업체 훈련기관 또는 사업체 부설연수원
5. 대학 또는 전문대학
6. 기타()

문47-11)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업무에 필요해서
2. (재)취업을 위해
3. 전직, 이직을 위해
4.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어
5. 수당을 받기 위해
6. 개업 또는 창업을 위해
7. 상급학교 진학
8. 자격증 취득을 위해
9. 기타()

문47-12) 귀하가 받은 교육 또는 훈련이 위의 주된 목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2.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3. 보통이었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47-3) 문47-12) 응답표>

| | 1 | 2 | 3 |
|------------------|------------|------------|------------|
| 문47-3) 교육(훈련) 분야 | | | |
| 문47-5) 기간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 문47-6) 시간 | 총 _____ 시간 | 총 _____ 시간 | 총 _____ 시간 |
| 문47-7) 시기 | | | |
| 문47-8) 교육유형 | | | |
| 문47-9) 방법 | | | |
| 문47-10) 훈련기관 | | | |
| 문47-11) 목적 | | | |
| 문47-12) 도움정도 | | | |

다음은 _____님의 취득 자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8) 귀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문49)로 갈 것

문48-1) 귀하가 소지하신 자격증은 총 몇 개입니까?

유형별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개수 |
|--|--------|
| 1) 국가전문자격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 _____개 |
| 2) 국가기술자격 (정보처리기사, 판공기사, 용접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 _____개 |
| 3) 공인민간자격 (국가공인) | _____개 |
| 4) (순수)민간자격 (비공인) | _____개 |
| 5) 외국자격 | _____개 |
| 합 계 | _____개 |

*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각 부처별로 법적근거가 있으며 면허적 성격을 가진 자격이 대부분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술의 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 공인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 중 공인을 받은 자격입니다.

* (순수)민간자격은 공인이 되지 않은 자격으로 등록에 의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자격입니다.

* 외국자격은 운영, 시행주체가 외국인 경우를 말합니다.

문48-2) 귀하가 소지하신 자격증 중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 자격증명 : _____ (code: _____)

* 문48-3) 문48-1)는 문48-2)에서 응답한 자격증명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48-3) 자격증의 취득 시기는?

1. 고등학교 재학 중
2. 고등학교졸업 후(취업 전)
3. 고등학교졸업 후(취업 이후)

문48-4) 자격증 취득당시 가장 주된 취득목적은?

1. 업무에 필요해서
2. (재)취업을 위해
3. 전직, 이직을 위해
4.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어
5. 수당을 받기 위해
6. 개업 또는 창업을 위해
7. 상급학교 진학
8. 기타()

문48-5) 귀하가 취득한 자격증이 위의 주된 목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2.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3. 보통이었다
4.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_____ 님의 향후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9) 앞으로(조사기준일 이후) 1년 이내 귀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된 계획 한 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님 → **문56)으로 갈 것**
2. 직장 옮김 → **문50)으로 갈 것**
3. 취업 → **문51)로 갈 것**
4. 개인사업이나 창업 → **문52)로 갈 것**
5. 그냥 쉬겠다 → **문53)으로 갈 것**
6. 국내 학교로의 진학 → **문54)로 갈 것**
7. 어학연수 · 유학 → **문55)로 갈 것**
8. 군입대
9. 구체적인 계획 없음 → **문56)으로 갈 것**
10. 기타

문50) 직장을 옮기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보수가 적어서
2. 전망이 없어서
3.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4.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5.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거나 될 것에 대비해서
6.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7.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8.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불화
9. 현재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10.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11. 건강상의 이유로
12. 집안 사정 때문에(육아, 가사 부담 등 포함)
13. 기타(_____)

문50-1) _____ 님이 직장을 옮기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정부의 지원 등)은 무엇입니까?

1. 새로운 직장이나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자신에게 맞는 직업 선택을 위한 상담 제공
3.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4. 새로운 직장 탐색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
5. 기타 (_____)

→ **문56)으로 갈 것**

문51) _____ 님이 일자리(직장)를 구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2. 가족이 실직하여
3. 본인의 용돈을 벌려고
4.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이므로
5. 자신의 발전을 위해
6.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7. 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직업을 가져야 하니까
8.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9. 기타(_____)

→ **문56)으로 갈 것**

문52) 어떤 방법으로 개인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1. 스스로 창업할 계획이다
2.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다
3. 기타(_____)

문52-1) 개인 사업을 하시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2. 임금근로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3. 임금근로자보다 내 생활(시간) 갖기가 쉬울 것 같아서
4. 조직생활이 안맞거나 사업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5.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서
6. 사업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해서(실현시키고 싶어서)
7.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8. 기타(_____)

문52-2) 사업비용은 주로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입니까?

1. 본인
2. 가족, 친지
3. 동업자
4.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5.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6. 정부의 보조, 지원
7. 기타(_____)

→ **문56)으로 갈 것**

문53) 휴식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하고 싶지 않아서(직장에 매여 있기 싫어서)
2. 돈을 벌 필요가 없어서(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어서)
3. 적은 돈을 받고 고생하기 싫어서
4. 쉬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5. 건강상 이유로
6. 그냥 당분간 쉬고 싶어서
7. 기타(_____)

→ **문56)으로 갈 것**

문54) 진학하시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2. 전공 영역을 바꾸어 공부하고 싶어서
3.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4. 졸업 후 보다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5. 주변(부모/친척 등)의 권유 때문에
6. 기타 (_____)

→ **문56)으로 갈 것**

문항55) 어학연수 · 유학을 계획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2.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불만족스러워서
3. 극심한 취업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4. 국내에서는 비전이 없어서
5. 해외유학 경험자를 더 인정하는 사회풍토 때문에
6. 순수 학문 목적을 위해서
7. 기타 (_____)

→ **문56)으로 갈 것**

다음은 _____님의 가계배경 및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6) 귀하의 출생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1. 서울 | 6. 광주 | 11. 충남 | 16. 제주 |
| 2. 부산 | 7. 울산 | 12. 전북 | 17. 기타(_____) |
| 3. 대구 | 8. 경기 | 13. 전남 | |
| 4. 대전 | 9. 강원 | 14. 경북 | |
| 5. 인천 | 10. 충북 | 15. 경남 | |

문57)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1. 서울 | 6. 광주 | 11. 충남 | 16. 제주 |
| 2. 부산 | 7. 울산 | 12. 전북 | 17. 기타(_____) |
| 3. 대구 | 8. 경기 | 13. 전남 | |
| 4. 대전 | 9. 강원 | 14. 경북 | |
| 5. 인천 | 10. 충북 | 15. 경남 | |

문58) 현재 거주하는 집은 다음의 어떤 주거형태입니까?

- | | |
|------------|-------------|
| 1. 자가 | 2. 전세 또는 월세 |
| 3. 직장내 기숙사 | 4. 기타 |

문59)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_____명

※ 가구원이란 : 조사가준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문60)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2011년 5월 1일) 생존해 계십니까?

- | |
|----------------------------------|
| 1. 부모님 모두 생존 |
| 2. 아버지만 생존 |
| 3. 어머니만 생존 |
| 4. 부모님 모두 안계심 → 문65)로 갈 것 |

문61) 귀하는 현재(2011년 5월1일)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까?

- | |
|--------|
| 1. 예 |
| 2. 아니오 |

문62)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 | 학력 | 이수여부 |
|-----|-------------|------|
| 아버지 | 1. 무학 | |
| | 2. 초등학교 | |
| | 3. 중학교 | |
| | 4. 고등학교 | |
| | 5. 전문대(초급대) | |
| | 6. 대학 | |
| | 7. 대학원 | |
| 어머니 | 1. 무학 | |
| | 2. 초등학교 | |
| | 3. 중학교 | |
| | 4. 고등학교 | |
| | 5. 전문대(초급대) | |
| | 6. 대학 | |
| | 7. 대학원 | |

문63) 부모님의 현재(2011년 5월 1일)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아버지 | | 어머니 | |
|-----|--|-----|--|

- | | |
|---------------------------|------------------------------------|
| 1. 관리직 | 8.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관련직 |
| 2. 경영 · 회계 · 사무 관련직 |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3. 금융 · 보험 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4. 교육 및 자연과학 ·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5.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직 | 12. 미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관련직 |
| 6. 보건 · 의료 관련직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
|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14. 건설 관련직 |
| | 15. 기계 관련직 |
| | 16. 재료 관련직(금속 · 유리 · 점토 · 시멘트) |
| | 17. 화학 관련직 |
|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 | 19. 전기 · 전자 관련직 |
| | 20. 정보통신 관련직 |
| | 21. 식품가공 관련직 |
| | 22. 환경 ·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및 생산단순직 |
| | 23. 농업어업 관련직 |
| | 24. 군인 |
| | 25. 무직(은퇴, 주부, 학생) |

문64) 현재(2011년 5월 1일) 부모님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세금을 포함한 소득에 표기해 주십시오.

- | | |
|-----------------|------------------|
| 1. 100만원 미만 | 5. 400~500만원 미만 |
| 2. 100~200만원 미만 | 6. 500~600만원 미만 |
| 3. 200~300만원 미만 | 7. 600~1000만원 미만 |
| 4. 300~4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 9. 소득없음 | |

집필진

| | | |
|-------|-----|--------------|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조동진 | 한국고용정보원 과 장 |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행일 : 2011년 12월 30일

발행인 : 정철균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T. 02 · 2629 · 7114

인 쇄 : 신생용사촌인쇄정보(주) T. 02 · 426 · 4415

※ 저작권법에 의해 허락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327-6 부가기호 93320 (비매품)